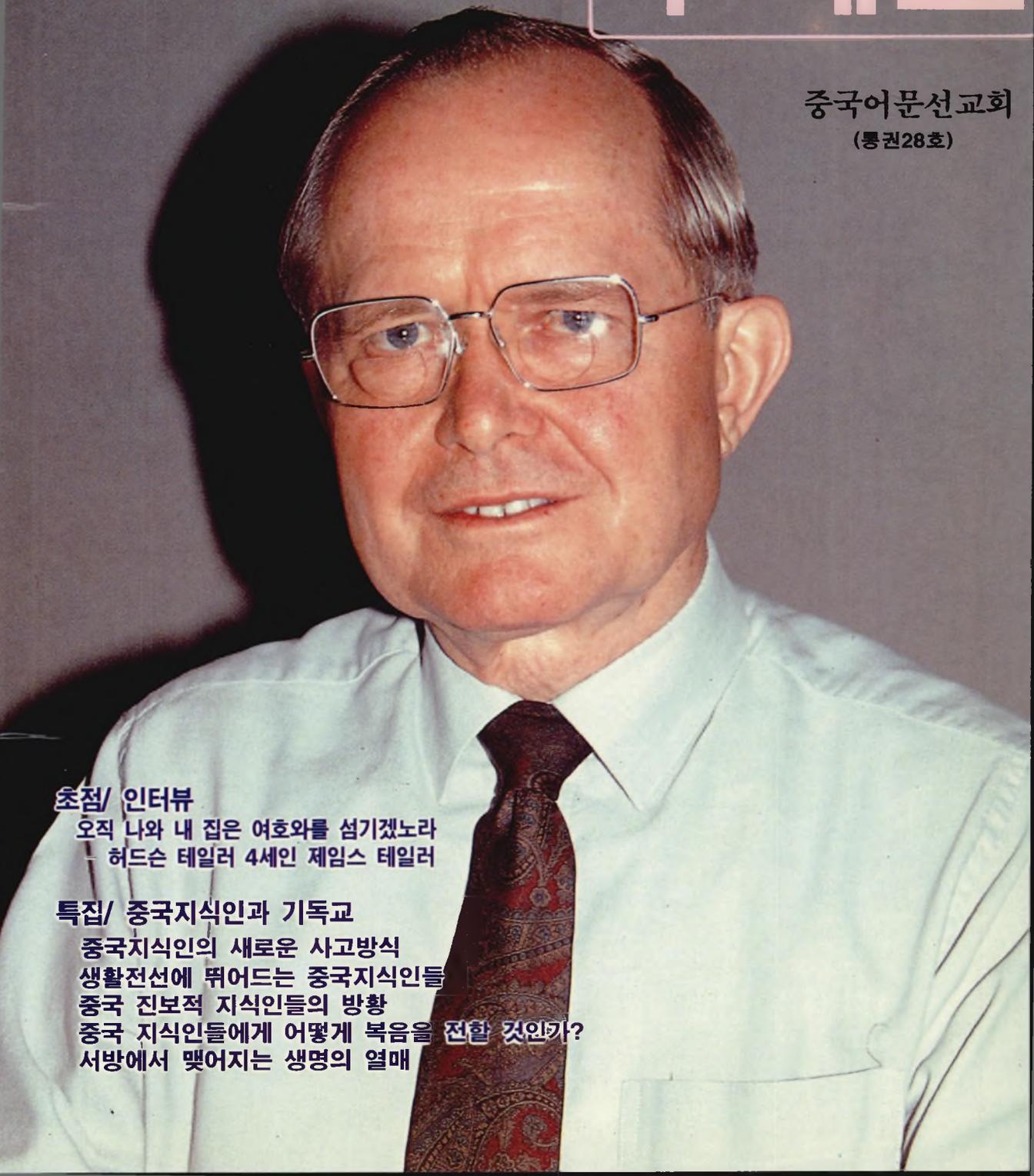


각원간 · 중국을 주께로 / 발행처 · 사남(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 / 전화 · 594-8038, 533-5497 / 발행인 · 이동화
발행일 · 1994. 6. 10 / 등록·1994.2.14일자(등록번호바 - 2073) · 제2호(통권28호)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격월간
1994.7/8

중국어문선교회
(통권28호)



초점/ 인터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 허드슨 테일러 4세인 제임스 테일러

특집/ 중국지식인과 기독교

중국지식인의 새로운 사고방식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중국지식인들
중국 진보적 지식인들의 방향
중국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서방에서 맺어지는 생명의 열매

Wedding Photo

행복한 순간의 모습을 담아드립니다.



임백천 · 김연주 커플

사랑과 축복속에 이루어지는 결혼!
언제보아도 환한 웃음이
배어나오는 사진을...

연출사진의 名家[®]
동승스튜디오
PHOTO STUDIO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72-2(방송대학 앞)
대악포본점 : 743-6266~8 FAX:743-6268
소공동지점 : 775-7767~8 FAX:754-9100

중국을 휩쓰는 기독교 열풍



이동화

『기독교 열풍 중국대륙 휩쓴다.』

이 말은 6월1일자 뉴스위크지의 종교란 표제이다. 해당란에는 5페이지에 걸친 중국기독교 관련 기사 외에도 불교, 도교, 이슬람교 등 중국의 여타 종교 상황을 다룬 3페이지 기사가 더 실려 있다. 그 전주에 있었던 재클린 여사의 사망소식만 아니었다면 표지기사로 처리될 수도 있었을 정도의 편집 비중이다. 그것은 중국 교회가 세계적 주목을 받을 만큼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중국교회는 놀랍게 성장하고 있다. 표제의 표현처럼 기독교는 열풍같이 중국대륙을 휩쓸고 있는 것이다. 기사를 쓴 뉴스위크지 북경지국 조지 베르프리트 기사는 그 단적인 예를 광주(廣州)의 대마참(大馬站)교회에서 찾았다. 임헌교(林獻羔) 목사가 시무하는 이 가정교회의 2층 목조건물은 예배 1시간 전부터 신도들로 붐빈다. 1층은 물론 계단까지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이 들어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도들의 대부분이 젊은이들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현재 중국을 휩쓸고 있는 기독교 개종 물결의 일면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기사는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독교 열풍의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일까? 중국의 개방정책 때문일까? 이것은 부분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정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중국의 치안당국은 교회를 폐쇄하고, 외국인 선교사를 추방하며, 내국인 성직자들은 투옥하거나 처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반(反)기독교적 정책은 지난 1월 31일 이붕 총리 명의로 포고된 국무원 전령 제144호 『중국인 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과 제145호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 그리고 이 법규들에 의거하여 지난 2월 하남성에서 비밀예배를 주관하던 홍콩 부활교회의 데니스 벨콤과 그 동역자들이 구금 추방된 사건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조지 베르프리트기사는 바로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과 광적인 배금풍조의 반작용이 중국대륙에 기독교 열풍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것은 다분히 사회학적 분석의 성격이 짙지만 또다른 배금주의에 젖어 있는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현재 우리들의 중국선교사역이 중국교회의 부흥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시정해 나가는 겸손함이 요구된다.

이동화/『중국을 주개로』 발행인

중국을 주께로

1994년 7/8월호 목차



표지설명
5월 9일 내한한 허드슨 테일러의 증손자 제임스 테일러. 그는 OMF 본부 총재를 역임하였고 현재 홍콩에서 Chinese Ministry Department 책임자로 사역을 하고 있다.

초점/ 인터뷰

- 8**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 허드슨 테일러 4세인 제임스 테일러 석은혜

특집/ 중국지식인과 기독교

- 18** 중국지식인의 새로운 사고방식
21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중국지식인들 陳詒祈
28 중국 진보적 지식인들의 방향 이우연
36 중국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석은혜
42 서방에서 맺어지는 생명의 열매 艾思

선교·전략

- 1** 발행인 칼럼/ 중국을 휩쓰는 기독교 열풍 이동화
4 선교의 생/ 중국선교에 부름을 받고 허드슨 테일러
14 선교일언/ 선교사로 떠나려는 이들에게 이삭 목사
49 중국선교 기상도/ 향후 중국선교에 대한 전망 박진국·함태경 대담
54 중국의 미전도족속/ 중국 북동지역의 미전도족속을 알자 김성태 교수
71 1p 묵상/ 포기하고 싶은 유혹
118 중국선교의 발자취/ 중국선교의 선배 선교사들 방지일 목사
124 중국을 향한 우리의 준비/ 감탄사까지도 중국어로 최사라

선교정보

- 61 현지에서 온 소식/ 중국의 요즈음 강성광 선교사
- 72 중국소수민족을 알아/ 그들은 어디에 살며 어떤 언어를 사용하나?(II)
- 81 주한 중국대사가 본 중국경제의 현주소/ 張庭延
- 89 오늘의 중국/ 변화하는 광서(廣西) 변경 도시의 위험 蔡醒民
- 92 중국유학 안내/ 중국 상해시의 주요대학 박명수
- 122 중국선교 참고도서/ 중국의 붉은 별 외 2권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130 중국은 지금/ 보도물에 나타난 중국동향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인물·간증

- 100 최근 중국교회 인물/삼자교회 지도자 包佳源
- 102 중국기독교 인물소전/ 불타는 전도자, 뛰어난 부흥강사 宋尚節
- 111 대륙 성도의 간증/나의 사랑, 나의 조국 왕에스더

선교마당

- 120 내가 사랑하는 선교도서/ 문화적 갈등과 사역 박진국
- 126 중국 여행상식/ 중국인의 관습과 예절
- 138 중국어로 찬양을/ 獻上敬拜
- 139 填字遊戲(중국어 퍼즐)

선교동정·기도

- 140 중국을 주제로 기도 캘린더
- 144 국내 선교 동정



장승원 그림



중국선교에 부름을 받고

허드슨 테일러
(Hudson Taylor)

처음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흥분됐던 감정은 점점 가라앉고 한동안 고통과 갈등의 나날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난 후, 나는 고난을 통해 심오한 체험을 했음을 깨달았고, 나의 연약함,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나의 구주이신 주님을 의지해야만 함을 절실히 느꼈다. 최악과 맞서 싸우다 고통과 실망 가운데 처할 때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얻은 평안함과 온전함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다.

구원을 얻고 몇 개월이 지난 어느 한가한 오후, 나는 방에 들어가 긴 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하였다. 그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환희와 기쁨에 넘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며 거듭 나





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다. 내게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내가 모든 희망을 포기하였을 때, 심지어 구원의 소망마저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를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너무 컸던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을 달라고 간구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무리 하찮고 힘겨운 일일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헌신하여 희생할 것을 결심한 것이다.

내가 나의 생명과 육신, 그리고 나의 친구 등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바쳤을 때 내 영혼에 흘러 넘치는 신성한 감격은 내게 분명한 확신을 주었다. 곧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제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 할 수 없는 든든함과 축복이 넘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슨 사역을 해야 할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미 나는 내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알았다.

2, 3년 후 의학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친구이자 스승인 의사의 조수가 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곧장 승락을 해서 안되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행동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쓰실 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예비하심을 기다린다면 자유로움 가운데 그의 부르심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주께 헌신하기로 결심한 몇 달 후, 내 심령 속에 영원히 각인된 한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서 쓰시겠다는 것이었다. 이 사역은 아주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할듯이 보였고 내 목숨까지 바쳐야 할 것 같았다. 당시의 중국은 오늘 날처럼 개방되지 않았으며 선교단체에서도 선교사를 중국으로 보내는 일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선교에 관한 서적도 많지 않았다.

나는 조합교회에 있는 어느 한 전도사가 MEDHURST가 지은 『중국』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를 방문했다. 그는 기꺼이 그 책을 빌려주었고 내게 왜 이 책을 읽으려 하는지 물어 보았다. 하나님이 나를 그 곳에서 쓰시고자 하신다고 대답하자, 그는 어떻게 중국을 갈 것이냐고 물었고 나는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다.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행한 것처럼 허리에 전대를 차지 않아도 아마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였다.

**주께 헌신하기로
결심한 몇 달 후,
내 심령 속에
영원히 각인된
한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서
쓰시겠다는
것이였다.**

**우리들이 당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고 보증하셨던
것을 믿고 행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갈수록 더욱
굳게 믿고 있다.**

그러자 그 전도사는 양손을 내 어깨에 얹으며 자상한 목소리로 “아! 젊은이, 이 다음에 자네가 나이를 먹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똑똑해질거요. 당신의 그런 생각은 예수님 당시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시대에는 불가능해요”라고 말하였다.

지금 나는 그때보다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그다지 똑똑해지지도 않았다. 우리들이 당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고 보증하셨던 것을 믿고 행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갈수록 더욱 굳게 믿고 있다. MEDHURST의 『중국』은 의료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므로 나는 의학을 연구기로 결정하였고, 이것은 훗날 사역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

부모님은 선교사로 가겠다는 나의 결심에 대해 반대하진 않았으나 그렇다고 권하지도 않았다. 부모님은 믿음으로 몸과 의지력 그리고 마음을 단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잘 못 알았음을 깨달으면 이것에 순종하고, 만약 적당한 시기에 길을 열어 주시면 그것에 순종하여 중국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다. 이러한 충고는 내게 매우 중요했으며 훗날 이 충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종종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건강한 육체를 단련하기 위하여 운동을 시작했다. 침구와 편안한 가구들을 가능한 모두 치워 버리고 나중의 힘겨운 생활에 대비했다. 또한 내 능력이 닿는 대로 구제, 전도를 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 병든 자를 위문하러 다녔다. 더욱 충분한 준비를 위해 한동안 집에서 책을 읽었다.

그 후 한 시(市)에 가서 한 의사의 조수

일을 맡아 의학이론을 배워 수술실습을 하였다. 이 의사는 의대와 가까운 곳에 살았고, 또한 몇몇 공장의 지정외과의였으므로 생산현장의 환자들이 종종 병원으로 찾아왔고 나는 그 기회를 통해 환자를 관찰하고 간단한 수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잊지 못할 한 사건이 발생했다.

나는 첫 번째 수입을 어떻게 잘 나누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쓸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했다. 집을 떠나기 전 성경을 잘 공부해서 이 문제의 올바른 해답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나중에라도 어려운 처지에 부딪혔을 때, 생활의 필요로 인해 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나는 얼마를 벌든지 또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 항상 주님의 사역을 위해 최소한 십분의 일은 헌금하기로 작정했다.

그 당시 의사의 조수로 일하는 것이 수입도 괜찮고 만족스러웠지만, 나의 좋은 친구 겸 주인인 그 의사의 가정에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만 했다. 친척 집에 머무르게 되어, 아늑한 곳에서 거처할 수 있었지만 하숙비를 지불하면 남는 것이 없었다. 나는 머뭇속으로, 도대체 이 수입의 십분의 일을 과연 헌금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다. 나의 전부의 수입에서 십일조를 드리면 생활비가 모자란다.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오랜 동안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이 아늑한 거처와 즐거운 환경을 떠나 근교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그 곳은 방 한 칸과 객실 하나가 있는 집인데 식사는 손수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이사함으로 인해 나는 부족함 없이 십일조 헌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생활의 변동은 있었지만 이로 인해 나는 많은 축복을 누렸다.

나는 더 많은 시간 동안 성경을 보며

**헌신과 봉사함에
있어서도
주 예수님의 재림은
강하고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강력한 원동력이며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큰 위로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심방하고 여름밤에는 전도사역에도 동참했다. 예전의 생활로 보아서는 이런 생활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면서 곤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좀 더 절약하여 꾸려 나갈 수 있었다. 원래 가난한 자에게 주기로 작정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었다.

이 때쯤 나의 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 년 재림의 문제로 나의 관심을 끌었다. 친구는 관계된 성경구절을 찾아 주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라고 제안하였다. 그가 준 성경구절에는 아무런 주석이나 설명도 없었다. 한동안 나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그것을 연구했다. 결국 말씀의 감동을 받은 나는, 부활의 몸으로 이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이 외에도 신약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의 백성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헌신과 봉사함에 있어서도 주 예수님의 재림은 강하고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강력한 원동력이며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큰 위로인 것이다. 나는 또한, 주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언제 강림할지 말씀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루하루, 시간시간마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활을 하길 원하셨기 때문임을 알았다. 이런 생활은 결코 물질적인 차원의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든지 우리들은 기쁘게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축복에의 소망은 내 생활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내게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과, 나중에 사역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책을 다 뒤져 골라 내었다. 또 옷장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부끄럼을 느낄 만한 어떤 물건이 없는지 뒤졌다. 내 소유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나의 가난한 이웃들은 조금이나마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심령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일생 동안 형편이 닿는 대로 이런 일을 행할 때마다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삶의 원칙으로 이웃들을 찾아갔을 때 나는 크나큰 영적 기쁨과 축복을 누렸던 것이다. 우리 모두가 물질을 쌓아 두기만 하는 위기에 놓여 있다(무심코 저지른 실수일 수도 있으며, 혹은 직업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시간이 흘러 갈수록 축적되는 물질은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별로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영적 축복을 상실해 가는 원인이 된다. 많은 가난한 자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헐벗은 자들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날은 언제 올 것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자원을 잘 유통시켜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내가 이미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습관화하여 철저하게 행동으로 옮길 것을 제안한다. 왜냐 하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獻身中華-허드슨테일러』 중에서)

번역/차이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



중국은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변함없이 중국을 사랑하는 이가 있다. 평생을 사랑해도 모자라 대를 이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주인공을 만났다.

그가 바로 중국내지 선교회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의 증손자 제임스 테일러Ⅲ이다. 중국선교에 발을 들여 놓은 지 40년째를 맞는 그는, 현재 홍콩에서 Chinese Ministry Department 책임자로 사역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테일러를 만나 그가 사랑한 중국이야기를 들어본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석은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 24:15하)

이 말씀은 8대에 걸쳐 테일러 가문의 가훈이 되었다.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 때문인지 허드슨 테일러 이후 4대를 이어 중국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제임스 테일러 III(James Hudson Taylor, 64세)을 양재동에 자리하고 있는 교육문화회관 커피숍에서 만났다. 한국 OMF에서 주관하고 중국선교협력회가 주최하는 “중국을 알자 3” 세미나(5월 10일-12일)를 인도하기 위해 9일 내한한 그는 비행기 여행으로 인한 여독이 풀리지 않았을 텐데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나이보다 약간 젊어 보이는 이 인자한 서양 할아버지는 정확한 발음의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따라서 우리의 인터뷰는 중국어로 이루어졌다.

우리들은 딸기 주스를 주문하여 마셨는데, 그분만 유독 한국의 전통차인 인삼차를 마셨다. 차 한 잔을 통해 은연 중에 풍기는 선교사의 삶을 보았다고 말한다면 너무 성급한 기자만의 착각이었을까?

한국교회는 중국선교의 침병

“한국교회는 중국선교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신학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영성면에서 기초가 잘 닦여

있습니다. 또한 자원이 풍부하여 많은 전문인 선교사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람들은 타 민족보다 전도의 열정이 있고, 중국인들과 외모면에서 비슷하다는 이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장점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 그런 후 그는, 중국선교는 중국사람들의 성격에 맞게 신중하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국선교사와 한국선교사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저는 이번 이 ‘중국을 알자 3’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중국을 잘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이 행동으로 옮겨지길 바랍니다.”

그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 성도들이 중국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했다. 또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 성도들이 중국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그의 작은 소망이라고 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중국선교에 있어서 3가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영성입니다. 즉 언제 닦칠지 모르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

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교회사 등 중국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인선교사(전통적인 선교사로서는 들어가지 못하기에)가 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준비없이 들어가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까? 그는 선교사로 나서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특히 전문인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삶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외국어(영어, 일어, 독어) 선생으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을 강조했다. 그리고 중국에 사회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직업이면 더욱 좋단다.

또한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필히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였다. 그의 유창한 중국어를 들으면서 이분이야말로 이 점을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중국선교를 하기 위해 들어갈 때 어떤 자세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덧붙여 설명했다.

“정직성과 겸손은 필수입니다. 또한 중국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선교사는 조역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중국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사역을 망치게 됩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선교는 선교사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던 1949년, 그 당시 중국의 신도는 100만 명에 이르렀다. 공산당은 외국의 모든 선교사들을 몰아내고 기독교인을 핍박하였다. 그 후 문화대혁명 기간에 중국 공산당은 모든 종교를 말살시켰다. 교회는 문이 닫히고, 기독교인들은 옥에 갇히거나 핍박으로 인해 다 흩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중국에서 일하고 계셨기에 현재 중국의 크리스천은 6천만 내지 7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중국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면서 방송 선교, 문서선교, 전문인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제자양육, 지도자 양성, 선교사 파송 등을 체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외국으로 유학한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귀국한 후에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거듭 강조한 그는 기존의 중국 가정교회만을 인정하고 돕는 선교방법에서 탈피하여 삼자교회를 통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선교방법도 언급했다. 중국 성경책을 인쇄하는 “애덕기금회”에 성경책 찍는 종이를 지원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후원해서 도울 수 있다. 또 중국 삼자신학교에서 단기 신학교 강사를 초청하는데, 그런 초청에 응해서 선교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중국의 미전도종족 선교

“전문인으로 사역하게 될 때 선교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교육부문, 의료부문, 농촌개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운



남성의 한 빈곤한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1년 수입이 인민폐 300원(한화 3만 원)입니다.”

중국의 가난한 농민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는 제임스 테일러는 정말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그는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선교도 빼놓지 않고 들려준다.

“중국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 리쭈족은 믿는 사람이 2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족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소수민족이 미전도종족입니다.”

중국의 미전도종족은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그 중 하나라고 말한다. 1950년도에 북경에 66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현재는 5개의 교회만 남아 있고, 상해에는 2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10여 개 정도의 교회밖에 남아 있지 않다.

중국의 도시 인구에 비해 교회 수는 너무나 적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농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 오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중국의 또다른 미전도종족이다.

이 중국의 미전도종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과 방송선교가 시급하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가 그들의 언어를 준비하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또한 중국 성도 중에는 중국소수민족이나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의 부담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격려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먼저 지도자로 양육되는 일이 더 시급하다.

“현재 중국 크리스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에 뿌리박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하면서 그들을 지도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이후 대를 이은 중국 선교

중국내지선교회의 창시자이며 중국선교의 신기원을 이룩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854년에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갔다. 그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께 필요를 공급받는 믿음선교를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중국사람들과 동일시되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루었다. 그들의 언어를 배

우고,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처럼 머리 모양(변발)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마침내 성공했다.

허드슨 테일러의 아들(2세) 허버트 테일러는 원래 의학을 공부하려고 했으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중국선교사가 되었다. 그에 의해 1881년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치푸학교가 산둥성 옌타이(煙臺)에 세워졌고 그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교육사역을 했다.

허드슨 테일러 손자(3세)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제임스 테일러의 아버지)도 40년 동안 중국선교사역을 하였다. 20년은 중국 하남성에서 서북성경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사역했고, 20년은 타이완에서 성광성경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사역을 하였다.

허드슨 테일러의 증손자(4세; 제임스 테일러는 허드슨 테일러 4세이다. 그의 이름 뒤에 붙은 III이라는 숫자는 그의 집안에 같은 이름을 가진 3번째 사람이라는 뜻이다) 제임스 테일러는 중국 하남성(河南省) 개봉(開封)에서 태어났다.

그 후에 미국에서 신학교육을 마치고 1955년 타이완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였다. 올해가 바로 그의 중국선교사역 40년째 되는 해이다.

신실하신 제임스 테일러의 하나님

제임스 테일러는 중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산둥성의 선교사 자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가 10살 되던 해에 일본이 중국을 공격해 왔고, 전쟁으로 중국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아버지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녀를 데리고 중국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중국을 떠나지 말고 내지로 들어가 일본군을 피해 도망가는 중국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중국인 지도자를 양성하여라.”

제임스 테일러의 부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녀들을 산둥성에 남겨둔 채 중국 내지로 들어가 계속 사역을 하였다. 자녀들을 염려하는 그의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응답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는 16살이 될 때까지, 5년 반 동안 부모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는 그의 3형제와 함께 일본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게 그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돌봐 주셨다. 같은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던, 그들의 선생님이었던 에릭 리들(영국의 마라톤 국가 선수로서 금메달리스트. 그도 선교사의 자녀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중국선교사로 헌신하여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이분의 전기가 발간되어 있다)이 그들의 부모가 되어 그의 형제들을 돌봐 주었던 것이다.

그 후 제임스 테일러는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결혼도 하였다. 여러 가지 선교사로서의 준비를 마치고 그의 부인과 함께 타이완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평생을 중국선교를 위해

제임스 테일러는 3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들은 대만에서 출생해서 대만에서 교



육받고 자랐다. 한번은 매일 학교에 데려다 주는 제임스 테일러에게 그의 딸이 학교에 오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라. 이유인즉, 그의 친구들이 “너희 아빠는 외국인이다.”라며 놀렸다는 것이다. 그의 딸은 이제껏 노란 머리를 한 자신을 중국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현재 그의 큰딸은 피츠버그의 슬림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작은딸은 성경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의 아들은 미국 보스톤의 중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중국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5대를 이어서 중국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그는 타이완 아가씨와 결혼을 하였다.

“과거에는 테일러 가정이 중국인에게 갔지만, 오늘날에는 중국인이 테일러 가정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제임스 테일러의 중국인 친구가 한 마디 농담.

제임스 테일러는 25년 동안 대만에서 사역하였다. 처음에는 대만 남쪽의 까오슝(高雄)에서 그의 아버지가 창설한 성광 성경학교에서 사역을 하였다.

그 후 그는 대학을 마친 사람들을 훈련할 수 있는 신학기관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1970년에 타이베이에 중화복음신학원(華神)을 창설하였다. 그곳에서 10년 간을 학장으로 사역하였다.

1980년부터 11년 간 싱가포르에 있는 OMF 본부 총재를 역임한 후 91년부터 홍콩에서 Chinese Ministry Department 책임자로 세계화교를 위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그는 평생을 온전히 중국선교를 위해 살고 있었다.

앞으로 의료선교사역에 치중하면서 중국인의 신학교육과 지도자 양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것을 위해 25가정을 중국 땅에 파송할 계획도 갖고 있다.

장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마무리지으면 서 기자는 제임스 테일러를 통해 중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새겨볼 수 있었다.

“중국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중국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이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하고, 중국의 크리스천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석은혜/중국어문선교회 간사

선교사로 떠나려는 이들에게

이삭

중 국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 오는 이가 부쩍 늘었다. 러시아 선교는 제멋대로 뛰어들어가서 많은 성과를 올린 것같이 보인다. 몽골도 마찬가지다. 그런 판국에 중국 선교전망이 어떠냐고 묻는 것은, 러시아처럼 들어가게 되지는 않고 분위기는 왠지 쌀쌀하고 모두들 쉬워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은 많으니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던 것 같다. 선교에 관한 한 신중론을 펴왔던 나는 또다시 신중론을 펴야 할 것 같다.

먼저 준비하라

무엇이든 좋다. 언어를 준비하라. 여권을 만들어라. 중국을 배워라. 습관도 배우고 문화도 배워라. 지리도 익히고 역사도, 사람도 배워라. 관계기관 혹은 선교회들을 찾아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습득하라(선입관은 금물이다). 여기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면 준비할 것이 또 있다.

자신의 죄악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춰라. 용서하여야 할 사람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기 위해 찾아가라. 불가능하면 편지라도 써라.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축복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들에게 있는 어떤 걸림들도 해결되어야 한다. 현지의 성도, 아니 복음을 전혀 들은 바 없는 그들을 섬길 수 있으려면 지금 섬길 줄 아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목사나 선교사는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 있다. 이제부터는 대접하고 섬겨야 할 차례인 것이다. 아직도 섬김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준비된 후에 떠나라.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축복 받고 기도의 후원없이 어찌 선교현장을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성공적인 선교는 후방의 기도지원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매일 것이 있는데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지 말라. 부모가 말리면 부모가 원할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들이 준비이다.

기도하라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경학 교를 다녀 성경을 배우고 선교훈련을 거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제자사역 혹은 지도자 양성을 공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학문에 그치면 인격과 신앙형성에서 잘못된다. 예수의

제자사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식보다 인격, 가르침보다 섬김이 앞서려면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바쁜 선교현장에서 기도한단 말인가? 선교현장은 더욱더 메마르고 황량하다. 게다가 함께 손잡고 기도할 동역자를 만나기가 어렵다. '기도의 생활화'가 출발전에 있어야 한다. 선생은 많으나 아비와 같은 이가 없는 세대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방향을 제시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사랑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하며, 매일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공급되어야 할 물질을 위하여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 이 습관이 없이 현장에 가 버리면 우리는 쉽게 탈진한다. 훌륭한 군인은 좋은 훈련을 받은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가라

너무 오랫동안 머뭇거리지 말라. 선교학을 연구하여 정립한 후에 떠나겠다고 말한다면 그 후에는 또 선교학 박사가 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젊었을 때 가라. 많은 것을 배운 후에 가려고 하지 말라. 그러나 갈 곳을 내가 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갈 뿐이다.

우리는 단지 좋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현지에서의 언어훈련은 빠른 시간에 문화와 습관을 터득하게 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그러므로 단기여행 혹은 비전 트립은 꼭 효과적이므로 높이 추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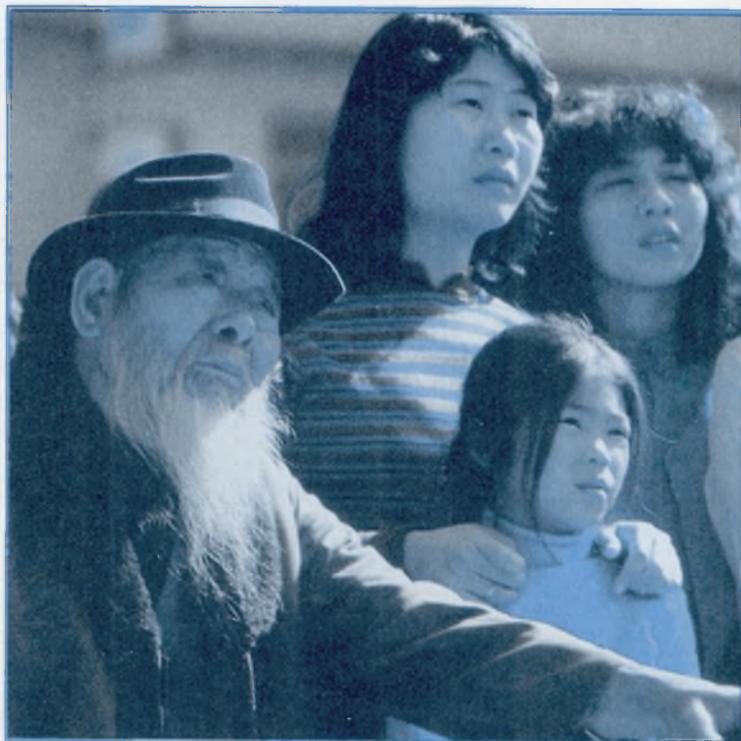
침투하라

어휘가 좀 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은 누룩과 같이 침투하여 천국의 낙하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

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의 왕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일꾼들로 불리움을 받았으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쉬운 일은 없다. 다만 그 나라의 문화와 습관들을 잘 익혀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평강으로 이끌어 갈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지혜 주시는 대로 침투하여야 한다.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 뉴욕에서 일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일하는 이가 있고, 독일의 베를린에서 일하는 이가 있다. 런던에서, 워싱턴에서, 심지어는 모스크바에서 일하는 이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지역을 초월하여 일할 수 있는 세대 속에 우리가 존재하므로 이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또 직업별로 침투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예술, 혹은 사업, 심지어는 방송



선교현장은 더욱더 메마르고 황량하다. 게다가 함께 손잡고 기도할 동역자를 만나기가 어렵다. 진리에 목말라하는 이들에겐 준비된 일꾼이 필요하다.

등도 동질의 세계를 이루면서 침투하기에 좋은 선교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선포하라

많은 이들이 변론하며 먹을 것을 주어서 교인 늘리는 작전을 선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선포함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상명령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은 변치 않는 위로의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을 조심스럽게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은 큰 확성기를 거리에 놓고 전도 집회를 가지는 것만을 선포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 있다. 선포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강압적인 내용이 숨어 있지만 그 말이 강해야 할 필요는 없다. 선포는 “구워삶기”가 아니다. 선포는 선포로 족하다. 따라서 선포하는 방법을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현명하게 골라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선교지를 연구하라

피선교지를 아는 것은 선교사역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의 여행 자유화로 인해 마음놓고 준비없이 떠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그들의 법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들의 법을 존중하려면 그 법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은 민족 중의 하나다. 따라서 법을 지키는 습관을 출국 전에 생활화하여야 한다. 일본 관광객들은 어디를 가나 우대받지만 한국 여행객들은 무시당하고 멀리 당하고는 한다. 이런 차별을 당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법과 문화와 습관과 예의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섬겨라

섬기는 사람은 주인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종의 형태라야 합당하다. 중국의 성도들과 현지 목회자들을 선배로 섬길 수 있는가? 섬길 자세도, 섬기고 싶은 생각도 없다면 떠나지 말라. 당신은 사람을 얻기는 커녕 영혼들을 죽이고 방자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영웅이 되어서 말이다. 선교지에서는 영웅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무익한 종이 필요할 뿐이다.

현대 선교전략 중 비거주 선교사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비거주 선교사란 한 곳에서 당회장도 하고, 교장도 하고, 모든 지역사회에 권한을 지닌 선교사의 반대말이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가르치고, 섬기고, 토요일부터는 현지 성도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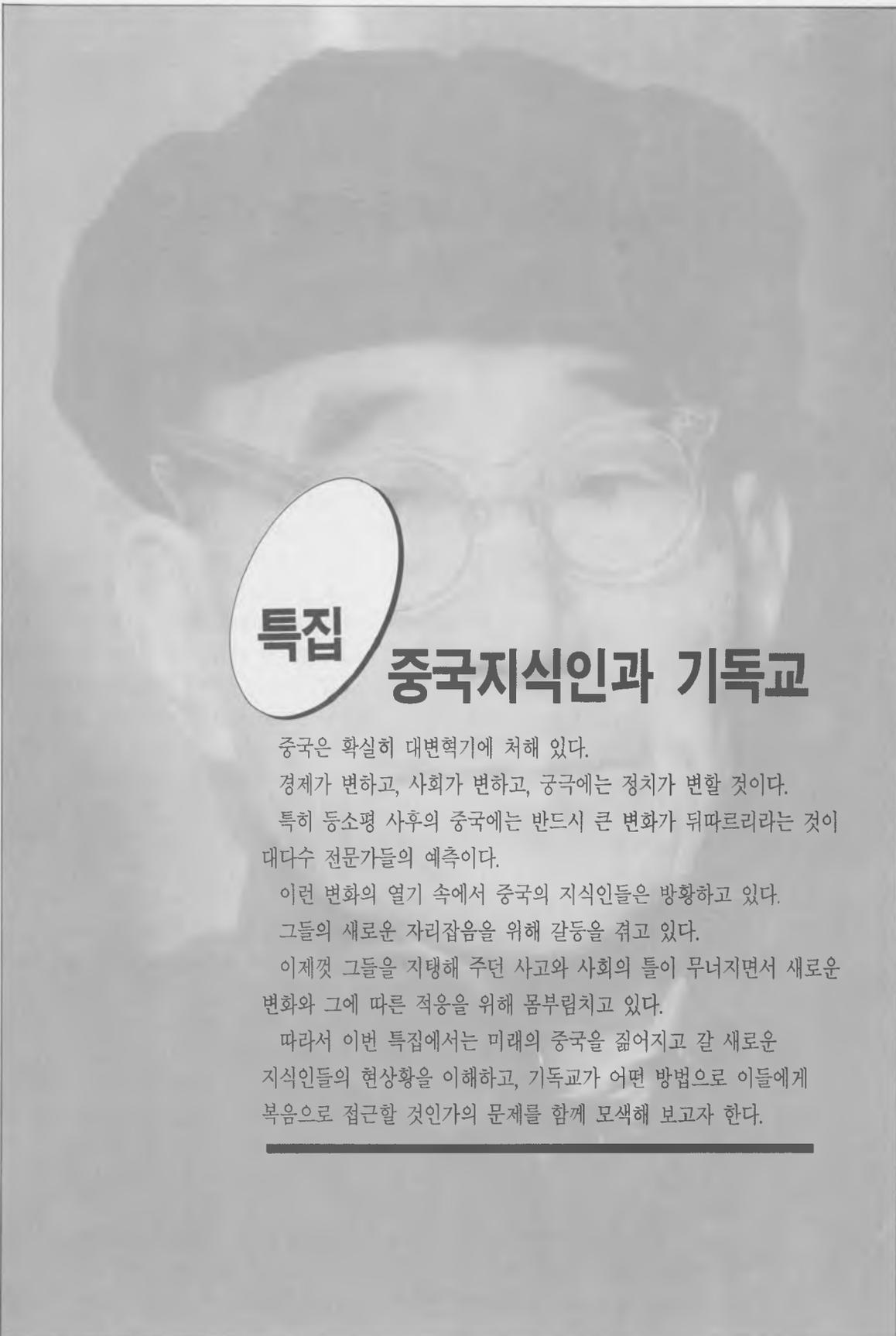
러시아의 선교현장과 필리핀의 선교현장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한국 선교사들의 왕국으로 변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4월 1일부터 중국여행이 자유화되었다. 중국여행 자유화를 어떤 의미에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조심스럽다. 왜냐 하면 한국인들의 준법정신의 결여와 자만심 그리고 선심 쓰는 허세가 민족성 속에 끼여들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작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바로 그 예수를 닮는 일이 모든 것 위에 먼저 임을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선교지로서 중국을 택하여도 좋을 것이다.

좋은 중국선교는 좋은 북한 선교와도 맥이 통한다.

이 식/목사, 모퉁이들선교회 대표



특집

중국지식인과 기독교

중국은 확실히 대변혁기에 처해 있다.

경제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궁극에는 정치가 변할 것이다.

특히 등소평 사후의 중국에는 반드시 큰 변화가 뒤따르리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런 변화의 열기 속에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방황하고 있다.

그들의 새로운 자리잡음을 위해 갈등을 겪고 있다.

이제껏 그들을 지탱해 주던 사고와 사회의 틀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집에서는 미래의 중국을 짚어지고 갈 새로운 지식인들의 현상황을 이해하고, 기독교가 어떤 방법으로 이들에게 복음으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중국지식인의 새로운 사고방식

런던 국제전략연구소의 학자들이 1년 6개월에 걸쳐 작성한 중국 국정(國政) 관련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변형된 중국>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세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북경 중앙정부의 통제 능력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라면 鄧小平이 타계한 이후 중국은 극심한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북경의 소장파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미 이런 중대 위기를 지적하면서 당국을 향해 일련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학자들이 있다. 그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호안강(胡鞍綱), 강효광(康曉光), 왕소광(王紹光) 등 중국과학원 국정분석연구팀이 편찬한 국정분석보고서이다. 북경당국이 제안한 최근의 각종 정책들을 살펴볼 때 胡, 康 등의 지적은 이미 고위층 지도자들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3월 중 북경에서 개최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중앙의 조절능력을 새롭게 강화하자는 것이 개혁의 주안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 즉 현재 중국 내의 지식인의 역할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는 뜻이다.

현대화 과정 중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지식인들은 항상 모순적이고 비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국가의 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개혁의 과정에서는 한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더욱 큰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식인들은 초조와 실망으로 현실에 부딪혀 보기보다는 철학적 범주에서 사색하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문제를 한두 개의 개념으로 몇 천 년 간 누적된 해결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근 백 년 간 출간된 지식인들의 저서들 가운데도 이런 사고방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긴 시일이 요구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철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혹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어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과 극단적이고 공허한 유토피아적 주장만을 일으킬 뿐이다.

근 백 년 동안 중국은 계속 이러한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흔들리며 사회적 진보 역시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중국 지식인들은 권력남용으로 말미암은 조세효과에 대하여 강력하게 개혁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가 나타나길 희망하고 있다.

왔다. 근대사에 나타난 고난과 방황을 염두에 둘 때 중국의 지식인들이 정치를 논하는 방식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구체적인 문제에는 마땅히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어떤 문제든지 선후관계의 인식이 요구된다. 가능한 한 조정이 가능하고 목표도달을 위한 관리가 가능하며 입법과 제도를 통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절차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은 결코 큰 문제에 대하여 소홀히 여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큰 문제 역시 포괄적 정책과 제도를 구상하고 설계함으로써 새로운 위치를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학자 호적(胡適)은, “主義를 논하기보다 問題를 논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황인우(黃仁宇)는 “숫자관리”를 말했고, 해야극(海耶克)은 “한 걸음 한 걸음의 과정”을 설명하였으니 모두 그러한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견해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의 전반부 10년 동안,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는 이미 도식적인 단순형 사고가 널리 만연되었다. 갑작스런 개방에 의해 열려진 그들의 시야

에 비친 중국과 외부세계와의 엄청난 차이는 그들로 하여금 초조한 마음을 갖게 하였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미비된 준비과정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정책 실행으로 들어간 등소평의 개혁·개방이 야기시킨 많은 문제점도 그 원인이 되었다. 이 당시의 지식인들 자신이 근대의 정치학, 경제학, 혹은 사회학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접촉과 이해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단순한 “문화론”, “시장론(市場論)”, “민주론”이 대량으로 출현하였다. 백가쟁명(百家爭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의미)의 출현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하여 사상의 혼란, 공물체 의식의 표류, 잃어버린 역사의식 등의 문제가 형성된 것이다.

이후에는 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 실제적으로 서구의 사상과 문제 해결방법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탄생하였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북경으로 돌아온 호안강(胡鞍鋼) 등이 바로 이러한 신세대 신지식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마땅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춘 지식인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논란이 되는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더욱 보편화될 것이며 중국의 현대화의 길에 가로놓인 풍파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호안강(胡鞍鋼) 등의 지식인들은 <체제 내의 개혁자>라는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의 과거 15년 간 진행되어온 개혁개방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성장을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 체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시스템 통합위기를 야기시켰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중앙의 조세권이 날이 갈수록 불명확해지기 때문

에 재정관세를 통해 개발해야 할 국가정책 실행은 당연히 날로 무력해질수 밖에 없다. 효과적인 규제와 결핍으로 인한 특권의 남용과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중앙정권의 합법성은 난국에 직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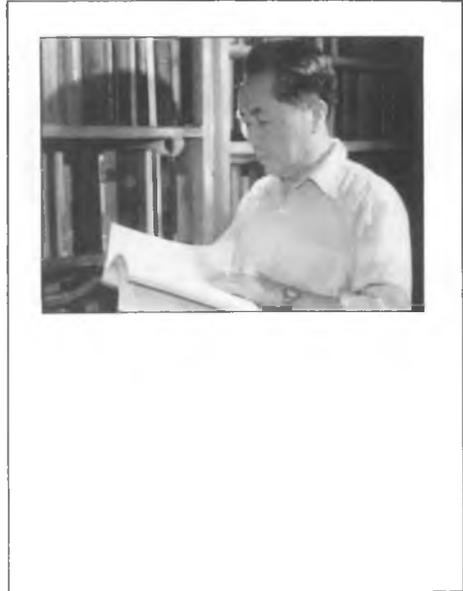
호안강 등 지식인들은, 중국이 계속 이런 상황에 버려진다면 장차 분열되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예견한다. 그들은 중앙정부가 넓은 시각으로 정국을 판단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배양할 것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개혁·개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중앙정부를 건설할 것을 희망한다. 또한 이러한 중앙정부는 반드시 청렴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 전역에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경제발전 과정에서 수수세력의 지나친 간섭으로 말미암아 이원화된 제도가 조성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에 있어 저하된 능력이 방임과 그에 따른 특권남용을 조장한 결과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원인의 제거를 위해, 그들은 모든 체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복귀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것은 바로 바른 조세정책으로 정부와 군을 유지하고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권력남용으로 말미암은 조세효과에 대하여 강력하게 개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강력한 정부가 나타나길 희망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보다 한 발 앞서,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등소평 사후시기의 정권체제를 건설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이후 와해된 권위가 가져올 더 큰 이탈과 혼란 및 분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호안강(胡鞍鋼) 등 지식인들이 제시한 이 보고서가 지나치게 이론적이어서 실제적인 면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



현대화 과정 중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지식인들은 항상 모순적이고 비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은 사실이다. 특히 권리양도 과정에서 이익을 가장 많이 취득한 연안지방과 특정 지역은 ‘강한 정부(強政府)’의 개념을 결코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 안목에서 호안강 등 지식인들의 이론은 아마 나름대로 주장할 만한 객관적 이유가 있었기에 그토록 광범위한 주목을 끌었을 것이다.

지금은 확실히 효과적인 시스템 통합을 진행할 시기이다. 오직 이러한 기초 위에서만 비로소 더욱 어려운 민주개혁을 실행할 수 있다. 호안강 등의 국정보고서가 우리에게 안도감과 희망을 가져다 준 이유는, 이전 지식인들의 정치참여에 있어 과장되고 실속없는 풍토를 벗어 버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으로 다가갔기 때문이다.

(『亞洲週刊』, 1994년 3월 20일』 중에서)

번역/ 차이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중국지식인들

陳詠祈

머리말

중국의 사농공상(士農工商) 사회는 종래 중국인의 관념 속에서 거의 지워질 수 없는 것이었다.

중국 역사상 士계층은 원조(元朝)때 그 사회적 지위가 낮아진 것 외에는 기타 朝代에서 모두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자고로 지식인들이 명예로운 지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청빈하고 안빈낙도하는 삶을 자처하였으며, 기타 다른 수단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거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지식인들은 수많은 고난과 사상적 투쟁을 경험한 후 전통 관념에서 탈피한 순수학술, 사상문화 연구 이론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전공을 실무적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처럼 학문을 버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현상을 국내에서는 ‘하해(下海)’라고 말한다. 이들의 경상(經商:장사하다)현상은 대중의 광범위한 관심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식인 스스로도 세태를 비웃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과 서양에서, 그리고 각 시기에 따라 ‘지식인’에 대한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여영시(余英時)의 해석은 매우 정확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는 지식인을 이

렇게 정의했다.

“우선 반드시 하나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 교사, 저널리스트, 변호사, 예술가, 기술자, 과학자 혹은 어떤 기타 직업의 정신노동자들을 의미한다.”

서양 학술허의 일반적인 개념에 따르면 지식인은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동시에 반드시 국가, 사회, 세계의 공공이해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이런 관심은 개인(개인이 소속된 소단체 포함)의 사적인 이익을 초월해야 한다.

중국 정부당국의 정의에 의하면 지식인은 『일정한 과학문화지식을 갖고 있고 정신노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이 생활의 전부 혹은 주요 내원이 되는 사람으로써, 교사, 편집인, 신문기자, 의사, 과학기술자, 문예가 등이 이에 속한다.』 교육 수준으로 말하자면 지식인은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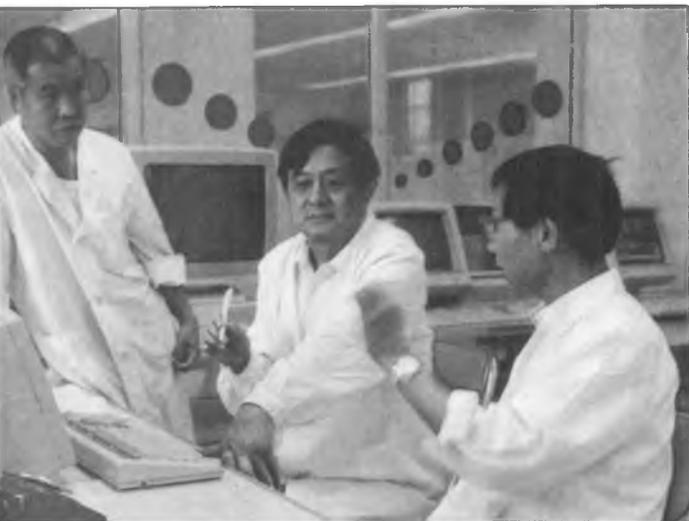
‘하해(下海)’란 말의 의미는 원래 이전의 희극계에서 비직업 연기자가 직업 연기자로 변신하는 것을 말했다. 그 후 사람들은 ‘下海’ 하면, 팔자 사나운 여자가 생활이 절박하게 되자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어울려 웃고 마시며 돈을 버는 것을 연상하였다. 그런데 지금 대륙에서 사용

시장경제활동에 뛰어드는 각지의 지식인들 숫자는 적지 않다. 1992년 6월 이래, 직장을 사임하고 경제활동에 뛰어든 지식인의 숫자는 수천을 헤아린다.

되는 '하해'란 말은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자기 본래의 직업을 포기하거나 혹은 남는 시간을 이용(특히 전자를 가리켜 말함)하여 시장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대륙 내에서 '하해 현상'(이하 '하해'라 한다)은 점점 성행하고 있다. 특히 14차 전인대(全人大)에서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된 이후 하해(下海) 붐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각 계층에 파급되어 가고 있다. 지식인들도 잇달아 '하해' 조류에 편승, 큰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하해 열기 속에서 지식인들이 시장경제활동 조류에 뛰어드는 상황과 그 원인,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중국에는 이공계의 지식인 뿐 아니라 사회과학계의 지식인들까지 생활전선에 뛰어 들고 있다.

지식인이 시장경제활동에 뛰어드는 상황 일찍이 80년대 중반, 지식인들의 장사열기가 대단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식인들의 장사열과는 비교도 안된다. 최근에는 理, 工, 醫, 農 학과의 지식인들뿐 아니라

사회과학계의 지식인들까지도 이 조류에 동참하고 있다. 중앙연구부문의 인사들, 예를 들어 북경의 사회과학계는 선두에서 솔선수범하여 시장경제활동에 뛰어들고 있으며, 기타 대학교수와 전문연구원, 정부기관의 고급 지식인에 이르기까지 이 대열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시장경제활동에 뛰어드는 각지의 지식인들 숫자는 적지 않다. 1992년 6월 이래, 직장을 사임하고 경제활동에 뛰어든 지식인의 숫자는 수천을 헤아린다. 국제적으로 이름난 북경의 한 대학의 통계에 따르면 이미 이 학교의 2백여 명의 교수가 사임하였으며, 사임 신청을 해 놓고 심사 비준을 기다리는 교수만 해도 백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천진(天津)에서도 92년 하반기에 이미 1500명의 교수, 고급기술자들이 수백 개의 경제 실체를 창설하였다. 월간 명보(明報) 93년 5월호에 실린 <文人下海>란 특별 기사에 따르면, 저명한 하해 문화인의 숫자가 이미 30명을 넘었고 일반 문화계의 하해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상품경제 조류의 파도 속에 처해 있으면서 이미 시장경제를 향하여 걷고 있거나 이를 계획하고 있다.

지식인이 시장경제활동에 뛰어드는 원인

지식인이 시장경제활동에 뛰어드는 현상에 대해 어떤 사람은 시장경제가 유발된 상황에서 그들이 현 상품경제의 유혹을 당해 내지 못하고 과감하게 장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비록 일리 있는 설명이긴 하지만 주원인은 될 수 없다. 지식인이 학문과 예술을 버리고 장사에 종사하는 원인을 단순히 하나만으로 볼 수 없다. 전자의 설명은 그 원인이 과

지금까지 추진된 개혁·개방정책 하에서도 지식인에 대한 대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거 지식인의 대우와 관련 있음을 긍정한다.

설령 중국정부가 <지식 존중, 인재 존중>을 줄곧 제창해 왔을지라도 오늘날 지식인들이 중국에서 멸시당하는 상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지금까지 추진된 개혁·개방정책 하에서도 지식인에 대한 대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북경(北京)을 포함한 흑룡강성(黑龍江省), 호남성(湖南省) 등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지식인들이 직장에서 혹은 생활하는 가운데 느끼는 불만은 대체적으로 다음의 5가지로 설명되어진다.

복지 상황의 열악 : 지식인의 복지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주택, 공공의료, 자녀 취업 등에서 비롯되는 난감함이 오랫동안 그들을 곤혹스럽게 하였다. 하얼빈 건축공학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현직 357명의 교수들 중에서 표준 거주규정 면적에 미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단지 7명뿐이라고 한다.

낮은 수입 : 중국 지식인의 수입은 지나치게 낮다. 학력과 근무기한, 공헌도와 비교해 볼 때 그들의 수입은 현저히 낮다. 현재 지식인의 창조가치와 이에 상응하는 대우가 서로 맞지 않는 형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93년 상반기 상해 지식인의 수입은 전체 계층 수입의 13위를 차지하며, 북경의 고등학교 교사 평균 수입은 일반 도시·읍 주민의 수준에 비해 4.78%나 낮다고 한다.

직업 직위 평가규정이 불완전 : 보편적으로 지식인에 있어 그들의 직무상의 칭호를 평정하는 규정은 매우 불완전하다. 특히 논자배배(論資排輩: 자격을 따지고 서열을 중시함)에 있어 기회가 불균등하다고 여기는 청년 지식인들이 대부분이다.

높은 발병율 : 지식인은 장시간 초과하여 일을 하며 여기에다 가정, 사회 환경 등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받아 건강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중년 지식인은 높은 발병율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수준 또한 비교적 낮고 의료비용이 부족하여 병이나도 병원에 못 가거나 즉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보편적이다.

지식인의 수명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교 이상 전문직업을 지닌 지식인의 약 70% 이상이 65세 이전에 사망하여 같은 연령의 노동자와 농민보다 매우 높은 사망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낮은 사회적 지위 : 중국 성립 이후 지식인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전체 사회에서 지식인을 존중하는 풍토는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전체 사회에 지식, 과학, 인재를 존중하는 풍토가 형성되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단지 9.6%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인으로써 사회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며 어떠한 전망도 볼 수 없는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지식인이란 계층에 대해 극도의 실망을 가져다주며 그들 자신의 계급에 대한 안정감을 갖지 못하게 한다

상황에 쫓겨 할 수 없이 한다
많은 하해 지식인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활의 급박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많은 국민학교, 중학교 교사들이 교편을 포기하고 시장경제활동 조류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은 급료가 너무 낮을 뿐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교사의 급료를 질질 끌며 주지 않기 때문이다. 심

**장사세계로
뛰어들어 돈을 벌며
생활을 개선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많은
지식인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해 기회가 오면
쉽사리 놓치지
않는다.**

지어 학교측에서는 교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기본급료 이외의 각종 정책상 보조금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한 보고에 의하면 호남성 어떤 현의 35개 읍 가운데 즉시 교사의 급료를 지불한 곳은 단지 3개 향(鄉), 읍(鎭)이며 전체 현 중에서 1992년 1월에서 3월까지 교사의 급료를 질질 끌며 주지 않은 액수가 무려 백여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호남성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기타 지역에서도 급료를 받지 못한 교사가 수두룩하다. 급료에만 의지해서는 자신도 먹고 살 수 없으며 다른 방도가 있다면 장사하는 것이 현단계에서 그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의 성공사례가 이들을 고무시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잇달아 상업계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몇몇 민주화 운동인사들도 역시 생존권에 직면한 절박한 상황 때문에 시장경제활동 조류에 뛰어들고 있다. 89년 민주화 운동의 학생 지도자 중 3분의 1이 시장경제 활동에 뛰어들어 장사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학생 지도자들은 출옥 후 학교로 다시 돌아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으려 했으나 모두 학교로부터 거절당했고, 학문 연구와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어 장사에 종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또다른 몇몇 민주화 인사의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로 생존해 나갈 방도가 없었다.

심리적 요인

비록 소수의 지식인의 급료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생활의 절박함에 부딪힌 이들은 어쩔 도리 없이 하해(下海)한다 할지라도 다수의 지식인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자는 의식주에 있어서 곤

란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지식인에게 있어 의식주보다는 상품경제의 충격과 점점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갑자기 부유해진 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간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자영업자(個體戶), 노동자들마저 지식인들보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手術刀不如剃頭刀, 原子彈不如茶葉蛋>: 의사의 수술용 칼이 이발사의 이발용 칼보다 못하고, 원자탄 만드는 과학자가 삶은 계란 파는 장사꾼보다도 못하다>라는 현상은 그들의 마음을 씩씩하게 한다. 장사세계로 뛰어들어 돈을 벌며 생활을 개선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많은 지식인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해 기회가 오면 쉽사리 놓치지 않는다.

자아실현

지식인은 과거 신중국에서 '취로구'(臭老九:아홉 번째로 냄새나는 놈,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 지식인에 대해 경멸하는 뜻으로 쓰인 말:편집자 주)라고 불리웠는데 현재 역시 그들의 지위가 하나도 나아진 것은 없다. 오히려 6·4 이후 지식인의 가치는 평가 절하되었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가치가 상반되는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자기가 배운 전공에서 특기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인에게 있어 자신의 전공에 의해 자기 자신의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없다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이다. 지식인에게는, 연구하는 학술영역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이 생계에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92년도 하반기 중국에서 실시한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지위와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중국 국민들은
지식인들의 하해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며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식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족 재건에 헌신하고 사상을 이끄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다른 계층의 인민보다 좀 더 나은 일을 해야 한다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버리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중국 국민들은 이것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며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식인의 하해에 대해서 칭찬과 비난이 엇갈리는 이유는 모두 이 전통적 관념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압력

오랜 역사와 전통을 더듬어 볼 때 지식인들은 결코 돈 때문에 고결한 기개를 굽실거리지 않았다. 그런 이들이 상업적 이윤만을 중시하는 상인들을 본받아 장사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과학연구 혹은 학술영역에서 그들이 여전히 청렴하고 고결하며 도덕성을 갖춘 소위 지식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기는 보다 쉬운 것이다.

그러나 이익을 중시하고 실체를 추구하는 상업적 세계에서, 특히 범률과 기율이 존재하지 않고 횡령의 풍토가 성행하는 중국 대륙에서 생존하려면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지식인들이 뒷거래를 하고 '관계(關係)'를 맺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을 쓰는 모습은 각양각색이다.

본래 사범대학에서 가르치던 한 교수는 작년에 사직하고 친구와 동업하여 회사를 차렸는데, 반 년 후에 사업을 그만두고 하는 말이, 뇌물로 뒷거래하면서 자신이 간직해 왔던 도덕적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 실로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자기 이외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같

은 몸부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의장에서 자신의 자율적 인격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웠다고 말한다.

천하에 자기에게 주어진 투철한 구국 의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은 비록 현재 장사세계에서 마구 굴러가고 있지만 자신들이 국가민족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워하면서 몸은 장사를 하고 있어도 마음은 문단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임기응변으로 할 수 없이 장사하고 있으며, 어떤이는 결코 하해(下海)때문에 이상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공언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장사세계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을 시험해 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시간에 스스로 혹은 사회로부터 받는 보이지 않는 압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식인 하해(下海)의 영향

지식인의 하해는 하나의 조류를 이루고 있다. 필자는 학술문화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러한 조류가 가져올 영향에 관해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지식인의 하해를 긍정적 의미로 분석하여 인재의 유통이므로 그 결과 경제가 발전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더욱 많은 사람들은 대규모의 지식인들이 장사에 휩쓸림으로 인한 학술문화의 타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들의 처지에 대해 동정을 보낸다 할지라도 과학기술인재가 다시 연구하지 않고, 교사가 가르치지 않으며, 작가가 글을 쓰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국가의 과학연구, 교육, 사상문화의 폐허 현상으로 인해 민족의 도태를 가져올까 두려운 것이다.

장기적인 문화손실의 결과는 아직 눈

지식인들에게 하해의 이유를 물으면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창작을 위한 전공기초를 닦기 위해서라는 등등의 명목적인 대답을 한다.



많은 지식인들이 자신의 학술 혹은 일을 통한 자아실현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다른 길을 찾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과 앞날의 전망이 불투명 한 것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지식인들이 자신의 학술 혹은 일을 통한 자아실현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다른 길을 찾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상품경제 대조류의 충격하에 놓인 지식인들은 장사세계 속에서 실력을 발휘하기를 갈망하며 그 가운데서 잃어버린 자아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기타

하해(下海) 지식인들에게 장사에 종사하는 이유를 들라고 하면 명목상으로는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창작을 위한 전공기초를 닦기 위해서라는 등 각양각색의 대답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이유는 많지 않다. 작가협회 상해분회위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상해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18명의 하해 전문작가 가운데 단지 한 명만이 다양한 생활을 체험하기 위한 이유로 하해하여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자기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상해 문예계에 유행되는 말 중에 “긋으로 장사하고 장사로 긋을 꾸리며 돈을 벌어 예술 경비의 부족을 보완한다.”라는 말이 있다. 상해의 저명한 작가, 예술가들이 하해하여 장사하는 것도 이러한 원인에서 기인한다.

상해 문학원 문예창작연구실 주임 장금강 교수와 태주시(泰州市) 신문사가 연합투자하여 설립한 상해 해태경무(海泰經貿)회사가 그 좋은 예이다. 그들은 이곳을 통해 문화기금회를 설립하여 저명작가의 창작출판을 돕고 있다. 최근 그들은 기금 10,000원(元)으로 노작가 합화(哈華) 선생이 생전에 출간하지 못한 장편소설을 출판하였다.

지식인 하해의 한계

사회적 압력

지식인들의 하해가 유발하는 논쟁이 기타 어떤 계급에서 일어난 논쟁보다 심한 이유는 이들이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국가의 장래를 근심해야 할 책임을 지닌

**현재 지식인들의
상황에 균형을
가져다 주려면
근본적으로
지식인에 대한 정책,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
적어도 지식인들로
하여금 진정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지만 교사들의 하해현상이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학 혹은 대학에 있는 교수들뿐 아니라 학생들마저 이에 질세라 잇달아 하해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중학교, 국민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하여 교육의 골간을 이루는 교사의 유실이 너무 많아 이미 심각한 손해를 가져오고 있다. 몇몇 학교의 경우 학급과 과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급히 임시교사를 초빙하는데 이것이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아 있는 젊은 교사들마저도 사임한 교사들이 벌어들이는 엄청난 수입으로 인하여 열등감에 빠지는 등 교육사기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결론

사회의 발전은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그 직무를 다하고 자기의 재능을 펼 때 가능하며, 특히 사회에서 지식인이 담당하는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한 사회와 국가가 건전하게 발전하느냐, 부강한 길로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지식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느냐 못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국가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배후의 이론적 기초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허기림(許紀霖)이 말한 것과 같다. 즉 상품경제가 건전한 심리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반드시 인류에 해악을 끼칠 것이다.

온 나라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시하고 학술문화를 경시한다면 국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민족의 질적 수준은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지식인에게 있어 사업을 하는 것이 반드시 돈을 가져다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예가 수도룩하며, 또 장사에서 성공한 지식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모두 던 버는 데 쏟아 붓는 것을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해한 지식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의 목적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가?

현재 지식인들의 상황에 균형을 가져다주려면 근본적으로 지식인에 대한 정책,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 적어도 지식인들로 하여금 진정 존중 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줄곧 지식인에 대해 모순된 대우를 해 왔다. 그들을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론 미워하였다. 늘 그들의 재주를 이용하는 동시에 그들이 정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모순심리에 빠져 왔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단속을 풀지 않았고, <지식존중, 인재존중>의 정책도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지식인의 하해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무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처음부터 지식인의 장사를 위한 우대정책을 제공한 것이 정부이므로, 정부가 지식인의 하해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6·4 이후의 출국 열기와 최근 지식인들의 하해 열기 모두 동일하게 중국에서의 지식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늘 원인이 되어 왔다. 지금까지도 이들에 대한 대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듯이 보인다. 지식인들은 도대체 어느 때 비로소 이 나라 본래의 위치에서 햇빛을 보게 될까? 우리는 끊임없이 묻게 된다.

(『中國與教會』 97期 중에서)

번역: 남궁양석(중국어문선교회 회원)

중국 진보적 지식인들의 방황

이우연

전통적으로 걱정적이던 중국 비판적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현실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소련의 붕괴와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자본을 향한 대중화'가 그들을 변화시켰다. 21세기 중국의 운명을 판가름할 비판적 지식인들의 최신동향을 알아본다.

베이징의 봄

베이징의 봄은 청년들과 지식인들의 것이었다. 1919년의 5·4 운동이 그렇고, 1926년의 3·18 반일애국운동이 그렇고, 1976년 4월 천안문 사건이 그렇고, 89년의 6·4 운동이 그러했다. 요란한 폭죽 소리에 겨울을 보내고 '봄의 마디'(춘절, 즉 설)를 넘어서면서 중국의 청년과 지식인들은 봄을 준비해 5월 1일 청년절을 전후하여 절정의 순간에 꽃봉오리를 터뜨린다. 그 개화는 때로는 민주를, 때로는 피를 가져왔다.

그러나 요 몇 년 사이 베이징의 봄은 무척 고요하다. 적어도 겉으로는 89년의 걱정이나 유혈의 상처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시 예전의 고요한 베이징의 모습을 회복한 듯하다. 천안문사태

이후 사상교육 강화를 위해 해 왔던 베이징대학과 푸단(復旦)대학 신입생들에 대한 1년간의 군사훈련이 한 달로 줄었고,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사상 기반을 제공한 인물들이 다수 포진해 있던 사회과학원이 천안문사태 이후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가 작년 9월에 모집을 재개했다.

이는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리라. 최근 중국 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학교나 학생들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자발적 결정이라는 면에서 그렇다. 이러한 징후는 더 있다. 6·4이후 진보적 지식인들의 뜨거운 토론장이 되었던 몇몇 잡지의 고정란들이 정부에 의해 강제 폐지당했다가 작년부터 차츰 회복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식인들의 발언권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 비판적 지식인들이 현실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 작년부터 늘어나고 있고, 발언의 수위 역시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걱정적이거나 급진적이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이성적이다. 이를 달리 보면 개량적이고 현실적으로, 심지어 보수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까? 세계

추세가 그렇듯이 중국 지식인들도 체제와 대중, 양쪽으로 교섭되어 가며 급속히 해체되고 있는 것일까.

소련 붕괴가 중국에 '건설적' 작용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일어난 세계와 중국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을 볼 필요가 있다. 천안문사태 이후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했고, 중국 국내에서는 상업주의 물결 속에서 자본주의화, 서구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소련과 사회주의권 몰락이 중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에 대해 공산당원이자 유명한 르포작가이면서, 중국 정부 비판 대열의 선봉에서 왔던 류빈엔(劉賓雁)은 작년에 영국 <뉴 레프트 리뷰>지와 가진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89년 학생운동 진압은 중국 공산당이 합법성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나 소련과 동구 공산주의 몰락이 중국 공산당을 도왔다. 소련에 혼란이 일고 국가가 분열되고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자 중국인들은 같은 일이 중국에서 일어날까 두려워했다. 중국인들은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다.”

류빈엔의 이 같은 지적이 타당한 것은 80년대 중국 지성을 대표했고, 현재도 중국 관방으로부터는 ‘부르조아 자유화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거나 ‘공산당의 영도를 와해시키려 기도했다’

비판을 받고 있는 철학자 리쩌허우(李澤厚) 역시 ‘소련이나 동구의 길을 가는 것은 위험천만하고 중국에 아주 불리하다’(「혁명이 아니라 개혁이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민주화운동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80년의 학살은, 민주화운동이

반정부운동에서 반체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의 하나였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는 천안문사태 당시보다 훨씬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작년 11월에 결성된 민주화 단체인 ‘평화현장’ 그룹 역시 마찬가지다.

인민대학 철학과 강사 자원강(賈文剛) 역시 이러한 추세의 원인을 소련 등의 해체에서 찾았다. 그는 중국 인민들이 소련 처럼 되었다가는 너나없이 모두 망하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쨌든 중국 공산당과 함께 경제건설과 민주개혁을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면에서 소련의 붕괴는 중국에 ‘건설적’으로 작용했다. 급진적인 서구식 민주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에게 소련의 지금 모습은 훌륭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그들의 노선을 바꾸게 만들었다.”

“우리 중국이 아시아 내 마리 작은 용보다 못산다”

푸단대학 중문과를 졸업하고, 현재 상하이에 있는 한 출판사에 근무하면서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천우광(陳武光)은 국제 상황의 변화보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중국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더 강조했다.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에는 거대한 상업물결이 밀려들었다. 이 속에서 중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작용을 했다는 것이다.

“얼마 전의 모택동 열기가 말해주듯이, 중국 인민들은 개방이 초래한 갖가지 부작용과 관리들의 부패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천안문사태 이후 당과 정부는 인민들에게 적어도 두 가지를 가져다주었다. 하나는 중국의 자존심 회복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수준의 두드러진 향상이다.”

개혁개방이 중국의 자존심을 회복시켰다는 말은 새겨들을 대목이다. 여기에는 묘한 마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만나는 중국 지식인들마다 극구 부인했지만, 이 말에서 중화 의식이 어떻게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도 있다. 덩소평은 92년 초에 선천(深圳), 주하이(珠海) 등 개방 특구를 방문해 이른바 ‘남순강화’를 발표하면서 매우 자극적인 비유로 경제개발과 개방의 당위성을 역설한 적이 있다. “우리 중국이 아시아 네마리 작은 용보다 못산다. 개방을 하고 문을 열자.”

중국인들을 사로잡은 것은 낭패감과 열등감, 초조감이었다. 서구는 차라리 제쳐 두고 대륙에서 쫓겨 간 국민당의 대만보다도 못살았던 것이다.

80년대 중국 지식인들이 느꼈던 열등감과 초조, 위기감을 6·4이후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철학자 꾸신(顧昕)은 50년대 모택동이 제출했던 ‘구적(球籍) 박탈에 대한 위기감’에 비유했다. 구적이란 쉽게 말하면 ‘지구의 호적’인 셈인데, 한 민족이 지구에 존재할 자격을 일컫는다. 원래 모택동은 “영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넘어서자”는 뜻의 초영초미(超英超美)라는 구호를 내놓고, 그가 설정한 경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 ‘구적’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면서 중국인들의 분발을 재촉했었다.

이와 비슷한 위기감이 80년대 지식인들을 사로잡았고, 이는 현실에 대한 급진적인 부정과, 앞서 있는 서구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초조감으로 나타났다. 80년대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 열등감과 초조, 위기를 천안문사태로 표현했다면, 덩소평과 개혁개방론자들은 이 열등감과 손상된 자존심을 활용하여 경제성장 위주의 개



80년대 중국 지식인들을 사로잡은 것은 낭패감과 열등감, 초조감이다

6·4 이후의 중국은 개혁 개방에 따른 경제발전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사진은 천안문 광장.



혁개방론을 밀고 나갔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 이것은 체제내 통합을 위해 더없이 좋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였다. 물론 지금도 대다수 지식인들은 경제나 민주주의 정도 등에서 낙후감에 젖어 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과 같은 초조감이나 위기감은 한풀 사그라졌고, 경제 비약이 중화민족의 상한 자존심을 많이 회복시켜주었다고 해야 옳다. 그리고 보면 “6·4 이후 중국 사회가 빠르게 ‘안정’을 찾은 것은 경제가 발전하고, 인민 생활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남순강화)라는 등소평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옳다.

중국 진보적 지식인들의 요즘 개혁론

중국 민주화운동 세력들이나 비판적 지식인들이 최근에 내놓는 중국 개혁방식들의 기조로 볼 때 이전보다 훨씬 점진적이고 개량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그들의 프로그램에서 나타난다. 다음은 중국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중국 학술계에서 진보적 인사인 한 사람으로 얘기되는 어떤 대학교수(51)와 나누는 얘기다.

- 현재 중국 민주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언론의 자유다.”

-현재 중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치민주화 없이 언론의 자유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우리가 말하는 언론의 자유를 서구의 언론 자유와 동등한 수준의 요구라고 보면 안된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너무 먼 과제다. 우리는 최소한 6·4 이전 수준만 큼이라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지식인들의 발언 창구였던 학술·문화 잡지도 6·4 이후 ‘깨끗이 청소’당한 뒤로 보수적 인물들이 모두 편집위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언론 자유가 대폭 후퇴한 것이다.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여전히 다소 비판적인 학자들은 원고 발표 지면을 찾지 못하고 있고, 조금 비판적인 소리를 할 경우 편집부에서 수정을 해 버리기 일쑤다. 우리가 정치개혁과 분리된 채 언론 자유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개혁은 우리의 궁극적 바람이다.”

- 지금 수준에서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내놓고 있는 정치개혁 방안은 어떤 것들인가?

“지금 중국에는 정부와 당을 견제, 비판할 장치가 없다. 때문에 우선 다당제와 언론의 자유가 절박하다. 다당제가 어려울 경우 현재 유명무실한 인민대표대회나 정치협상회의의 권한을 강화, 당과 행정부에 대한 비판·감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것은 중공당을 중심에 두고서 사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당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개혁을 해 나가자는 것이다.”

- 작년 8월 스위스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리쩌허우는 중국 개혁의 방향으로 시민사회론과 공산당내의 다른 목소리 허용, 인민대회와 정치협상회의, 민주당

파의 개혁을 애기한 바 있다. 혁명이 아니라 부단히 개량하지는 것이 그의 요지였다. 이에 대해 해외에 있는 몇몇 급진적 반정부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감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말한 개혁방안과 리쩌허우의 구도가 거의 흡사한데……

“개인적으로 보자면 현재 이 방법 외에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본다. 물론 시민사회론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 자칫 인민들이 경제관점에서만, 자기 이익 차원에서만, 현실에 대해 발언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리쩌허우의 논의에 동의하지 않지만, 나머지 것들은 동의한다. 나는 이런 요구와 바람이 결코 높은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

인민대회와 정치협상회의의 개혁을 통해 당정에 대한 비판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현재 중국 지식인들이 가장 많이 합의를 보고 있는 정치개혁 프로그램이다.

인민대학 국제정치학과의 가오팡(高放) 교수는 작년 홍콩 『중국시보(中國時報)』와의 회견에서 인민대표와 정치협상회의를 서구의 양원제로 개혁하자는 방안을 제출해 한동안 화제가 됐다. 그의 주장은 인민대회 권한을 강화하고, 현재 일종의 통일전선 조직으로 유명무실한 정치협상회의를 정부 기구에 포함시켜 인민대회와 함께 상하 양원을 구성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중국 정부도 인민대표의 기능 강화에는 의견을 같이한 모양이다. 2월에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광둥성에서 인민대표에 행정부에 대한 감독, 조사, 평가, 자료요구 등의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그 한 예다.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만

큰 중국 정부와 중국 지식인들의 요구가 점점 접근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지식인들의 자본을 향한 대중화

중국 진보적 지식인들의 현실 변혁관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량적으로 만든 데에는 중국 사회의 빠른 자본주의화, 상업물결의 영향, 그리고 8억~9억이 농민이라는 중국의 현실적인 조건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다음은 베이징대와 베이징사범대 강사급 청년학자 두 명과 나눈 얘기의 골자다. 경제학과 비교문학 전공자들이다.

- 중국 민주화의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농민이 너무 많다는 점, 중국 민중들의 우매와 노예성이다. 한국 민중은 노예성이 없는가? 8억의 중국 농민들 중 대다수는 누가 총리가 되든 전혀 상관없다는 태도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아직도 봉건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민주를 바랄 수가 없다.”

- 그렇지만, 혁명이든 민주화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원론은 그렇다. 하지만 중국 기층민중의 정치의식이나 문화의식은 너무 낮다. 지식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지식인에 의한 민중 계몽이라는 근대적 기획이 아직 유효한 것이다.”

- 지금 중국 지식인들이 이를 담당할 만큼 깨어 있다고 보는가? 외국인의 눈으로 보자면 회의적이다. 중국 현실에 대해 6.4에 대해 깊이 고통을 느끼는 지식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다. 더구나 포스트모더니즘 바람과 젊은이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말해 주듯이 상품경제가 확대되면서 지식인들 역시 비판력을 잃어 가고 있지 않은가?

“중국 지식인의 전통이란 천하를 자기 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신이 약해져 가고 있다. 문학이나 예술의 상업화, 통속화가 이를 대변한다. 순수문학 작가들이 대대적으로 상업문학으로 변신하고 있고, 심지어 작품을 경매하기도 하고, 유명 작가가 출판사와 종신 계약을 맺고 그들 구미에 맞는 통속 작품을 써내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인문정신의 위기다. 혁명기 대중화와는 거의 반대 방향에서 자본을 향한 대중화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은 지금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에게는 봉건적인 것에 대항하며 근대적 형식을 확립시켜야 하는 노력과 갖가지 ‘포스트’ 현상에 대한 투쟁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실천할 주체다. 그들의 고통은 이 주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의 중심체였던 대학생들은 지금 큰 것, 이상적인 것, 추상적인 것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의 대학생들과 대화 도중 가장 사람을 난감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저런 질문에 자기는 실용주의자여서 그런 건 모른다는 대답을 들을 때이다. 현재 중국 대학의 골칫거리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돈벌이하러 다니며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것, 중국 대학생들 유행어를 빌리면 ‘도과’(逃課)다. ‘돈을 벌 것인가, 공부를 할 것인가’ 이는 작년 10월과 11월에 유명 대학 학보에 거의 동시에 실린 대학생들의 토론주제였다.

중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민주화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해왔던 지식인과 대학생들이 상업물결에 휩쓸려가면서 중국 민주화운동을 추진할 구심체가 해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봉건과 현대 포스트모더니 뒤섞인 현실

더구나 지금 중국 지식인들은 중국 현실의 복잡함으로 인해 현실을 해석하는 데 일종의 난관에 부딪혀 있다. 현대 중국은 봉건과 현대, 후현대가 뒤섞여 있는 형세이고, 일부 국면에서는 봉건에서 ‘포스트’로 바로 넘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데카르트와 헤겔, 마르크스, 하버마스가 니체와 푸코, 들리크, 료타르와 뒤섞여 얽히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중 어느 것도 지금의 중국 현실을 해석해 줄 명료한 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문학자 쉬밍(許明)은 중국 진보적 지식인들의 이런 막막함을 얘기한다.

“우리는 중국의 사회 현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이에 상응한 이론 정신으로 설명을 해 내야 한다. 그러나 아주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사회 자체에 관심을 기울일 때 지금의 이상한 사회 상태가 모든 이론을 빛 바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경전적의 사회

중국 지식인들은 중국 현실의 복잡함으로 인해 현실을 해석하는 데 일종의 난관에 부딪혀 있다.



주의 이론이나 스탈린주의 이론들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결코 경전 의미의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오늘날 중국의 시장경제 역시 꼭 자본주의 경제만은 아니다. 후 공업사회 이론 역시 지금 사회의 내재성질을 설명할 길이 없다. 지금 중국은 이론 형태로 볼 때 상당히 특수한 혼합형 과도시기다.”(<문학평론> 93.4)

중국 지식인들의 이런 지적 방향 속에서 작년부터 부쩍 활기를 띠는 ‘제3세계 문화론’ 주창자들과 중국의 모더니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도하는 그룹들은 현실해명을 위한 나름의 이론들을 들고 길 찾기에 성공한 경우라 할 것이다. 중국 현대 지식인들의 ‘제5세대’에 해당할 이들의 특징은, 거의 55년 생부터 65년 생 사이이고, 문혁이 끝난 뒤 대학을 나온, 말하자면 개혁개방 1세대들이며, 대학 시절 당시 분위기에 따라 서구의 갖가지 이론들에 왕성한 식욕을 보였고, 90년대에 들어 이들 서구 이론을 소화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우선 90년대 중국 사회의 빠른 자본주의화, 서구화와 이 결과로 중국이 ‘전지구의 일체화’라는 세계 조류에 휩쓸려가는 현상에 주목한다. 소련과 동구가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에 편입된 이후, 중국 역시 제1세계 중심의 세계질서에 편입되어 가는 위험한 징후를 잡고 이런 현실을 거스르며 중국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들의 주요 관심사다. ‘제3세계 문화론자’ 중의 한 사람인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천샤오밍(陳曉明)은 “중국 문화가 이미 서구 식민지 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개탄한다.

같은 그룹인 베이징대의 장이무(張頤武)는 “포스트모던이나 후기 구조주의와 같은 서구의 용어를 쓰지 않고서는 우리

를 표현할 목소리가 없느냐”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제3세계 문화론은 서구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서 제3세계가 자기 목소리를 찾고, 서구와 제3세계가 주인과 노예식의 관계를 벗어나 평등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설명한다.

사회과학원의 왕후이(汪暉) 등 중국 모더니티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하는 그룹은 기본적으로는 이들과 시각을 같이하면서도, 주로 중국의 근대성을 어떻게 기획하여 봉건과 포스트모던에 대항할까를 고민한다.

이렇게 보면, 이들과 80년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는 현실인식과 현실변혁 구도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0년대 지식인들을 사로잡았던 것은 전통과 중국을 한쪽으로 하고 현대와 서구를 한쪽으로 한 대립적 양분법이었다. 전통과 중국은 낙후의 상징이었고, 현대와 서구는 진보의 상징이었다. 쉬밍의 지적대로 “중국이 현대로 가려면 반전통이 필요하고, 현대로 가는 것은 전통적 중국에 대한 배반이다.”라는 논리 속에서 현대화란 바로 서구화라고 여겼고 이 대척점에 있는 중국의 전통은 폐기처분의 대상이었다. 쉬밍은 이를 ‘후홍위병’ 현상이라고 부른다.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의 격렬한 반전통의 80년대 판이었다는 것.

격렬한 반(反)전통에서 서체중용(西體中用)으로

그러나 이제 이 양분법의 해체가 일어나면서 전통과 서구에 대한 재질문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청년 학자들이 국학 연구를 중시하며 전통의 창조적 전화를 외치는 것도, 리쩌허우가 다음과 같이 중국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시하



진보적 지식인들의 사고에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은 자본이라는 시각을 통해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사진은 중국의 대학생들.

는 것도 이 맥락에서다.

“문화 사상 면에서 볼 때 꼭 서구 개인주의일 필요는 없다. 중국의 인간관계 중시와 인정 추구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으며, 꼭 경쟁이윤·법정재판을 통한 해결 등 오늘날 자본주의의 기본 법칙을 절대 유일의 가치로 여길 필요는 없다. 중국의 전통과 현대사회의 경험에 대한 반성을 통해 현대화된 형식, 즉 서체중용(西體中用)을 실현해야 한다.”

제3세계론자들을 포함하여 현재 중국 진보적 지식인들 사고에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은 자본이라는 시각을 통해 현실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중국에 이미 출현했거나 현재 싹을 보이고 있는 자본가들에 의한 노동자, 농민 착취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인민들 사이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내부 모순, 관료와 자본가의 결합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은 커녕 문제 제기조차도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중국은 사회주의이고 중국에 자본주의식의 착취는 없으며, 개인으로서의 자본가는 있어도 계급으로서의 자본가는 없다는, 등소평이 그의 문집 3권에서 누누이 강조한 이데올로기에 자신도 모르게 포로가 된 때문일까.

이러한 지적에 어느 중국 교수는 “지금 은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매력을 잃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관료와 자본가 사이에, 자본가와 인민대중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것이고, 그 때가 되면 마르크시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져 이를 토대로 현실에 대한 대응능력이 생길 것이다”라는 희망을 나타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이 말이 딱 낭만적으로 들린다.

이우연/월간 「말」 잡지사의 중국통신원

*편집자 주: 위 글은 ‘월간 말’(1994년 4월호)에 실렸던 것으로 월간 말의 승인을 얻고 실었다.

중국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석은혜

최 근 몇년 간 중국 지식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인 대학생들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중국의 지식인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사실상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공산당의 문화배경하에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중국 지식인들의 특성과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 지식인들의 특성

고도의 이성화

중국 지식인들의 특성 중 하나는 '고도의 이성화'이다. '고도의 이성화'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먼저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1949년 이후 중국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공산당과 모택동을 숭배하면서 이제야말로 천하가 태평해지고, 편안히 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순박하여 모두들 공산당과 모택동을 진정으로 신뢰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반우파 숙청, 반혁명이 시작되어 단번에 몇백만 명을 죽이면서, 점차 공산당에 대한 좋은 인상이 파멸되어 버렸다.

그 후 다시 문화혁명을 거치고 다시 4인방, 화국봉, 호요방, 조자양, 6·4 학살사

건 등이 반복되는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어떤 것도 진실이라고 믿지 않게 만들었다. 결국 그들 사이에서 "참된 표준은 없다."는 말이 생겨났다.

평범한 농민, 노동자들조차도 무엇이 진리이며 정의인지 믿지 않게 되었으며, 공산당이 하는 그런 투의 말은 신뢰를 잃어버렸다. 공산당에 대한 신임과 믿음의 상실은 최후에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곧 일체의 진리, 영원한 정의, 절대적 선(善)이라는 데 대한 개념을 일절 불신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전세계는 오로지 하나의 진리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이며, 세계 어디서나 표준이 되는 진리이다."라고 교육받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르크스주의는 무너져 버렸고, 지금 젊은이들은 서양의 민주, 자유, 인권 같은 개념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조차도 절대적 진리로 여기고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그것들을 쓸모 있는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에게 절대적 선, 정의 같은 것들은 모두 소멸되어 버렸고, 현재의 실용주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진실이란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유용한 것이고, 유용한 것은 좋다."라는 식이다.

그들은 어떤 신앙이 옳으나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신앙을 부정하고 참 표준은 이 세상에 없다고 판단해 버린다.

중국의 지식인들이 일체를 「의심」 한다고 할 때, 사실 의심이라는 것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이 의심한 후에는 다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허무주의·부정주의로 치달아 절대적 진리와 영원이라는 것이 있음을 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의심」은 그 자체가 진리와 영원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당신이 중국의 지식인과 접촉한다면 이것을 아주 명확한 특징 중의 하나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말에 반대할 것이고, 당신이 말하는 어떠한 것에도 부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즉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반격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이다.

중국 지식인들은 아무 것도 믿지 않으려 할 것이며, 어떤 것도 듣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들은 맹종했기에 애를 먹게 되었고 지금은 맹종치 않음으로 해서 어떤 것도 믿지 않고, 어떤 것도 듣지 않게

된 것이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신앙을 상실한 세대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떤 신앙이 옳으나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신앙을 부정하고 참 표준은 이 세상에 없다고 판단해 버린다.

그들이 당초 모택동을 믿었을 때 얼마나 열광적이었는지, 모택동이 천안문에서 만났던 대학생 수는 백만 명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후에 그들은 속았다는 것을 알았고, 공산주의에 대해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 진실한 마음이 속임을 당한 이후로 다시는 그러한 진실을 다시 불태우기 어려워졌다. 이것이 또한 그들로 하여금 신앙에 대해 경계와 적의의 심리를 품게 한 동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실토한다.

이것을 바로 그들의 ‘고도의 이성화’의 특징이라고 본다. 즉 오로지 자기의 이성만 믿지 다른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중국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에 대해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중국에서 그들은 공산당에게 속았고, 이런 진리, 저런 신앙 등에도 속았기에 오로지 자신만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누구도 신임하지 않고 개인분부만을 믿는 일종의 비상식적인 심리를 갖게 되었다.

고도의 개인적 분투
두번째 특징은 '고도의 개인적 분투'로, 자아중심적인 가치관이다. 그들은 어떤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자기의 노력만을 믿으려 하고 심지어 가정까지도 두 번째로 놓는다.

한 중국인 부인이 그의 남편과 2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남편이 유학하고 있는 미국 프린스턴으로 갔다. 남편은 미국에서 믿게되었는데 그녀는 크리스천이 되어 있는 남편을 향해 의지력이 박약하고 해외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못난이라고 나무랐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자아투쟁정신이 강하지 못하고, 개인 의지가 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에 와서 자기만을 의지하며 어떤 것도 믿지 않았고, 신은 단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여겼다. 그녀가 이 세상을 맞서 나갈 충분한 의지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자신의 분투를 믿고 있다.

중국에서 그들은 공산당에게 속았고, 이런 진리, 저런 신앙 등에도 속았기에 오로지 자신만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누구도 신임하지 않고 개인 분부만을 믿는 일종의 비상식적인 심리를 갖게 되었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순박함이 없고, 개인중심적인 생각과 자아성공적인 심리상태는 대단히 강렬하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얘기한다면, 그들의 첫 반응은 아마도 당신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중국 지식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공기가 자신을 도와주는 것같이 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젊은 세대는 이성으

로써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부정하여 결국에는 철저하게 그들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돌아가고 있다. 공산당의 통제하에서 인간의 개인성, 자율성이 완전히 억압되어 있었고, 40여 년만에 해방을 맞았다. 억압에서 풀려난 개인성, 자율성이 본래는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번에 팽창되어 버렸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중국 지식인에게 전도하게 될 때, 심리적으로 두 가지 장애를 만날 것이다. 하나는 당신이 그와 아직 얘기하기도 전에 그가 먼저 당신을 의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그와 얘기한 후, 이것이 그들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중국 지식인의 정신적 공허감

중국 지식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 비록 두 가지 이상 두 가지 곤란한 점을 갖고 있지만, 중국 지식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전혀 좋을 게 없다는 뜻이 아니다.

미국에 유학 온 중국 유학생은 홍콩, 대만에서 유학 온 학생보다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다. 대만 유학생들은 아예 교회에 가지 않고 주말에는 드라이브를 하면서 생활을 즐기지만, 중국 유학생은 비교적 쉽게 교회를 나간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중국 지식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커다란 공허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이성적인 머리로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믿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은 너무나 연약하고, 황폐하며, 아무 것도 없는 공백뿐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지식인들의 마음은 공허하다.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 있으며 목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 지식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변론보다는 사랑으로

중국 지식인에게 전도할 때, 그들은 당신과 말다툼을 벌이고자 할 것이다. 그들은 온통 가시를 갖고 언제, 어디에서나 당신과 변론할 텐데, 이때 속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다투지 말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털어놓아라. 그들의 무장된 마음 뒤편에는 공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듯이, 당신도 그들을 보고 역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금 그들은 온통 돈을 벌려는 데에 열기를 쏟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보면 그들이 매우 당당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돈을 척척 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선적 행동에 미혹되지 말라. 예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 불쌍하며, 목자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중국 유

학생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것은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친절하고 세심하게 보살피 주고 도와주는 것이다. 그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으며,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성이 굴복한 후에는 자신이 한계가 있으며 죄인인 것을 시인한다.

그러므로 중국 지식인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도 호소를 해야하며 그들의 머리(이성)에도 말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당신이 그들의 가슴에 호소하여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기독교 문화 이해가 우선되어야

중국 지식인을 위한 사역은 농촌 가정교회와는 다르다. 지식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기독교 잡지, 서적, 학술적인 교류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기독교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중국 지식인들에게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국 지식인들의 머릿속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이 읽는 책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사고관 투성이며, 기독교에 대해 왜곡된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는 먼저 그들의 잘못된 사고를 문서를 통해 바로 잡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미국 빌리 그레함 목사가 큰 대중집회에서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중국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중국인들의 머리로는 설교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중국 사람은 성경의 문화적 기초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적인 예비작업을 우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 지식인에 대한 선교는 반드시 이 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은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하여 먼저 접근해 나가면, 그들이 길을 찾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그들 스스로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 있는 중국 지식인에게

현재 가장 직접적으로 가능한 중국 지식인 선교는 해외에 있는 중국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장래 그들은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들의 가족, 친구, 학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과학자와 문필가, 예술가 그리고 교수를 포함한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중국의 해외 유학생 대다수가 물리학, 생물학, 보건학, 혹은 컴퓨터, 수학, 그리고 공학을 공부한다(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북미의 중국인 학자 중 84%가 과학이나 공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1979년 이래로 4만 4천명의 중국인 학자와 학생들이 76개국에서 공부하고 있다(우리 나라에도 적은 수지만 중국인 교수와 유학생이 있다). 또 16,000명 이상의 중국인 학자들과 학생들이 그들의 학업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왔다.

해외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들의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여유를 가지므로써 그들을 존중할 수 있다. 중국 학생들과 사귄 때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유익하다.

*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을 삼가하라. 중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을 야기시킬만한 정치적인 토론을 삼가해야 한다.

* 중국인들의 관습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말라. 가능한 한 중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라.

* 그들의 “체면 문화”를 이해하라. 그들은 자신들의 체면 뿐만 아니라 당신의 체면 역시 세워 주려고 할 것이다. 그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 공손을 진짜 관심으로 오해하지 말라. 비록 그들이 미소를 띠면서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지라도, 그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과의 우정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다.

* 사랑이란 명목하에 당신의 친구를 아이처럼 대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라. 그들을 동년배로 대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킬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

해외 지식인 선교를 위한 실제적인 몇 가지 제안

* 중국인 학자들과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여태껏 받아 왔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들을 교정하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기독교인의 참 모습을 심어 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들을 친구로 사귀라.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 주라.

* 중국학자와 학생들이 도착하자마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들을 만나라.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진실하게 관심을 가져 줄 친구가 필요하다.

*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하는 데 보내고 자 하는 그들의 바람을 존중해 주라. 그들에게 너무 많은 사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 종종 그들과 같이 좋은 영화나 음악회에 가서 즐길 수 있다. 크리스마스 메시아 공연 등을 통해 기독교를 전할 수 있다. 그들을 기독교 활동에 초대하길 원한다면 그들에게 사건의 본질을 속이지 말고 그 사실을 솔직하게 알리라. 만일 그들이 애매한 초대에 속아넘어갔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사궤에 큰 방해가 될 것이다.

* 중국어를 배워라. 중국어를 배워서 그들의 언어로 대화를 나눈다면 진정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들이 공부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돕거나, 컴퓨터 혹은 영어 등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과 친해질 수 있다.

* 먼저 좋은 관계를 형성한 후에 그들 말로 쓰여진 성경책을 선물하라. 그들은

또한 과학과 기독교에 대해 다룬 책들에 대해서도 흥미를 보일 수 있다.

진실한 우정은 벽을 허물고 가교를 만들어 준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중국의 뛰어난 학자나 학생들과 우정을 나누고 발전시키는 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봄직하다. 중국 지식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눠줌으로써 우리는 실제적으로 세계속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간접적인 기회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 중에 5%~10%는 이미 주님을 믿고 있는데, 그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지식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中國與福音』, 中國福音會通訊, 39期
『중국을 알자 3』, 한국 OMF

석은혜/중국어문선교회 간사



“중국을 주계로”에 실을 광고를 모집합니다.

중국을 주계로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내외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올바르게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지입니다.

본지는 1994년 2월, 공보처에 잡지등록을 함과 동시에 유가지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지에 게재할 광고를 모집합니다. 이는 정보시대에 발 맞추어 다양한 정보들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본선교회의 문서사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고 마감일은 매 출수달 20일 입니다.

“중국을 주계로”에 광고를 싣기 원하시는 단체, 기업은 중국어문선교회로 전화해주시시오 (TEL : 594-8038, 533-5497, FAX : 599-2786).

접수 담당 : 최동신 간사 광고 담당 : 김정하 협력간사

서방에서 맺어지는 생명의 열매

- 재미 중국유학생의 선교 상황

艾思

전통적으로 기독교에 호의를 갖는 사람이 드물다

과거 2, 3년 동안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동방국가'에서 복음은 놀랄 만큼 빠르게 확산되었다. 점점 많은 숫자의 중국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였던 것이다. 비록 외적인 조건들은 여전히 열악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놀랄 만큼 증가하였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지하에서, 생기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을 계속해 나갔던 것이다.

중국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농촌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어떤 것일까? 특히 지식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중국의 중등 이상 교육기관은 대부분 도시에 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국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 될 것인가?

전통적으로 중국 지식인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을 품어 왔다.

제일 처음으로 근대 과학문명을 중국에 들여온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이었고 대부분의 대학이 크리스천들에 의해 창설되었다. 크리스천들이 술선수범하여 부녀자들을 전족(纏足)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켰으며, 삼민주의가 기독교 사상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

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1920년대 초에 중국 지식인들에 의한 <반기독교운동>이 일어났고 기독교는 초도화 직전에 놓이게 되었다. 중국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조상들이 물려준 사서오경(四書五經)이 존재하는 중화의 땅에서, 한낱 '오랑캐'에 불과한 것들이 우리더러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단 말인가? 최후에 어떤 지식인들이 서방문명으로부터 마르크스주의를 들여오면서부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부 당국은 철저하게 기독교를 부인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79년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래로 청년 지식인들 사이에 회자된 유행어는 '과학과 민주'였는데 여기에 더 첨가된 것이 '이화(異化)와 제충(制衝)'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왜 이화해야 하는지, 제충의 근본이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학식과 교양이 있고 예절이 밝기로 유명한 중국 지식인들이 무슨 이유로 유달리 기독교에 대해서만 그렇게 깊은 반목과 편견을 갖는 것일까?

그들의 마음이 왜 그리 굳게 닫혀 있는가?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홀로하다 여기는 이들 지식인들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인가?

과거 15년 동안, 몰밀듯이 중국을 빠져

나와 서방으로 달려들어난 대륙의 많은 학생들이 있다. 미국에만 해도 무려 5만여 명에 달하는 유학생들이 모여 있다.

지금 서방에서 중국의 지식인들을 향한 복음전파의 1막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첫 단계는 80년부터 89년까지, 두 번째 단계는 89년부터 현재까지로 설명할 수 있다. <6·4> 천안문 사건은 이 두 단계를 가르는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다.

'89 학생운동의 대략적인 상황

1989년 이전의 대륙유학생 선교에 있어서의 특징은 '신중'(謹慎)이라는 두 자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가 중국학생들 자체의 신중함이다. 오랜 기간 동안 '비기독교교육', 심지어는 '반기독교교육'을 받고 자라 온 상태에서 금방 중국을 떠난 유학생들이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갖고 꺼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이들은 크리스천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곤 한다.

“규모가 큰 교회는 누가 원조해 주어서 세운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CIA(미 중앙정보부)의 창조금을 받는 것입니까? 목사의 수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들은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애의 정신을 함께 나눌 때 이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세상에는 이유없는 미움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유 없는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배후에는 반드시 숨겨진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1단계 투쟁의 현(絃)은 여전히 긴장된 상태이다. 대륙 유학생들을 그리스도인

의 모임에 초청할 때는 반드시 개개인을 초청해야만 한다. 만약 두세 명의 대륙학생들이 함께 성경공부 모임에 앉아 있다면, 그들 중 어떤 한 사람이 이 사실을 고발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임의 사회자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이런 때에 사람들은 유학생들 가운데 정부에서 풀어 놓은 많은 수의 스파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미국에서 생각없이 말한 한 마디가 10년 후에 비난받을 증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마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도 공개적으로 세례 받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나중에 귀국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정치, 학문적 야망, 그리고 나의 가정의 앞날이 한 순간에 파괴되게 할 수는 없다.”

미국의 기독교학생단체인 Inter Varsity에서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재미 중국유학생을 초청하여 수련회를 가졌을 때 일어난 일이다. 모임이 끝날 무렵 어떤 학생이 말하기를 모두 이름을 써서 남겨 두고 복사하여 한 사람씩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였다. 처음에는 모두들 좋은 생각이라고 찬성하면서 각자 자기 이름을 썼다. 그 때 갑자기 한 학생이 말했다.

“만약 이 명단이 대사관 수중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동시에 긴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모든 사람의 동의 아래 이 명단을 찢어 버리기로 했다.

이들 '중국으로부터 온 손님'들에 대한 복미 화인교회(華人教會)의 태도 또한 매우 조심스럽다. 같은 문화, 같은 핏줄인 동포인 이유만으로 교회가 이들에게 성대한 초대를 베풀었을 때 정중하게 사양하기만 하는 대륙인들…….

서방교회들은 중국 유학생들을 식사에 초대하거나 함께 영어공부를 함으로써 그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배후에는 이제까지 이들의 교류가 얕아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함을 말해 준다. 홍콩, 대만 및 세계 각지로부터 이민 온 중국인들로 구성된 미국 화인교회의 지체들은 대륙인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알지 못한다. 대만에서 온 크리스천 유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이전에 모두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만나면 곧 <통전(統戰)>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느낀다. 서로 복음을 나누다가도 가끔 무의식적으로 무신론 정권을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신중함'의 필요성을 깨닫곤 한다.

이에 비해 서방교회들은 오히려 개방적이다. 식사에 초대하거나 함께 영어공부를 함으로써 항상 대륙인들을 만날 기회를 갖는다. 서양인들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대륙의 학생들은 이 때문에 서양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을 더욱 기쁘게 여긴다. 이와 동시에 서양의 교회들은 대륙인들과 기타 다른 중국인들과의 냉랭한 관계를 해빙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로 기묘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89년 이전에도 가끔, 예수를 믿는 대륙 유학생들과 가족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하지만 대부분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89민주화 운동 이후의 상황

1989년 북경에서 발생한 <6.4>민주화 운동은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를 뒤흔든 엄청난 진동이었다. 전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정치운동인 동시에 이 사건은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함포하고 있다. 그 증거는 바로 복음에 대한 유학생들의 태도의 변화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동시에 '89 민주화 운동은 화인교회들을 뒤흔든 실마리가 되었다.

이전에 화인교회의 중국인 크리스천들은 대륙인사들과 교류하는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결끄러운 정치시비에 휘말려 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89년 민주화 운동의 유혈사태는 교회에 거둬나가는 역사를 가져다주었다. 이들의 의식이 대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바뀐 것이다. 자신들이 미국, 캐나다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아울러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깨에 복음의 부담을 지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왕영신(王永信) 목사, 장자화(張子華) 목사 등을 중심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조직하여,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문앞으로 몰려가 중공정부의 천안문 학살을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89년 7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거행된 제1차 세계 기독교지도자회의에 참

석한 전 화인기독인들은 6월의 학살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 대회의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중국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 기독인들은 민주인사, 유학생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고, 앞으로 중국이 나아갈 바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외 기독인들과 유학생간의 거리가 보다 가까워졌고, 토론의 결과에 상관없이 쌍방간에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일치함을 발견하였다.

첫째는 모든 중국인들이 중국의 앞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참된 진리를 갈급하게 찾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6·4>운동 후에 많은 교회들은 전문적으로 대륙인 선교를 감당할 사역자들을 파송하였다. 저명한 화인 역사학자인 임자신(林慈信) 박사는 원래의 직업을 포기하고 「중국의 전망(中華展望)」이라는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는 전미 각 지역으로 동분서주 뛰어나다니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대륙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캠퍼스 복음화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협회 내에도 대륙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인재들이 있다. 해외화교선교회(海外華僑佈道會)는 미국 동부의 10여 개 대학 캠퍼스로 전입사역자들을 파송하여 대륙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뉴욕에서 설립된 <주우중화(主佑中華)>는 기독교와 중국의 미래와의 관계를 연구, 토론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책임자인 사도 거훈(鉅勛) 박사는 천 명이상의 재미 유학생들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망명인사들을 계속적으로 자기 집에 초청하고 있는데 그의 매월 휴가비는 1천 달러도 되지 않는다.

미국서부지역에 건립된 <현의사(顯義社)>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단체로써, 조직적으로 각종 활동을 벌여 많은 대륙 유학생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6·4 운동 이후 매년 9월마다 한 차례씩 수련회(退修會)가 열리는데 작년에 열린 이 행사에는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하였고 그 중의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경건한 크리스천이었다.

현재 많은 출판사들도 중국인을 겨냥한 서적들을 집중적으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중신(中信)>에서는 발간한 두 권의 책, 『기독교와 민주(基督教與民主)』 『꿈에도 못잊을 고향으로 달려간다(撲向夢寐以求的故鄉)』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매진되었다고 한다.

한 대륙학자가 저술하고 해외화교선교회에서 출판한 『중국이 거듭나는 길(中國重生之路)』이라는 책은 93년 민련민진이 집합하였던 대회에 등장하여, 만나절 내에 2백 명의 대표들에 의해 동이 나 버렸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전문적으로 대륙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해외교원(海外校園)>이라는 잡지가 선을 보였는데 제2호가 나오자마자 이미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잡지가 뜻있는 젊은이들에 의해 대륙으로 보내어졌지만 5일 만에 발각되어 폐기되었다고 한다.

한편으로, 교회가 사랑을 나타낼 것을 촉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중국유학생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 <6·4>이후 대륙의 학생들은 교회 활동에 있어 더이상 걸들지 아니하고 시간만 허락된다면 대부분의 활동에 즐겁게 참가하였다. 공부도 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는 유학생들은 시간 관리에 있어 매우 철저하다. 그들은 시간을 활용함

중국 젊은이들은
무신론과 진화론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기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쉽게 믿지
못한다.



에 있어서 교회들이 그들이 흥미를 갖는 예수그리스도에 관해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

대륙의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기까지 여러 방면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교육받아 온 무신론과 진화론으로서, 이런 것들은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다.

두 번째는 일찍이 하나의 종교적 방식의 신앙에 심취했었다가 지금에 와서 그도 불구하고 전화로 목사님을 깨워 그의 거듭난 새 생명을 나누었다. 이후 장 형제의 담대한 신앙간증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거둬나게 하는데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열매 맺는 일은 각 학교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대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에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대륙

유학생들이 있다.

남캐롤라이나주 주립대학에는 60명의 것이 일종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새로운 신앙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들에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막 서양에 도착한 유학생들의 경우 당장 영어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갖 노력을 다하여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집회에 열심히 참가하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을 떠나기 전에 공산당원이자 청년단체 지부의 서기였던 장(張)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뛰어난 언변의 소유자로, 성경공부 모임에서 공격하는 듯한 말과 행동으로 항상 말썽을 일으키곤 하였다. 모임의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지만 오는 손님을 내쫓을 수도 없기에 그냥 놔두면서 그를 위해 정

성어린 중보기도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그가 갑자기기도를 해 보겠다고 결심하였다. 과연 성령께서 그의 마음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다. 그는 흥분한 나머지 밤 11시 30분이 넘었는데 크리스천 대륙유학생과 가족들이 있다. 뉴욕대학에도 한 중국 유학생단체가 있는데 총 100여 명 중에서 늘 모이는 사람은 50~60명 정도라고 한다.

관련 전문가의 통계에 따르면 대륙유학생과 그들의 가족 중에서 약 20% 정도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고 한다. 크리스천이 된 유학생들은 더이상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섬기고 베푸는 삶’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구원의 성숙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몇 년 전 중국에 큰 홍수가 났을 때, 크리스천 유학생들은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하여 봉사하였다. <대륙기독교도협회>라는 단체를 설립한 미국 동부의 크리스천 유학생들은 각지의 유학생들과 연락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연구 토론하며 “교제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앞에서 말한 <해외교원(海外校園)>잡지에 실린 대부분의 글들은 대륙에서 온 유학생들이 직접 쓴 글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들 대륙학생들이 섬기는 삶을 살도록 부르시고 계신다. 자료에 따르면 이미 십여 명의 학생들이 미국 전역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이미 졸업한 학생들도 십여 명 가량 된다고 한다. 전체 대륙 학생 수에 비교해 볼 때 십여 명이란 숫자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안에 대륙의 지체들이 주님을 믿고 섬김의 길로 들어섰

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더욱더 많은 수의 재미 대륙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서방으로 부르신 목적은 그들이 이곳에서 과학기술과 각 방면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목적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적 명령에 순종하고 준비된 훈련을 갖추어 언젠가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결론

서방에서 전개되는 영적 전쟁은 지금 막 시작되었다.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들이 나서서 결말을 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분명하다.

필자는 각 교회들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들에 대하여 더욱 인식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현재 서방에 있는 대다수의 화인 교회들 중에 대륙에서 온 사람들을 향한 선교의 책임과 부담을 지려고 하는 교회의 숫자가 너무도 적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대륙에서 온 그들이 대부분 대학 캠퍼스안에 있기 때문에 본교회에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과, 교회 안에 이런 일을 감당할 일꾼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예매 시의 각종 소식, 정보 등이 상투적이라 대륙학생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어렵다. 고급 교육을 통해 정부의 각종 선전 등을 듣고 길들여진 대륙의 학생들의 사고방식은 홍콩이나 대만에서 건너 온 중국인 학생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비교적 좋은 해결방법은 일 년에 한 차례 혹은 수 차례씩 이 학생들만을 위한

부흥회 혹은 수련회를 개최하여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강사를 초빙, 강의와 함께 식사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다.

셋째, 대륙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읽고 공부한 신앙서적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륙 크리스천이 쓴 문장은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목회자나 복음 단체의 인정을 얻기가 어렵다.

넷째, 초신자들로 말하자면 이들에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들이 매우 많다. 대륙 기독교인들은 특히 교만해지기 쉽다. 이들은, 중국에서 고통을 겪었고 단순하지 않은 인생경력 때문에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서방에서 살아온 지체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훌륭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다섯째, 대다수의 대륙인 형제자매들은 예수를 믿으면 자기 인생 중의 하나의 큰 일이 이미 완성되었고 일단 천국행 티켓이 손에 쥐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생을 추구하는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결국에는 잃어버리기까지 한다.

어떤 이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열기를 너무 지나치게 부리다가 반항하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교회에 온 후에도 여전히 유아독존식의 태도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식으로 고집하며 공동체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여섯째, 중국인으로 구성된 어떤 단체는 모임을 결성한 후부터 교회와의 연계가 점점 멀어져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너는 바울에게 속하고.....'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서방에서 맺어지고 있는 유학생들의 복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언젠가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되돌아 가는 날, 이들로 인하여 다시 무수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기도한다.

(『中國與教會, 97期』 중에서)

번역/ 권수영(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간사)



하나님께서 이들을 서방으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다시 중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중국선교에 대한 전망

중국선교의 파트너쉽과 선교방안

다음은 박진국 장로(중국어문선교회 대표)와 국민일보 함태경 기자와의 서면대담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특히 교회와 선교단체, 선교단체와 선교단체 간의 협력선교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선교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 편집자 주

질의자: 함태경(국민일보 종교부 기자)

응답자: 박진국(중국어문선교회 대표)

함 /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간의 유대가 돈독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중국선교는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선교단체가 한국교회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한국교회는 선교단체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창조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박 / 교회와 선교단체, 선교단체와 선교단체간의 협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체의식과 섬김의 도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을 살려 이를 지혜롭게 연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상호간에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역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선교단

체는 교회에 정확하고 신속한 선교정보를 제공하고, 상황에 따른 선교의 전략을 연구, 제시하며, 선교사를 현지상황에 맞게 훈련·파송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가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선교단체가 맡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요컨대 선교단체의 존재의의는 교회가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조하고 섬기는 역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교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많은 선교후보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막강한 기도 및 재정후원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선교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선교단체에 보내어 동역하게 하거나, 또는 선교사로 훈련받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루속히 전문인 선교사를 많이 양성하여 현지로 파송하는 등 개혁개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선교단체가 더욱 전문화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단체가 제공하는 기도정보에 따라 선교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함 / 선교단체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국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박 / 선교단체들은 각기 추구하고 있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더욱 전문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 선교단체 및 교단 선교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중국선교의 총체적인 전략과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교회와 협력하여 시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대추수시기에 대비하여 우리의 선교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일에 전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교일꾼의 발굴 및 이들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일(선교언어훈련과 현지적응훈련, 영성훈련), 급변하는 현지상황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대응전략수립, 문서, 책자 등을 통한 대교회 홍보,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방안 모색으로 창구단일화 실현 노력, 중국 교회와의 우호적인 관계 수립 및 가능한 지원 시행, 홍콩·대만·싱가폴 등지의 전문선교기관 및 교회와의 협력 추구, 현재 진행중인 각종 현지사역에 대한 파악 및 지원, 현지 사역자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을 위한 중개역할, 선교사역에 필요한 제정의 축적 등이 그것입니다.

함 / 개혁·개방론자가 득세하는 한 중국선교의 문은 열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일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진척될수록 선교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박 / 물론 개혁개방은 외국인들에게 중국 내에서의 활동의 폭을 넓혀 주므로 중국선교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만능주의의 만연으로 단순하고 소박했던 중국인의 심령이 시간이 갈수록 강박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혁개방에 따른 종교법규의 제정으로 종교 활동이 더욱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루속히 전문인 선교사를 많이 양성하여 현지로 파송하는 등 개혁개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실

한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중국진출과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에의 동참이 크
게 요구됩니다.

합 / 외국선교단체가 갖고 있는 선교전
략에 비해 한국의 선교단체의 노하우
는 매우 취약성을 띠고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선교지망생들이 아직
없으며 중국대륙만을 선교지역으로 생
각하는 데서 오는 다양하지 못한 선교
전략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박 / 중국선교에 있어서 한국의 선교단
체는 그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외국선교단체에 비해 선교전략이 미흡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몇몇
선교단체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역
경험들을 체험케 하였고, 이러한 것이
선교의 노하우로서 조금씩 축적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구사역과 문서사역이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훈련사역도 약
간의 노하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
및 신앙서적의 전달사역은 상당한 노
하우를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방한 중국교포, 중국인 노무자,
인천의 중국선원들에 대한 전도활동을
통해 상당한 경험이 생겨났습니다. 또
중국현지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역자
를 파송하여 현지사역의 노하우도 조
금씩 얻게 되었습니다. 대만과 홍콩, 대
륙으로 단기 비전트립이 실시되어 이
에 대한 경험도 적지 않게 갖게 되었습
니다.

**연구사역과 문서사역이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훈련사역도 약간의 노하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 및 신앙서적의 전달사역은 상당한
노하우를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모지역에 대해서는 단기 의료
선교 여행도 실시된 바 있습니다. 대만,
홍콩의 신실한 전문선교기관의 전문가
를 초청,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이들
의 경험을 배우는 한편 이들과의 협력
분위기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선교 전문단체들이 연
합하여 중국선교협력회를 결성하게 되
었습니다. 바야흐로 협력사역의 노하
우가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미흡하긴 하지만 이상과 같은
다양한 사역경험과 노하우는 앞으로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심지
어는 과거 시행착오를 겪었던 쓰라린
경험들까지도 우리에게 좋은 교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양선
교단체들보다 유리한 점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중국인과
같은 점, 오랜 역사속에서 형성된 문
화적 동질감, 서양인보다 그들의 생활
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점, 중국인이
한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감, 지리
적으로 가까운 점, 중국이 개혁개방과
더불어 한국과의 협력을 그 어느 때보
다도 원하고 있는 점, 한국인의 탁월한

순발력 등은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선교전략 수립의 기반은 이미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노하우가 취약한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노하우들과 한국의 유리한 점들을 어떻게 집약하고 발전시키고 합의하고 역량을 모아 다양한 사역들을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중국선교협력회를 통한 선교단체들의 협력이 크게 기대됩니다.

합 / 지역별로 선교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중국선교는 초보단계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중국의 변화는 실로 놀랍습니다. 지역별 연구의 필요성과 접근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수민족선교에 대한 견해는?

박 /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다양한 요소를 너무나 많이 지니고 있으므로 선교전략도 다양하고 치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역별 선교전략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성광 선교사는 이에 대해 동북지역, 서북지역, 화동지역, 서남지역의 네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을 주께로” 제24호, PP.45-50, 93.9/10) 지역별 선교전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지역으로 나가 있는 현지사역자들로부터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토대로 선교전략을 연구해 나가면 더욱 효과적인 것입니다.

소수민족선교는 아직 그야말로 초보

적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55개 소수민족 실태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을 양자 삼는 운동이 함께 병행되어 교회와 선교단체가 각각 한 종족씩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선교전략은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 / 중국인과 중국 교회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는 무엇입니까?

박 /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있어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중국인과 중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디까지나 조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중국인은 중화사상으로 자존심이 매우 강한 민족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할 때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을 끝까지 존중하고 겸손히 대하면 격의 없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 번 마음이 열리고 나면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사업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선교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중국교회의 형제들과 교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진정한 형제애를 확인함이 없이는 우리의 섬김이나 협력의 노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교제를 가장 쉽게 성사시키는 길은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어로 의사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들과 대화할 때 중국어를 직접

구사하는 것만큼 마음문을 쉽게 열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합 / 한국 내의 화교들도 중요한 중국 선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박 / 물론 그렇습니다. 화교는 중국선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자원입니다. 이미 선교일선에서 활

약하고 있는 몇 분의 화교 사역자는 이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위치는 한국교회의 중국 선교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에 대한 적극적인 전도활동은 한국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며 동시에 중국선교의 한 큰 비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교단신

중국선교의 거목 데이빗 애드니 소천하다.

50년 거의 반평생을 중국선교에 헌신 하였던 데이빗 애드니 (David Adney) 선교사가 지난 5월 12일 미국에서 83세로 삶을 마감하였다.

그는 1934년 중국내지선교회 선교사로 중국에 도착하여 선교사역을 감당하였고, 공산혁명으로 중국에서 추방당하기까지 학생사역에 몸 담았었다.

그는 중국의 기독교학생운동(Inter-Varsity Movement)을 발전시켰으며 혁명 후에 홍콩의 NCF에서 5년간 일한 후 홍콩 IFES의 극동지역 부총무로 일하였었다.

중국 북동지역의 미전도족속을 알자

김성태

한국교회의 미전도족속 선교는 전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한된 자원과 능력 속에서 무작위적으로 모든 미전도족속을 선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서구의 교회가 선교하기 용이한 여러 상황적 특성들을 소유하고 있는 미전도족속들을 구태여 선교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서구 교회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간접적으로 후원하면 된다.

한국교회가 중국 미전도족속을 선정하여 선교한다면 인종, 언어, 문화, 역사적 삶의 체험 등에서 많은 공통분모가 있어 훨씬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다. 백인 선교사보다 선교를 수행하기가 유리한 상황 속에서 선교하는 것이 전략적인 선교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중국 북동지역에 있는 6개 미전도족속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은 전략적인 선교이며 시급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한국교회의 선교는 지금까지 전략이나 정책의 부재 속에서 혈연, 지역, 개인의 기호, 선교지 상황 등 피상적인 요인에 의해 선교지가 결정되었고 선교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필자는 이런 구태의연한 선교가 지양되고 참으로 세계 선교에 공헌할 수 있는 6개 미전도족속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선교적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나

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선교에 구체적인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 중국 북동지역 미전도족속 대상의 선교에 교두보가 될 수 있고,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북동지역 조선족 교회의 현황을 살펴보겠다.

북동지역의 조선족 교회 현황

1920년대 중반, 북동지역 특히 간도라는 곳에 조선인 백만 명이 살고 있었으며 교회는 천여 개, 장로교 노회가 4개 있었다.

필자의 현지 조사에 의하면 현재 북동지역 80% 이상의 조선족 교회가 이전 교회가 존재하던 곳에서 복구되었다. 교회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정식으로 예배당 건물로 복구된 곳이 150개, 예배당 건물은 아니지만 큰 집을 교회로 개조해 모이는 곳이 160여 개, 그 나머지는 초가집을 구입해 일종의 처소 혹은 가정교회로 모이는 경우이다.

북동지역의 조선족 교회는 날이 갈수록 예배당 건물 형태의 교회복구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등 동북삼성 내에 최소한 7천여 개의 초가집 형태의 가정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 조선족 교회는 급속도로 확장되고 부흥하고 있으며 지금은 중국인 한족 가정교회를 설립하거나 돌보며 미전도족속 선교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 교회현황이 표면적인 통계로 나타나듯이 그렇게 낙관적이고 평안한 상황은 아니다. 최근 중국정부의 체제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각 성 종교정책은 허가 받지 못한 가정교회를 폐쇄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지도자를 가택구금, 수감하는 사례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런 중에 조선인 삼자애국교회 목사로 오애은, 김성하 두 분만 있었으나 김성하 목사의 소천 이후 6명의 젊은 목사가 안수를 받은 것은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조선족 교회의 분포와 신자 수(최소한 20여만 명)를 볼 때 지도자의 부족과 지도자 훈련, 양성의 문제는 실로 시급한 당면과제라 생각된다.

조선족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미전도족속 선교의 가능성 고찰

북동지역에 흩어져 있는 조선족 교회 성도들은 마을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미전도족속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생활하며 교류를 나눈다. 중국의 주류 종족인 한족이 아무리 소수민족정책을 지혜롭게 잘 한다 하여도 보이지 않는 인종간의 갈등과 차별이 엄연히 북동지역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조선족들은 한족보다 소수민족, 즉 미전도족속 사람들과 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삶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미전도족속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조선족 교회에 미전도족속 선교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며 조선족 교회를 선교 동력화 할 수 있는 제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에 필자가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조선족 교회의 몇 지도자들이 미전도족



조선족 교회를 통한 미전도족속 선교전략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 길림성 장춘시 기독교회의 조선족 성도들.

속 선교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며 이 일을 하기 위해 적절한 훈련과 지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이 조선족 교회를 통한 미전도족속 선교의 가능성은 전략적인 면에서 다원성이 요청되며 현지 상황에 대한 깊은 연구와 올바른 선교정책을 개발하면 놀라운 선교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북동지역의 미전도족속 현황

만족(Manzhu)

만족은 중국을 통일해 청나라(1644~1911)를 세운 종족이나, 지금은 과거의 영화(榮華)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쇠락해진 족속이다. 중국 전역에 이백여 만의 만족이 있으며, 그 중 신자수는 천여 명에 불과하다. 만족 가운데 아직 토착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성경도 완전히 번역된 상태가 아니다. 요녕성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는 길림, 흑룡강, 내몽고 자치지역외에 멀리 산서(山西), 산둥(山東), 강소(江蘇)에 까지 흩어져 있다. 만족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만족만 있는 요녕성 씨우야, 쎡헝 자치현이 있고 조선족과 함께 사는 지역으로는 썬빈 자치현이 있다.

요녕성 안에 조선족, 몽고족, 회족과 함께 사는 지역으로 다첸제, 후썬 자치현이 있다. 길림성 안의 연변 자치현, 장백, 치안 구오 자치군 내에서 조선족, 회족, 몽고족과 함께 산다.

내몽고 자치지역에는 '후허하오터'라는 곳에 몽고, 회족, 다우르, 어룬춘족과 함께 만족이 살고 있다.

만족의 8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높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다. 만족은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옥구조에 한국의 사랑방 비슷한 기능을 가진 거실이 있다.

만족의 종교는 대체적으로 샤머니즘이



아기가 태어난 후 7일이 되면서부터 요람에서 재우고 놀게 하는 것이 만족의 전통적 풍습이다.

며 두 종류의 샤먼(무당)이 있는데, 마을 샤먼(질병, 재액, 축귀의식 거행)과 전승 샤먼(제사의식 수행)이 있다.

만족의 언어는 알타이어 계통의 만주 퉁구스어족에 속한다. 역사적으로 만족은 조선족과 관련이 많으며 문화, 언어, 생활습관에 있어서 유사점이 많다. 조선족은 특히 만족과 공감대가 있으며 상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현재 만족은 과거의 영광을 상실한 채 쇠락한 종족으로 가치관의 혼란과 정신적 구심력을 잃은 채 혼돈된 삶을 살고 있다.

허쩌족(Hezhes)

허쩌족은 숫자가 삼천여 명에 불과한 거의 멸종직전의 족속으로 최근 중국정부의 보호노력 아래 숫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

허쩌족이 사는 지역은 흑룡강, 길림성 지역, 송화, 해란강이 흐르는 상류지대 산

약지역으로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다. 결혼한 여성은 머리를 두 단으로 묶고 미혼 여성은 한 단으로 묶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 샤머니즘을 믿으며 노래와 춤을 즐기고 의사소통은 주로 이야기 말함(Story telling)으로 한다.

언어는 알타이 계통의 만주 통구스어족이며 문자는 없다. 허찌족은 길림성의 푸야안군 내에 씨야바차 허찌 자치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곳은 행정소재지이며 최고인민대회에 대표를 파송하기도 한다. 조선족과의 공통점은 언어적인 것이며 가무를 즐기는 것도 그러하다.

몽고족(Mongolians)

몽고족은 크게 내몽고, 외몽고에 분포되어 있는데 외몽고는 오랫동안 구 소련의 위성국가로 있었다. 내몽고는 중국의 한성으로 가장 규모가 큰 자치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필자는 중국 안에 거주하는 내몽고 계통의 몽고족만을 대상으로 고찰하려 한다. 몽고족의 인구수는 오백만 정도이며 내몽고뿐만 아니라 요녕, 길림, 흑룡강성과 멀리 감숙, 칭해, 신강, 하남성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다.

내몽고에는 광산물이 풍부하며 한약재가 많고 유목민족으로 많은 가축들을 생산하고 있다. 사회구조를 보면 강한 씨족, 부족사회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노인중심의 사회이며 음악과 시를 좋아하는 예술적인 면도 있다. 몽고족의 종교는 일반적으로 샤머니즘이나 적지 않은 인구가 원나라 때에 들어온 라마교를 숭상하고 있다. 최근 외몽고에서 라마교가 서민들 사이에 세력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고 한다.

몽고족의 언어는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로 만주 통구스어와는 다르며 3개 방언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몽고, 발후의 발야트, 위라트어가 있다.

최근 외몽고가 구 소련의 위성국가로 있을 때 받아들였던 씨릴(Syri)문자를 버리고 원래의 몽고문자로 환원한다는 결정은 선교적인 면에서 좋은 소식이다.

흑룡강성과 접경지대에 있는 내몽고 찌찌하르나 짜하르 지역에 3만 정도의 조선족들이 몽고족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내몽고 지역에 조선족 가정교회가 급속히 성장하여 몽고족 및 소수민족 선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지도력의 결여와 훈련부족으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방황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선교의 도움을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외몽고에는 20여 명의 한국선교사들이 들어가 활동하고 있는데 백인선교사보다 언어를 익히는 면에서 속도가 훨씬 빠르며 생활적응을 쉽게 하므로 선교기간은 얼마 안되지만 선교효과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

다우르족(Daur)

다우르족의 인구는 13만 명이며, 내몽고 자치지역 내모린다와 다우르에 가장 많이 모여 살며 어룬춘 자치구역 내 알리해에도 조선족, 만주족과 함께 섞여 살고 있다. 다우르족은 흑룡강성에 많이 살고 있으며 북동지역 전체에 100여 개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농사를 잘 짓는 것으로 유명하며 산악지대에서는 양봉, 사냥, 한약재 채취, 벌목 등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가무를 좋아하며 종교적으로는 샤머니즘을 신봉하고 있다.

언어는 몽고어 계통이며 청나라 시대의 만주문자를 채용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 내몽고 안의 알리해에 중국인 한족교



날씨가 추운 북동지역에 거주하는 오원크족과 어룬춘족.

회가 있으며 조선족 가정교회도 있는데 다우르족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실을 서서히 맺고 있다.

오원크족(Ewenkis)

인구는 약 이만 오천 명 정도이며 헝간산맥에 흩어져 살고 있고, 내몽고, 다우르, 어룬춘족과 함께 살고 있다. 내몽고 자치지역 남툰첸에 자치행정구가 있다. 이들은 주로 사냥, 유목생활을 하고 있으며 외부인들에 대하여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또한 지리적인 여건 속에서 터득한 생존방법으로, 사냥시에 타인이 비축해 둔 비상식량을 입의로 먹고 나중에 채워 넣는 좋은 풍습이 있다. 가무를 즐기며 문자가 없고 의사소통은 주로 이야기 말함으로 한다.

종교는 정령숭배이며 소수이지만 첸베에르후 지역에 살고 있는 오원크족은 동방종교를 믿고 있으며 조상숭배를 하고 있다. 내몽고 자치지역 내 오원크 자치지구에 조선족들이 있는데 최근 조선족 가정교회가 오원크 족속에 대한 선교적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어룬춘족(Oroquens)

일만 명 정도의 소수종족으로 중국정부의 보호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흑룡강 내몽고 접경지대인 헝간 산맥지대에 살고 있으며 내몽고 내의 어룬춘 자치지구에 있으며 행정중심지는 알리해이다.

어룬춘 자치지구 내에 조선족이 있으며 가정교회가 존재하는데 어룬춘족에 대한 선교적 관심이 요청된다. 어룬춘 종족은 만주 통구스어계의 언어이며 문자는 없다. 이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가무를 즐기며 유목, 사냥으로 살아가고 있다.

미전도족속에 대한 선교전략

이상 만족, 허쩌족, 몽고족, 다우르족, 오원크족, 어룬춘족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한국교회의 전략적 선교에 의한 엄청난 선교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언어적으로 이들의 언어는 대개 만주 통구스 계통이며 몽고어이고 공통적으로 알타이어에 속한다.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노인을 공경하며 혈연간에 유대관계가 긴밀하고 가무를 즐긴다.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한국과 같이 샤머니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히 종교적이다.

북동지역의 미전도족속들은 지금까지 선교의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되어 왔다. 최근 선교 시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것은 못되며 대개 중국의 한족 가정교회나 조선족 가정교회를 통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북동지역의 1,400여만의 6개 미전도족속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선교책임인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필자는 미전도족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선교전략을 제시하려 한다.

1. 조선족 가정교회를 통해서 미전도족속 선교를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교를 위한 지도자 훈련이 필요하며 선교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 없으므로 한국 선교사가 협력하여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미전도족속 내에 간접선교 기반을

세워 놓고 선교를 수행할 수 있다.

북동지역의 미전도족속이 위치한 지역은 대체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지역이며 외부세계의 경제, 기술적 도움이 요청되고 있다. 이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제 분야를 개발하여 적절한 시설투자 및 사회복지 기구를 세우고 선교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선교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다.

3. 6개 미전도족속 선교는 성경번역 선교사가 요청되며 이들은 성경번역을 위해 문자를 만들어 주며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종사해야 한다.

4. 지역적으로 오지이고 장기간 정착함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전략적인 지점(중국, 서울, 홍콩)에 교두보를 확보한다. 그리고 비거주 선교사를 파송하여 토착교회를 세우기까지 장기적인 선교목표와 구체적인 선교방법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5. 중국 안이나 중국 밖의 전략적인 지점에서 이들 6개 미전도족속들 중 잠재성 있는 젊은이를 선발하여 지도자 훈련을 시키고 재파송하여 이들을 통해 토착





한국 교회는 북동지역 미전도족속 선교가 하나님이 주신 책임임을 알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기울여야 할 때다.

교회 설립을 도모한다.

6. 중국 북동지역을 방송으로 커버할 수 있는 TWR(Trans World Radio)이나 FEBC를 통하여 토착원주민 성도가 확보 되면 선교방송을 실시하여 씨를 뿌린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중국 북동지역의 미전도족속 복음화에 참여할 것인가?

1. 기도로 참여할 수 있다. 기도는 영적 전쟁 수행에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성령의 인도, 복음의 문(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을 열어주시도록, 위기 상황에서 지켜 주시도록 (행 4:31), 일 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행 12:5-19)
2. 미전도족속 선교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선교단체를 선정하여 후원한다.
3. 연구 조사팀(위탁, 파송)을 파송한다. 이들이 미전도족속을 조사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선교정책을 세울 수 있다.
4. 구체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해야 한다.
5. 교두보를 확보한다.
6. 개인전도, 제자 훈련, 지도자 훈련, 성경 번역 등으로 선교할 수 있다.
7. 교회 설립(Underground, Ground).

중국 북동지역에는 여섯개 미전도족속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선교해야 될 엄청나게 많은 종족들이 있다.

위구르족, 이들은 천만정도 되는 투르크어계 계통의 사람들인데 일종의 알타이어족의 언어를 사용한다. 한국인들은 위구르족의 투르크계 언어를 굉장히 빨리 배운다. 그리고 생활이나 문화풍습에 있어서도 우리민족과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다.

또 터키나 소련의 중앙아시아에는 육천만 정도의 투르크족(터키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같은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비교적 말을 쉽고 빠르게 습득한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선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 전략적인 선교의 교두보이다.

이상은 중국에 있는 여섯 개의 미전도족속에 대해서 소개했다.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이들 종족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실지 모른다. 이 여섯 종족을 한국교회가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가 통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김성태/총신대학원 선교학 교수

중국의 요즈음

뛰는 경제, 거북이 정치, 꿈틀대는 사회

강성광

들어가는 말

'94년 특히 3월 이후로 중국의 정치적 분위기는 여러 면에서 경직되어 있고 대내외적인 반응들을 볼 때 상당히 강경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의 정치 발전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그 예를 들면 3월경, 미국의 국무장관이 북경을 방문해 인권 문제를 제기했을 때(당시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와 연계해서 최혜국 대우를 연기하겠다는 강경한 주장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북경 당국은 여전히 그들의 종래 입장만을 고집했다. 오히려 '위경생' '왕단' 등 민주운동 지도자들을 격리시키고, 그 밖에 몇 명을 다시 구속하기도 했다. 4월에 프랑스 총리가 북경과 상해를 방문했을 때도, 북경과 상해의 영향력 있는 민주 인사들을 다시 구금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큰 반발을 샀다.

또한 중국 당국은 94년 1월 31일, 중국 국무원령의 이봉 총리 이름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이라는 새 법령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내외국인에 대한 종교 활동의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홍콩과 대만에서도 그 어느 때 못지 않게 중국 정치당국을 불신하고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

며 항의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홍콩의 한 일간지 「明報」 기자가 작년 9월 말 북경에서 취재 활동을 하던 중 불법으로 국가의 금융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서 비롯된다. 구속된 지 6개월이 지난 금년 3월 28일, 북경시 중급 인민법원에서 변호사 없이 비밀재판을 통하여 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어 그 후 곧바로 항소했으나 역시 원심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97년을 얼마 안 남겨 놓은 홍콩 사회에 큰 충격이 되고 있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언론 자유를 걱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모든 홍콩 사람들에게 장래에 대한 큰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리고 요즘 중국과 교류를 시작한 대만도 중국 당국에 대하여 가장 큰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대만 여행객 24명이 중국의 절강성 천도호라는 호수에서 배를 타고 유람하다가 24명 전원이 배의 맨 밑층에서 불에 타 숨진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의문점들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측에서는 진상을 밝히지 않은 채 우연한 화재 사고로 발표하였고, 유족들의 반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시신을 화장하여 넘겨주었다. 여기에 크게 반발한 대만정부가 중국 여행 금지 및 민간 교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곧바

로 세 명의 강도범을 잡았다고 중국 당국이 발표했다. 대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철저한 진상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근래, 즉 94년 초 이래로 중국의 경직된 정치적 상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중국에 왜 이러한 정치 기류가 형성되었는지, 89년 이후의 중국의 정치적 변화와 흐름, 그리고 경제, 사회의 여러 변화와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부터 93년 말까지의 중국의 정치변화와 그 흐름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정치권은 정치안정을 최고 목표로 하는 보수성향의 정치인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즉 80년대 초 이래로 경제 개방과 개혁을 통해 얻은 업적과 여러 문제점들을 재평가하고, 더욱 중국에 알맞는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잘 정립된 새로운 의식 체제 구축이 필요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궤도 수정을 시도하였다. 그 일환으로 천안문 사태에 개입했던 운동권 지도자들을 일제 검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보수성향이 짙은 정치인들이 통전부, 관방매체(인민일보 등)를 주도해 나갔다.

경제면에서는 이붕 총리가 ‘치리정돈’이라는 명목으로 통제와 관 주도의 경제 정책을 주도함으로써 과열현상의 제동과 경제체제의 정비효과는 거두었지만 경제성장의 급속한 둔화와 대부분의 기업의 의욕과 활기가 크게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밖에도 사회의 각 방면에서 계속적인 개방과 개혁에 많은 제동이 걸렸다.

이러한 조치들이 89년 후반기, 90년, 91



강성광

년 전반기까지 계속되다가 어느 정도 느슨해질 무렵, 91년 8월 소련 정변의 실패로 인하여 중국 정치권은 다시 대내외적 의식형태의 위기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정치 성향은 다시 보수성향으로 급선회하였고, 5천만이 넘는 당원과 인민들에게 모택동 사상을 다시 연구, 학습할 것을 주장하며, 평화연변 반대 및 저지라는 정치 슬로건을 걸고 나왔다. 그렇지만 이미 개방과 개혁의 단맛을 본 인민들과 경제, 사회체제를 정치 이데올로기로 통제하기는 힘들었다. 즉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본주의식 경제 개혁과 사회개방은 계속 진행되었다. 또한 그 당시 소련 정변 이후로 중국의 지도층인 등소평은 소련이 무너진 이유가 경제 문제라는 것을 간과하고 빠른 시일 안에 고도성장을 유지함으로 경제, 사회의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92년 초부터 등소평은 남순강화(중국의 남쪽지역 광둥성 지역을 순회하면서 언급한 주장들)를 통하여 직접 그간의 보수 정치 진영의 보수적이고 개혁과 경제

발전을 지연하는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동시에 상해 시장 출신인 강택민 총서기와 주용기 부총리도 경제발전과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개혁 진영의 도약과 더불어 모든 관영매체들도 여기에 가세하여 빠른 경제개방과 개혁을 위한 선전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래서 92년 5~6월경부터 중국 전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개방을 위해 지금까지 특구나 연안지역에 제한되었던 개방을 중국 내륙 모든 지역에 걸쳐서 해야 한다는 소위 '전방위 개방'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몰이식의 선전만 가지고 실제적인 경제개혁과 개방을 통한 빠른 성장을 추진하기에는 장벽들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장애가 정치적 보수 성향이었다. 그래서 92년 중반기 이후로 대두된 주장들은 '사상해방(思想解放)'이라는 것이었다. 천안문 사태 이후로 복고된 지나친 좌의 성향은 교조주의적 완고한 방향으로 흐르기 쉽고, 개혁 즉 경제 개혁과 생산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사상해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호들은 경제 발전을 위해 정치적 금구(禁區)를 없애자는 의도가 아니라 경제개혁을 추구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 성격이나 사회주의 성격이나라는 문제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92년 11월의 제 14기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채택된 주요 의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정은 지금까지의 중국의 경제 개혁과 개방을 최고봉에 도달하게 했다.

이런 일련의 개혁 의식의 진보와 중국의 최고의결기구인 공산당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따라 계속 관망하고 있던 외국 투자자들도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분위기와 투자확대로 중국은 92년 12%에 가까운 성장률, 93년도에는 13.8%라는 획기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정·경 분리'라는 원칙하에 정치 발전을 위한 그 어떤 개혁의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다. 즉 중국 정치권은 경제 발전을 통하여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94년 전반기 이래 중국 정치권의 강경한 반응의 배경 및 원인

91년 말 중국에서 평화연변 반대 및 저지가 정치 지도층의 주요 의제가 될 무렵, 반체제 인사인 주가명(朱嘉明)은 이미 그 당시 중국에서 3가지 추세로 평화연변이 지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1. 비국유화 시장화 추세,
2. 비중앙화 지방화 추세,





3. 의식 형태 영역주의 자유화 추세이며, 그의 예언은 거의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중국식 사회주의인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묘목을 옮겨 심으면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그들이 원치 않았던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정치, 사회가 발전하는 현상은 발전이 필연적으로 여겨진다. 정·경의 분리를 주장했던 중국도 이러한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회적 배경

정보화 사회로의 개방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경제 발전에 필요한 많은 정보 전달이 필요하고 경제 유익이 될 만한 모든 수단이 상업화되고 있다. 언론매체도 그 예외는 아니다. 물론 정치적인 차원에서 엄격한 언론통

제가 되고 있지만 각종 정기간행물, 일간지들이 범람하여 93년 하반기 통계 이미 8천 종 이상의 각종 월, 주간지, 1,500종의 각종 일간지가 중국 전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위성TV 안테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100만 명이 넘고 있다. 이들은 각종 국제 채널을 통하여 국제 소식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고 실제적인 중국의 각종 뉴스를 시청한다. 그리고 광둥성 지역에서는 별도의 안테나 없이 홍콩 TV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의 정확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여건들로 인하여 89년 이전보다 중국의 일반 시민들의 의식 형태 및 사회에 대한 시각이나 참여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신진 중산계층의 등장

신속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 일부 상인계

층이 흥기하여 개인 사업으로 많은 경제적 업적을 이룬 계층이 있는데 이들을 바로 '개체상인(個體商人)'이라고 한다. 이들 대부분 학력 수준이 낮지만 뛰어난 상업적인 기질로 신속하게 부를 축적하고 있다

93년 10월 북경일보에 의하면, 그 당시 중국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100만 원(인민폐) 이상 가진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수치는 2년만에 2000% 이상 증가한 숫자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중국에는 백만 원 재산은 부자라고 여기지도 않는다고 한다. 천만 원(인민폐/한화 10억) 이상이 되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고 억대(인민폐) 이상의 자산 소유자도 상당히 많다.

중국 국가 통계국에 의하면 전국에서 제일 부유한,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하는 개체호 3천6백만 명이 은행에 저축한 저축액은 8억 원으로써, 전체 농민의 예금액을 넘어서는 액수이다. 그밖에도 18만 5천여 개의 사영기업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사영기업의 경영자도 300만 명이 넘고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완전한 자본주의식 사고 방식과 방법으로 빠르게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중국 사회의 의식 구조의 변화와 함께 충격 요소가 되고 있다(사회주의의 본래 의미는 모든 인민이 생산 수단을 공유함으로써 평균적인 부의 분배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기타 여러 사회, 문화 현상 및 종교 인구의 급속한 증가

시장 자유 경제로의 진입과 더불어 지식 문화도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전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영역에 묶여 있던 출판 업계도 개혁과 개방의 영향 아래 각 영역의 수십만 종의 각종 서적들을 쏟아 내고

있다. 그러나 상업주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통속문학 서적들이 지나치게 범람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 대륙 청소년들의 정신적 위상은 홍콩이나 대륙의 유명한 연예인들이다.

얼마 전 광주의 문화공원의 작은 광장에서 열린 중국의 한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에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떠밀리면서 환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向錢看'(모든 것을 돈 우선으로 보는 사고 방식)이 팽배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의식이 지금 중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사고에서 비롯되는 많은 부도덕, 도덕 부재 현상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성적 타락, 각종 범죄, 부정과 비리가 자본주의 사회보다 훨씬 심각하게 중국 전 사회 영역에 걸쳐 파급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상호 불신감이 근래 당면한 중국 사회의 위기 의식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과 이데올로기의 부재, 믿음의 위기에 직면한 많은 중국인들이 진정한 믿음의 대상을 갈망하여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여기에도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지극히 현세적인 욕망으로 막연하게 만사형통을 추구하고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우상앞에 절하는 사람들이다. 중국의 사찰을 가보면 불상 앞에서 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을 종교인으로 취급하기는 어렵겠지만 수억의 중국인들이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진정한 신앙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근래 들어 급속히 늘고 있다. 약 2

년 전부터 중국에는 많은 종류의 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독교의 봄이다. 중국에 있는 모든 예배당마다 주일이 되면 통로나 뒷문 앞까지 신도들이 가득차서 대개 2부 예배를 드릴 정도이다. 관방통계로는(발표는 하지 않았음) 92년 현재 6,3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한다. 하루에 수만 명씩 기독교 신자가 늘어나고 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중국 서북쪽에서는 회교 세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 현재 중국에는 최소한 2,000만 명 이상의 회교 신자가 있다. 특히 소련의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가 회교 급진 세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심지어는 한족 통치 반대 및 독립을 주장하는 시위나 폭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종교 조직의 정치화 요구나 기존의 사회주의와 여러 면에서 사상 대립이 되는 기독교의 신속한 부흥 등이 중국의 보수적인 정치 메카니즘에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급속한 사회 변화, 일반 인민들의 의식의 변화, 새로운 계층의 등장, 물밀듯이 몰아닥친 사회 개방,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들, 다시 정치 이데올로기화할 수 없는 문화 및 종교 사상의 확장 등은 중국 정치 당국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그 어떠한 정치적인 힘이나 법적, 물리적, 권력 수단으로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형편으로 치달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당국은 근래 들어 그들의 정치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면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경제적인 배경

요즘 중국의 경제는 자타가 모두 인정할 정도로 획기적인 성장과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적인 높은 경제 성장률과 수출 증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실업률 증가 및 잠재 실업군의 압력

1992년의 중국 도시 실업률은 2.4%이었고 93년에는 2.6%이었다. 94년도에는 3%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에서 취업을 기다리는 인구는 1천1백만 명, 그 중 생활 구제가 필요한 인구는 180만 정도이다. 이러한 실업인구 증가는 국영기업의 경영부실로 인한 파산, 폐업, 인원 감축 등의 원인에 의해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업 문제는 본래 농촌 노동자의 도시 진입과 상관없는 도시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특히 구정 전후로 밀려드는 민공(가난한 농촌지역에서 공장이 많은 연안 개방 도시로 무작정 몰려드는 농민 노동자들)은 해마다 5백만 이상 늘어나고 있고, 그 숫자는 점차 통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숫자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는 1억 3천만의 농촌 잉여노동력이 취업의 출로를 기다리고 있다. 2000년이 되면 농촌 잉여노동력은 2억이 넘을 것이고 매년 2000만 명이 이상이 취업을 위해 민공 대열에 끼여들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리이닝'은 중국이 현재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실업 문제라고 경고했다.

농촌 문제 및 지역 발전의 불균형과 소득 격차

1992년 중국의 최고 지도자 등소평은 중국에서 앞으로 정권에 영향을 주는 시위나 폭동이 발생한다면 바로 농촌의 농민들일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다. 작년 이후 농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상황들을 볼 때 등소평의 염려가 적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시경제와 농촌경제의 불균형, 심각한 인플레이, 과중한 세금 부담 등등의 원인으로 농촌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자세한 상황은 “중국을 주제로” 93년 11·12월호 참조). 그래서 작년 이래로 크고 작은 항의 사건이나 폭동 사건이 농촌지역에서 수백 차례 발생했다.

지역간의 발전의 격차도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광둥성 사람의 소득과 귀주성 사람들의 평균 소득의 차이는 7배 이상이나 된다. 연안지역의 성들과 내륙지역의 성들의 소득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각 성간의 교류, 인민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지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15년 전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부추기기 위해 일부의 사람이 먼저 부를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장려했다. 그 결과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부를 획득했고, 현재도 이런 이들이 점차 증가하고있어 그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 10억 이상의 중국인들의 1년 총소득은 여전히 4~5천 원(인민폐)이하인데, 하루 저녁 식사비나 유흥비로 5천 원 이상을 쓰는 사람들이 중국 각 도시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런 현상들이 전반적인 사회 정서와 인민들의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영기업의 심각한 문제들

국가통계국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금년('94) 1/4분기 중국 공업 총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8.6%의 성장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영기업은 이 기간 동안 2.2%의 저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집체기업(지방정부, 기관, 지방자본가 기업)은 32%, 그 밖에 사영, 외자(外資) 기업 등은 79% 성장을 했다.

국영기업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생명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인데 국영기업 전체가 거의 적자 상태라는 것이다. 1/3은 확실한 적자를 내고 있고, 다른 1/3은 잠재적인 적자 상태에 처해 있다. 그리고 다른 1/3은 이윤이 아주 저조한 상황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체 국영기업의 15% 이상이 폐업을 했거나 반



중국은 지역간의 발전의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광둥성 광주의 한 호텔 전경.

폐업 상태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1,500만 이상의 잉여노동력은 실업률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약 2백만 명이 국영기업의 폐업 등으로 이미 실업 상태임).

중국의 국영기업은 전체 중국 공업 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1억 2~3천만 명 정도 된다. 이들의 적자 현상의 원인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의 융통성 있고 생기 있는 경쟁력 상실, 많은 퇴직자의 복지비 부담, 경영 부실, 계속 누적되는 채무 부담, 국영기업간의 보증으로 얽힌 삼각 채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가 전체 예산의 1/5 이상을 국영기업에 쏟아 붓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회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전체 국영기업의 1/3 정도가 파산해야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엄청난 실업군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 문제 등을 우려하여 중국에 파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못 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중국 정치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

경제 체제의 변혁

중국은 현재 경제 체제의 과도기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주장하면서 80년대 초부터 경제 개혁과 개방을 가속해 왔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이념 안에 묶어 놓은 불균형의 경제 개혁과 개방의 카테고리 안에 있고,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경제 체제 개혁의 용어(用語)나 속도면에서 영향을 받기도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정치적인 울타리를 넘게 해 준 것은 '92년 가을 14대 공산당 전당대회 때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정식 채택, 도입되면서였다.

사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용어는

상호 모순적인 단어의 합성어인 셈이다. 중국 당국도 이런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론 설정만 했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 여러 부작용, 모순 극복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상당히 어색한 이름의 배를 출항시켰다. 그리고 93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 94년 초부터 본격적인 경제 개혁을 시작했다. 즉 경제의 구체제와 신체제의 완전한 탈바꿈의 과도기 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그 개혁의 일환들로 금융체제, 세제 개편, 이중화폐 폐지, 현대 기업 제도, 투자 체제, 대외무역 체제로 궤도 바꿈을 했거나 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의 목표는 서방선진국의 시장경제 형식이고 다른 것은 시장경제 앞에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더 붙였을 따름이다. 그리고 종래의 양적 개혁에서 질적 개혁으로 바뀌고 있다.

그 예로 전에는 모든 국영기업의 주도권은 당, 즉 기업 안의 당 위원회 서기가 가지고 있었으나 불필요한 당 통제를 금하고 주식회사 원리에 의하여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정을 우선 존중하게 함으로써 당의 기업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개혁이 진행중이다.

그리고 중국 경제 당국의 계획은 94년부터 96년까지 1단계 완전한 탈바꿈식 경제체제 개혁의 기초를 다진 다음, 96년에는 전면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한다는 것이다. 또한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실제적으로 시장경제 신체제를 실시하여 서방 선진국과 같은 경제체제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홍콩의 중국 반환을 기하여 홍콩과 똑같은 경제체제로 개혁을 함으로써 홍콩 인수 이후의 체제의 마찰을 피하고 성공적으로 경제 체

제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때에도 사회주의 이름을 붙일지는 모르지만 내용물은 100% 순수한 새로운 탈바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담대한 개혁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구체제와 신체제의 충돌 및 모순, 사회적 역작용을 감안할 때 정치적으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다.

중국이 92년의 고성장 이래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심각한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물가상승 그래프는 상향 곡선을 치닫고 있다. 1/4분기 전국 물가상승은 13%가 넘고 있고, 전국 35개 대도시는 20.1%의 물가상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50% 이상이 30% 가까운 물가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은 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국 인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경제 문제에 따른 민감한 사회적 반응은 정치권에 주는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정치적인 배경과 문제들

93년 12월 14일 북경에서 '89 민주화 운동' 이래 보기 드문 민주 항쟁이 발생했다. 그것은 9명의 민주인사들이 「평화헌장」이라는 것을 작성, 공동 서명하여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중 두 명이 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평화헌장」의 주요내용은 중국이 국제적 수준의 인권 및 자유를 보장하고, 반혁명 죄 철폐, 당의 금기사항 삭제, 다원화되고 건전한 민주 정치 실현, 6·4사태 명예 회복, 정치범 석방, 평화통일을 촉진한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전에 없이 상당히 담대한 주장이고, 현 체제에 위협을 주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나게 하였다.

그 밖에 3월에 북경에서 전국정치협상회의, 인민대표회의가 열리는 기간에도 여러 경로를 거쳐 정치적인 의견 전달 및 행위를 함으로써 북경의 정치권을 긴장시켰다.

2월에 북경대 한 학생문제 전문가 '황



강택민(江澤民) 국가 주석과 이봉(李鵬) 총리

건강'이 발표한 「중국 사회, 경제 분석과 예측 - 1993~1994」이라는 보고서에는 94년에 대학생의 정치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93년 등소평의 '문선 3권' 발행(등소평이 92년 이래로 개혁, 개방 지향적 정치발언들을 묶어 발행된 간행물), 구체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진입, 중·미 수뇌의 정치 논쟁 등이 대학생들의 정치 관심과 열정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정치, 사회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학내 문제 개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천안문 사태와 같은 전국적 시위 사건은 없을지라도 지역적으로 학생 시위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천안문사태로 구속되었던 민주인사들이 거의 석방되면서 계속 정치적인 주장이나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가 천안문 사태 5주년 되는 해이기에 그 동안 잠잠했던 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작년부터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실제적인 중국 최고 지도자 등소평의 나이가 89세로 접어들어 따라 계속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국내외의 중국정세 분석가들은 등소평 사후의 중국에 크든 작든 간에 정치적 동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밖의 다른 요소는 지금 중국의 관료 계층의 부정부패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들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와는 극히 모순되는 현상으로 정치 기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다.

맺는 말

지금까지 중국의 근래 정치적 반응과 여러 현상들을 조명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중국의 당면한 현실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경제 개방과 사회 개방을 통해 발생된 많은 부작용과 모순들을 바로잡고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가 통치 권위를 확립하는 강경한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자신감보다는 경제적 자신감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의 계산대로 미국도 중국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외부세계에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시장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이런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도를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확실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개혁과 변혁의 원동력은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수 중국인의 잠재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경제 발전과 개혁은 사회 발전력의 원동력이 되었고, 사회·경제 발전과 개혁의 거대한 추진력은 정치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당면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현재의 상황들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발전과 전체적인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

교사생활을 시작한 직후, 나는 기도 동역자들과 친구들에게 이곳 생활을 편지로 알렸다. 이 새로운 상황에서 그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답장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담겨 있었다.

“중국에 사역을 하러 간 줄 알았는데 외국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어떻게 된 일이지?

중국에 간 목적이 그것이었니?”

이제는 나 스스로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모르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모로 보나 나는 여기서 부적격자였다. 학생들과의 관계만 보아도, 교사인 나는 학생들 앞에서 몸이 굳었고, 아이들은 나를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이들은 언제나 나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교국의 기도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려는 순간이었다. 충고를 담은 편지들이 계속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교육을 하려면 대학 강단에 서야 하지 않겠니? 네가 해온 것은 그것이니까” 그들은 내가 거절했던 연청 대학 강사자리를 상기시킴으로써 나의 불만족을 한층 고조시켰다. “아직 그 자리가 남아 있을지도 몰라.”하고 그들은 충고하였다. 지금 회고해 보면, 그때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다시 한 번 시험하셨던 것이다. 그 당시, 아무리 그곳에 마음을 두지 못한다 해도 3개월 간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아이들이 부모 곁으로 가고 없는 겨울방학 동안, 학교는 장시성의 꾸렁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때쯤이면 나는 새로운 곳으로 임명을 받게 되므로 안심이 되었다. 이번 방학은 이사문제로 조금 길어질 예정이었는데, 내가 편지에 긴 방학에 대해 언급하자 어머니는 이렇게 답장하셨다. “방학이 길어진다니 참 잘되었구나. 왕복 비행기 표 값을 부쳐줄테니 방학동안 집에 왔다가려므나.” 이 편지를 받고 나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왕복권이라니! 왕복권은 필요없어. 편도권만 있으면 돼!” 나는 울며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어느날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돌아가서 어머니께 편지를 써야겠다는 강한 열망이 일어났다. 그때 문득 발을 깔고 있는 농부를 보게 되었다. 그 순간 갑자기 주의 말씀이 들려 왔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치 번개가 나를 치는 것 같았다. 나는 온몸이 감전된 것 같은 것을 느끼며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펜을 잡고 어머니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집에 가려고 할 경우 편도권을 원했다는 것과, 주께서 방금 눈에서 나를 만나 주신 일과, 내 손을 쟁기에서 놓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고백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주께서는 내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당신 명령대로 무슨 일이 있든 중국에 남도록 도와주셨고 케이프코드 모랫가에서의 첫 헌신을 기억나게 해주셨다. 나는 주의 임재와 나를 떠나지 않고 한 걸음씩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한번 깊이 확신하였다. 뒤돌아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았다.

(「다른 행진곡, 조이선교회」 중에서)

그들은 어디에 살며 어떤 언어를 사용하나? (II)



바이족(白族)

바이족 [白族 Bai]

인구 및 분포

인구 약 백 6십만여 명의 바이족은 80%정도가 운남성 대리 바이족 자치주(雲南省 大理 白族自治州) 내에서 거주하며 그 나머지는 사천성 양산 이족 자치주, 귀주성과 호남성 등지에 거주한다.

언어

바이족은 고유의 언어가 있으며 한장어계 장면어 이어(漢藏語系 藏緬語 彝語)지파에 속한다.

바이족과 한족은 오랫동안 왕래하여 바이족 언어 중에는 대

량의 한어어휘가 포함되어 있다. 바이족은 한자를 빌어 바이어(白語)를 쓴 적이 있어 “漢字白族”이라 불리웠으나 서로 통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한문을 사용한다.

하니족 [哈尼族 Hani]

인구 및 분포

인구 약 백3십만여 명의 하니족의 주요 거주지는 운남성 남부의 광활한 산지지역으로, 원강, 흑강, 홍하, 연춘, 금평, 강성 등이다. 그 외 무량산(無量山) 구역의 난창, 서쌍판남 등지에 거주하며 연권, 쌍백, 곤명, 석병 등 십여 도시에도 드문드문 흩어져 살고 있다.

언어

하니어는 한장어계 장면어족 이어지파에 속하며 이어, 리수어, 라후어, 나씨어와 비교적 가깝다. 哈雅, 碧卡, 豪白 3가지 방언이 있는데 방언 사이의 구별이 매우 많아 서로 통하지 않는다.

하니족은 본래 문자가 없었는데 1957년 중공정부가 라틴 알

파벨 형식으로 哈尼文을 만들었다.

다이족 [傣族 Dai]

인구 및 분포

인구 약 백 3만여 명이며 주요 거주지는 운남성 서쌍판납 자치주, 덕굉 태족 경족 자치주 그리고 경마, 원강, 신평 등의 자치현이며 그 나머지는 금평, 경곡, 경동 등에 분포 거주하고 있다.

언어

다이족은 고유의 문자와 언어가 있으며 한장어계 쩡똥어족 좡다어지파에 속하며 3가지 방언 태유어(西雙版納), 태나어(德宏州)와 태봉어(孟運邊境)로 분류된다.

다이족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4종류의 다른 형식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자는 태나문, 태력문, 태봉문, 태서문이라 불리워진다. 이 4종류의 문자는 모두 인도자모의 변화에서 온 것이며 범문, 태국문, 미얀마문, 캄보디아문과 같은 체계에 속한다.

리쑤족 [傣族 Lisu]

인구 및 분포

인구는 약 58만여 명, 주요 거주지는 운남성 서북부 노강 리쑤족 자치구 구역의 누강, 북공, 공산, 노수 및 난평 각 현이다. 그 나머지는 유경 장족 자치주, 대리 빠이족 자치주, 려강지역

초옹 이족 자치주, 덕홍 다이족 징뽀족 자치주, 운남성 곤명시, 사천성 반지화시 근교, 량산 이족 자치주 등 일대에 흩어져 있다. 누강 리쑤족 자치주내에 약 20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언어

리쑤어는 한장어계 장면어족 이어지파에 속한다. 과거에는 극소수의 리쑤족만이 한어를 사용했으나 중공정부 수립 이래로 학교교육을 통해 지금은 일반 리쑤족 청년들이면 누구나 한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리쑤족은 3종류의 문자를 사용했었다.

첫 번째는 20세기 초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설계한 라틴 알파벳을 크게 쓴 문자인데 선교사들은 이 문자로 신약전서를 번역했다.

두 번째는 격자를 모양의 병음문자인데 다른 선교사들이 설계한 것으로 보여진다.

세 번째는 운남성 유경 장족 자치주 유서현 농민들이 스스로 만든 음절문자이다.

1957년 중앙정부가 각지의 리쑤어를 조사하여, 라틴 알파벳 병음으로 된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주었다.

라후족 [拉祜族 Lahu]

인구 및 분포

인구 42만여 명이며 주요 거주지는 운남성 난창강 서쪽 난창

라후족 자치현과 맹련 라후족 외족 자치현이며 소수는 인근의 서쌍판납 다이족 자치주, 홍하 하니족, 리족 자치주 및 옥계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언어

라후어는 한장어계 장면어족 이어지파에 속하며 라후나, 라후씨, 라후푸(拉祜納, 拉祜西, 拉祜普) 3대 방언으로 구분된다. 일반 라후족은 한어와 다어를 사용한다.

과거 라후족은 문자가 없었으나, 20세기 초기 서방 선교사들이 라틴 알파벳 병음문자를 만들어 일부 지역에서 통용했다.

1957년 정부는 이 문자들을 개혁하여 새로운 라후문을 만들었다.

와족 [佤族 Wa]

인구 및 분포

인구 약 35만여 명이며 주요 분포지는 운남성 서남부 창윈, 서맹, 난창, 맹련, 쌍강, 영덕, 진강 등의 산간지역 혹은 반(半) 산악지역에 흩어져 있다. 일부는 서쌍판납, 덕굉, 보산 및 사아둥지의 산악지역에 흩어져 살기도 하다.

언어

와족어는 남아어계 명꾸면어족 와어지파에 속하며 布曉, 拉佤, 佤 3종류의 방언이 있다.

1957년, 중공정부는 布曉를 기초로 라틴 알파벳 병음 문자



밭일을 따는 아창족(阿昌族) 여인들



와족(佤族)



나씨족(納西族)의 주택

를 창조했다.

나씨족 [納西族 Naxi]

인구 및 분포

인구 약 28만여 명의 나씨족 주요 거주지는 운남성 령강 나씨족 자치현이며 그 나머지는 운남성의 중순, 녕량, 유서와 사천성의 염원, 목리 및 서장 자치구 망강 등의 현에 분포되어 있다.

언어

나씨어는 한장어계 장면어족 이어지파에 속하며 장어, 빠이어, 이어, 하니어와 비교적 가깝다. 나씨족은 2가지 문자를 모두 사용하는데 하나는 상형 문자인 「東巴文」이며, 또 하나는 음절 문자인 「哥巴文」으로서 1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1957년 중공정부가 나씨족을 위해 라틴 알파벳 형태의 문자를 설계했다.

징포족 [景頗族 Jingpo]

인구 및 분포

인구 12만여 명인 징포족의 주요 거주지는 운남성 덕굉 태족 경파족 자치주, 용천, 내강, 로서, 서려, 량하 등 다섯 현의 경내이며, 소수는 노강 리쑤 자치주 임창지역의 강마 태족 외족 자치현, 그리고 사아지역의 난창현등에 거주하고 있다.

언어

징포어는 한장어계 장면어족 징포어 지파에 속하는데, 징포어족 내에는 서로 다른 언어지파가 있다. 중국 내 징포어계는 경파, 재와, 라기, 량아 등이 있으며 방언의 차이가 매우 크다.

징포족은 원래 문자가 없었으나 20세기 초에 서양선교사 요한슨 부부가 징포족을 위해 라틴문자로 징포어족 문자를 만들었다.

1957년 중공정부는 이 문자를 개혁해서 오늘날 통용되는 문자를 만든 한편, 또 재어(載語) 지파를 위해 병음문자를 만들기도 했다. 최근에 운남민족출판사는 이 두 문자로 많은 서적을 출판하고 있다.

뿌랑족 [布朗族 Bulang]

인구 및 분포

인구 8만3천여 명이며 주요 거주지는 운남성 서쌍판판 태족 자치주이며 대부분 뿌랑산과 서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외는 임



뿌랑족(布朗族)

창지역의 쌍강, 진강, 강마와 사아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언어

뿌랑어는 남아어계 맹고목어족 덕앙어지파에 속한다.

고유의 문자는 없이 한어, 다이어와 와어를 곁해서 쓰고 있으며 일부의 사람들이 한문 다이를 알고 있다.

푸미족 [普米族 Pumi]

인구 및 분포

인구 3만여 명의 푸미족은 운남성 란평현, 려강 나씨족 자치현, 유서현, 영등현과 녕랑 이족 자치현 그리고 사천성 서쪽의 목리장족 자치현 염원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언어

푸미어는 한장어계 장면어족 치앙어(羌語)지파에 속하며, 두 종류의 방언으로 구분되나 별 차이가 없어 기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자는 한문과 장문(藏文)이나 젊은층은 한어, 한문을 많이 사용한다.

아창족 [阿昌族 Achang]

인구 및 분포

인구 2만8천여 명의 아창족은 운남성 덕홍 다이족 징포족 자치주 룡천현의 호철, 랍살과 양하현의 차도, 대장 등지에 살며 그 외는 대리, 옥계, 초웅, 서쌍판판 등지에 흩어져 있다.

언어

아창어는 한장어계 장면어족에 속하며 梁河, 戶撒 두 종류의 방언이 있다. 본족 고유의 문자는 없고 대부분 한문을 사용한다.

누족 [怒族 Nu]

인구 및 분포

인구 2만 7천여 명의 누족은 운남성 남노강 울리족 자치주의 백강, 복공, 공산 세 현에 거주한다. 소수는 유경 장족 자치주 유서현 내에 거주하고 있다.

언어

노어는 한장어계 장면어족에 속하고 본족 고유의 문자는 없으며 방언의 차별이 커서 서로 언

어가 통하지 않는다.

지누어족 [基諾族 Jinuo]

인구 및 분포

인구 1만 8천여 명의 지누어족은 운남성 서쌍판납 다이족 자치주 경공현에 분포,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산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언어

지누어어는 한장어계 장면어족 이어지파에 속한다. 본족의 문자가 없고 한어와 한문을 통용한다.

더앙족 [德昂族 Deang]

인구 및 분포

인구 1만 6천여 명이며 운남성 덕굉 다이족 징포족 자치주와 진강, 강마, 영덕, 보산, 난창 등 현에 흩어져 살고 있다.

언어

더앙족은 본족 고유의 언어를 갖고 있다. 남아어계 맹고먼어계 태봉어지파에 속하는 더앙어는 布雷, 汝買, 若進 3가지 방언이 있다.

문자는 없으며 많은 사람이 한어, 다이어 혹은 징포어를 사용한다.

두롱족 [獨龍族 Dulong]

인구 및 분포

인구 5천8백여 명 중 90% 이상

이 운남성 노강 울리족 자치주 공산 두롱족 노족 자치현의 두롱강 연안에 거주하며 약 10%는 공산현 북부의 노강변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언어

두롱어는 한장어계 장면어족 징포어지파에 속하며 공산 노족언어와 기본적으로 통한다. 고유 문자는 없다.

이족 [彝族 Yi]

인구 및 분포

인구 6백 6십만여 명이며 사천 량산 이족 자치주, 운남 초웅 이족 자치주, 홍하 하니족 이족자치주, 귀주성 육반수 지역과 광서 장족 자치구의 서북부에서 주로 거주한다.

언어

이어는 한장어계 장면어족 이어지파에 속한다. 6개 방언구역이 있으며 각 구역마다 여러 종류의 방언 및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방언들은 비슷한 역사적 연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어는 유사하다.

彝文은 오래된 음절문자로 나나문(羅羅文), 이경(夷經), 제문(題文) 등이라 불려졌는데 지금은 '老彝文'이라 하여 사천, 운남, 귀천, 광서 등지의 이(彝)구역에서 통하고 있다.

이족은 풍부한 문학을 지니고 있다. 이문으로 씌여진 풍부한

고 다채로운 서적이 있으며 그중 역사, 지리, 종교, 철학, 의학, 농업기술, 천문 및 풍속 등에 관련된 책이 많다. 몇 가지 원인에 의해 사천, 운남, 귀천, 광서성 이(彝)구역의 문자 발음과 해석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1974년 정부의 지원과 보조로 이문규범식방안(彝文規範式方案)을 정하여, 사천성 이문자에 대한 문법을 정리하여 사천지구에 보급했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 운남, 귀주 등에서도 비슷한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이족지역의 소학교, 중학교에서는 모두 이문으로 가르치고 있다.

투지아족 [土家族 Tujia]

인구 및 분포

인구 5백7십만 명이며 주요 거주지는 호남성 상서 투족 미아오족 자치주이며 호북성 악서 투지아족 미아오족자치주, 사천성 석주, 수산, 서양, 검강 및 인강 등이다.

언어

투지아어는 한장어계 장면어족에 속한다 (언어지파는 정하지 못했다).

청조 이래 한어를 사용하는 투지아족은 날로 증가하는 데 반해, 투지아어를 배우는 사람은 날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 90%이상의 투지아족이 한어를 사용하며 일부 소수인들이 투지아어를 쓴다. 투지아족

은 고유의 문자가 없어 한문을 통용하고 있다.

창족 [羌族 Qiang]

인구 및 분포

인구 20만여 명의 창족 주요 거주지는 사천성 가패 장족 창족 자치주의 무한, 문천, 의현, 흑수, 송번이며 감목 장족 자치주의 단파, 금양시의 북천 등의 현이다.

언어

창어는 한장어계 장면어족 창어 지파에 속하며 남, 북 두 지역의 두 개 방언으로 구분된다.

거주지는 광서성 쭈앙족 자치구, 운남성 문산 쭈앙족 미아오족 자치주, 광둥성 운산 쭈앙족 요족 자치현 등지며, 그 나머지는 귀주성 검동남 미아오족 땡족 자치주·현과, 호남성 강화요족 자치현 이외에도, 전국 각성, 시,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다.

언어

쭈앙어는 한장어계 쭈앙땡어족 쭈앙다이어 지파에 속하며, 남북 2대 방언으로 구분되지만 문법 구조, 기본 어휘는 거의 비슷하다. 본족 고유의 문자는 없으나 약 2천년 전 어떤 이가 한자로 쭈앙족의 민요를 기록하고



두룽족(獨龍族)



쭈앙족(壯族)

본족 고유의 문자는 없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문을 통용해 왔다.

쭈앙족[壯族 zhuang]

인구 및 분포

인구 1천5백50만여 명이며 주요

창작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서기 7세기 당나라 시대, 한족, 쭈앙족의 지식인들이 한자의 규범을 빌어 쭈앙어음과 일치되는 사각모양의 ‘壯字’를 창제했는데 이것을 토속자(土俗字)라 부른다. 그러나 필획이 너무 복잡해 사용하기 불편하여 통용되지는 않았다. 1955년 중

양정부는 쭈앙족을 위해 라틴 알파벳을 기초로 병음문자를 만들었고, 1978년 다시 수정하여 현재 이 병음문자가 쭈앙족 가운데 보급되고 있다.

미아오족 [苗族 Miao]

인구 및 분포

인구 7백 4십만여 명이며 주요 분포지는 귀주, 운남, 호남, 사천, 광서, 호북, 광둥성 등지이다. 51% 이상의 미아오족이 귀주에 거주한다. 주로 묘령산맥과 무릉산맥에서 살고 있으며 검둥 남미아오족 똥족 자치주가 가장 넓은 거주지역이다. 그외는 호남 상서 투지아족 미아오족 자치주, 운남 문산 장족 미아오족 자치주, 사천 배륙, 의보지역, 호북 악서 토가 미아오족 자치주 등지에 상당수의 미아오족 인구가 살고 있다.

언어

미아오어는 한장어계 미아오어족 미아오어지파에 속하며, 상서, 검둥, 주검진 3대 방언이 있다. 이것은 또다시 작은 방언과 사투리로 구별된다.

상서방언은 동부방언이라고도 하는데 상서 토가족 미아오족 자치주와 검둥 송도 미아오족 자치현 등지에서 통용된다.

검둥방언은 또 중부방언이라고도 하며 검둥 남미아오족 똥족 자치주, 광서 용수 미아오족 자치현, 검서북 뿌이족 미아오족 자치주에서 통한다. 주검진

방언이라고도 하며 귀주와 운남 전역, 월남 등지에서도 통한다. 오랫동안 분할되고 서로 내왕하지 않아 3대 방언은 서로 통용되지 않는다.

1957년 영국의 선교사 보거리 목사가 미아오족의 신도들과 합작하여 라틴 알파벳으로 미아오족의 문자를 창조하고 성경을 번역하였는데, 이것이 주검진 방언 지역의 백성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1957년 중공정부는 다시 라틴 병음문자를 만들었다.

뿌이족 [布衣族 Buyi]

인구 및 분포

인구 2백5십만여 명의 뿌이족은 귀주성 검남 뿌이족 자치주 및 안순 등지에 거주하며 나머지는 검둥남, 검서북에 흩어져 살고 있다. 계곡 또는 산과 물을 끼고 있는 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언어

뿌이어는 한장어계 쭈앙똥어족 장다이어 지파에 속한다.

본족 고유의 문자가 없어 줄곧 한문을 사용했다. 정부의 협조로 1956년 라틴 알파벳을 기초하여 문자를 만들었다.

똥족 [侗族 Dong]

인구 및 분포

인구 2백50만 명이며 주요 거주지는 귀주성 검둥 남미아오족

자치주, 광서성 삼강 똥족 자치현, 그리고 호남성 신평 똥족 자치현 등지이다.

언어

똥족은 본족 고유의 문자가 있으며 한장어계 장똥어족 똥쑤어어지파에 속한다. 남, 북 2가지의 방언으로 구분되며 방언은 또 3개의 토어구로 나뉜다.

과거 똥족은 본족의 문자가 없었기에, 1958년 정부가 알파벳으로 侗文을 만들도록 협조하였으나 아직까지 넓게 통용되지는 않고 있다. 대부분 한어를 사용한다.

야오족 [瑶族 Yau]

인구 및 분포

인구는 2백십만여 명이며 광서, 호남, 광둥, 운남성 등에 고루 거주하는데, 광서 장족 자치구에 사는 인구가 가장 많아 야오족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언어

야오족은 각기 다른 명칭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계로 나뉜다.

▷ 「勉」 지파-언어는 미아오어족 야오어지파에 속한다.

▷ 「布努」 지파-언어는 미아오어족 미아오어지파에 속한다.

▷ 「粒珈」 지파-언어는 장족어족 동수어지파에 속한다.

▷ 「柄多優」 지파-평원지역에 거주하며 언어는 한어에 가깝다.

4가지 야오족언어 중 「勉」지와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가장 많다(전국 야오족의 7%를 차지). 또 한족, 장족 등과의 접촉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한어 또는 장어를 겸용하고 있다. 본족 고유의 문자는 없다.

겔라오족 [仡佬族 Gelao]

인구 및 분포

인구 44만여 명이며 귀주성 서부의 직급, 검서, 육기, 관령 등 20여 현에 흩어져 있으며 소수는 광서 장족 자치구 룽림 각종 자치현과 운남성 문산 장족 미아오족 자치주의 광서, 문산, 부녕, 마관 등 현에 분포되어 있다. 고루고루 분산되어 기타 다른 민족과 섞여 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언어

겔라오어는 한장어계에 속한다. 각 지방 방언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심지어 같은 현의 겔라오족 사이에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편적으로 한어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미아오어나 이어, 뿌이어를 사용하고 약 25%의 겔라오인 만이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한다. 고유의 문자는 없고 한문을 통용한다.

쑤이족 [水族 Shui]

인구 및 분포

인구 35만 명이며 주요 분포지

는 귀주성 뿌이족 자치주의 3都수족 자치현과 귀주 동남 미아오족 좡족 자치주의 용강, 여평, 종강, 마강, 개리 등 현이다.

또한 소수는 광서 장족자치구의 의산, 남단, 환강, 하지 등 현에 분산되어 있다.

언어

쑤이어는 한장어계 쑤앙똥어족 똥쑤이어지파에 속한다.

쑤이족에게는 옛 문자로 쓰여진 [水書]라는 책이 있는데 그 특징은 ▷형상글자가 비교적 크고 ▷한문의 갑골문, 금문과 비슷하며 ▷한자의 변형된 글자도 있고 ▷수백 개의 단어만 일상 생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종교생활에 한에서만 사용하고 무당 등 계급의 사람만이 장악할 수 있다.

쑤이족은 한문을 통용한다.

무라오족 [仫佬族 Mulao]

인구 및 분포

인구 16만 명의 무라오족은 인구의 90%가 광서장족자치구의 나성현에 거주하며 그 나머지는 나성현 부근의 의산, 유성, 도안, 근성 등 현에 흩어져 산다.

언어

무라오어는 한장어계 쑤앙똥어족 똥쑤이어 지파에 속한다.

한족, 장족과 왕래가 잦아 대부분의 무라오족은 한어와 장어 사용이 가능하다. 본족 고유의 문자는 없고 한문을 통용한다.

징족 [京族 Jing]

인구 및 분포

인구 1만9천여 명이며 주요 거주지는 광서장족자치구 방성 각



쑤이족(水族)

족 자치현 강평향의 만미, 무두, 산심 3개 작은 섬에 살고 있어 '京族三島'라는 별칭으로 불리운다.

언어

징족어는 월남어와 기본적으로 서로 유사하다. 과거에는 한자를 개량한 자남문(字喃文)을 사용하였는데 지금도 산가초본(山歌抄本)과 종교경전 가운데서 볼 수 있다. 현재는 광동방언과 한문을 통용하고 있다.

리족 [黎族 Li]

인구 및 분포

인구는 약 110만 여 명이며 주요 거주지는 해남성 중남부의 왕중현, 백사현, 창강현, 동방현, 낙동현, 능수현, 보정현, 통계시, 삼아시 등이고, 그 나머지는 해남성 각 현에 흩어져 있다.

언어

리어는 한장어계열 주앙 똥어족 리어갈래이다. 각 지역마다 다른 방언이 존재하며 문자는 없다. 표준한어와 한문을 통용한다.

1957년 중공정부는 리족이 사용하도록 라틴 알파벳 형식의 병음문자를 개설했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

씨족 [畬族 She]

인구 및 분포

인구는 63만 명이며 주로 복건,

절강, 강서, 안휘 등 다섯 개 성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중 90%가 복건, 절강 2개 성에서 한인(漢人)과 섞여 거주하고 있다.

절강성 내에 경녕 씨족자치현이 있다.

언어

고유의 언어를 갖고 있다. 씨어는 한장어계 미아오 야오어족 미아오어지파에 속한다. 두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하나는 인구의 0.4% 정도(광둥 혜장, 해풍, 증성, 박라 일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씨족이 사용하는 뿌누어(布努語)이다 (뿌누어는 미아오어족 미아오어지파에 속한다). 나머지 99%는 한어 객가 방언의 일종을 사용하는데 어음(語音)은 객가어(客家語)와 구별되며 소수의 어휘 또한 객가어와 차이가 있다.

씨족은 고유의 문자는 없고 한문을 통용한다.

까오산족 [高山族 Gaoshan]

인구 및 분포

약 40여만 명의 까오산족 중 10만여 명은 이미 한족화되었다. 이들은 주로 대만 본도의 산지와 동부 해안 종각 평원과 란산 여도에 거주하지만 소수의 까오산족은 복건, 상해, 북경 무한 등지에도 흩어져 있다.

언어

까오산족의 언어는 남도어계에 속하며 '馬來'라 부르기도 한



까오산족(高山族)

다. 폴리네시아어계 인도네시아어족에 속한다. 모두 22종류의 언어가 있으며 각 언어 사이의 차이가 복잡하여 언어, 어휘, 어법간의 차이가 비교적 크나 다음절은 성조가 없는 점착어(黏着語)에 속한다.

본족의 문자는 없다. 네덜란드 통치시기에 선교사들이 라틴 문자로 까오산어를 쓴 적이 있으나 지금은 유실되었다.

고산족은 한인과 섞여 살아와서 한어와 한문을 많이 쓰고 있다.

(『誰來關心我?』중에서)

번역:이성철(중국어문선교회 회원)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경제관계 전망

張庭延

1993년 중국경제의 발전현황

지난 1993년 중국경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다. 오늘날의 중국정세를 '성장하고 있는 경제, 안정되고 있는 정치, 단합하고 있는 민족, 전진하고 있는 사회'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중국경제의 발전 특징

첫째, 중국경제는 계속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통계에 의하면 작년도 중국의 경제성장속도는 13.4%에 달했으며, 그 중 농업 생산은 4%, 공업 생산은 21.1%의 신장이 실현되었다. 국내총생산(GDP)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3조억 원 인민폐(약 5,263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양곡 총생산량은 4,564억 Kg과 철강 총생산량은 8,868만 톤으로서 모두 역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격동하는 국제 환경과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 중국이 이룩한 성과는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둘째, 개혁·개방 사업은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에 따르는 요구에 의하여 여러 면에서의 개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유경제와 집단경제가 발전되는 동시에 사영경제와 외국자본의 경제도 지속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

다. 가격개혁 면에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였는바, 양곡 구매 및 시중 판매 가격에 관한 규제를 풀었고, 철강재 및 석탄의 공장 출하 가격에 대한 규제도 풀었으며, 그리고 원유 가격에 대해서도 조정을 했다.

현재 국가지령성(國家指令性) 계획에 의한 생산은 5% 내외에 불과하며 국가가 직접 통제했던 722종의 상품을 30종으로 축소시켰다. 일반상품 소매 총액 중 국가가 직접 가격을 정하는 부분은 5% 미만이며 그 외에 농산품의 90%, 생산재의 85%가 시장 기능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대외개방 사업이 계속 확대되어 대외개방 지역의 총면적은 5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같은 지역에 사는 인구는 3억 2천만 명에 달한다. 1993년 말 현재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는 모두 17만 4천건에 2,172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실제 외자 수입액 6백억 4천만 달러에 이른 것이다.

그 중 1993년에 새로 투입된 부분은 8만 3천건에 257억 6천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지난 1년 동안에 끌어들이는 외자는 1978년 이후 14년의 외자 도입 총액에 맞먹는 것이다. 수출입 총액도 전년대비 18.2% 증가한 1,957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 중 수출은 8% 증가한 917억 7천만 달러이며, 수입은 29% 증가한 1,039억

5천만 달러였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열한 번째 가는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수출 상품 중 공산품 및 완제품 비중이 상승되었으며 제품 가공 수준도 향상되었다.

셋째, 과학연구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기초 연구사업과 응용기술 연구사업이 순조롭게 진전되어 지난 1년 간 3만여 건의 과학연구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구 성과의 상업화 및 산업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넷째,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 물가 상승 요인을 제외한 불변가치로 계산하면 도시민들의 소득은 10.2%가 증가되었고, 농어민 소득도 평균 3.2%가 증가되었다. 주택건설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어 도시에는 2억 7천만평방미터, 농촌에는 5억 7천만평방미터의 주택이 신축되었다.

중국 도시주민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 도시주민들의 식품 소비 수준은 이미 국제 평균치에 달했으며 복장과 일용품의 소비 수준은 중진국의 평균 수준에 도달했다. 또한 내구성 소비품의 보유량도 일본의 1970년대 수준과 비슷하여 ‘소강상태(小康狀態, 중류 생활 수준)’에 앞당겨 진입하였다.

중국경제 발전에 대한 평가

지난 1993년에는 세계인들이 중국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중국의 개혁·개방 사업과 경제건설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불과 몇년 전에 동유럽의 극변과 구소련의 해체로 어떤 사람은 ‘중국와해설(中國瓦解說)’을 유포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붕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욱 발전하고 장대해졌다. 지금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와 평론가, 그리고 정치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경제실력과 발전전망에 대하여 우리 자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경제건설 사업은 눈에 보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상하이(上海市) 전경



현재 중국은 등소평에 의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이론이 정립되었다.

보다 더욱 낙관적인 평가와 예측을 해 주고 있다. 비단 이러한 평가와 예측은 실제 상황에 부합되지 않지만 결국은 한 측면으로부터 세계가 중국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아는 바와 같이 지금 등소평(鄧小平)에 의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이론이 정립되었고, 강택민(江澤民) 주석이 핵심이 되는 중국 제3대 영도체계가 형성되어 이론과 조직면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보장해 주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중국의 발전 전망에 대해 자신을 가지고 있다. 아래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모두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그 하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중국 위협설(中國威脅說)'을 유포하고 있는데, 물론 대다수 사람들은 중국의 실정을 잘 몰라서 한 것이지만 극소수 사람들에 의한 그 유포 목적은 중국과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중국의 양호한 주변환경을 파괴하려는 데 있다. 중국의 발전은 아무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 정부가 시종일관 자주 독립의 평화적인 외교정책을 실시하여 세계평화 수호와 각국 공동발전의 촉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상호의 주권존중, 영토의 보완,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의 원칙을 기초로 해서 국가와 국가간의 평화안정, 공정, 평등의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패권주의(霸權主義)와 강권정치(強權政治)를 반대한다. 중국은 외국에 파견한 한 명의 병사도 없으며, 또한 어떠한 군사기지도 갖고 있지 않다. 중국은 세계 대국 중에서 군비가 가장 적은 국가이며, 중국의 유한적인 국방역량은 완전히 방어와 자위를 위한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아무리 발전된다 하더라도 남을 위협하지 않고 평화공존의 5원칙의 기초 위에서 각국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또 하나는, 중국 동서부 지역의 발전 불균형으로 인한 중국의 '분화(分化)'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의 경제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발전의 불균형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경제의 급속 성장으로 최근 몇 년 간 중국 동서부 지역의 격차가 커졌지만 서부 지역도 가

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고,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이러한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994년 중국경제의 발전전망

발전기회를 정확히 포착하여 개혁을 심화시키고, 개방을 확대하고 발전을 촉진시키며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발전과제다. 즉, 개혁, 발전, 안정의 3자 관계를 조화시키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1994년도 중국 국민경제의 발전추세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개혁은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며, 경제는 계속 빠르고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다.

개혁 사업은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은 금년내 여러 중대한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년도 개혁의 주요 과제는 현대기업제도의 도입과 세제·금융·투자·대외무역제도의 개혁이다. 개혁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오늘날의 중국 개혁은 제일 어렵고 제일 도전적이며, 제일 희망찬 '공략단계(攻略段階)'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현대기업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현대기업제도의 도입은 시장경제 요구에 부응하고 재산권이 분명하며, 책임과 권리가 명확하고 정부 기능과 기업 기능이 분리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경영 관리하는 기업을 건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것은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이다.

그 구체적인 조치로는, △ 경영 상황이 좋고 이윤이 많으며 국가 산업정책에 부

합하는 일부 대기업을 국가에서 주식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주식회사로 개편하고, △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고 경쟁력 있는 대부분 기업을 국가와 기타 여러 법인이 출자하는 유한공사(有限公司)로 만들며, △ 특수 업종의 기업을 국가에서 단독 투자하는 유한공사(有限公司)로 개편하게 된다. 또한, △ 기타 소형 국유기업에 대해서 임대, 청부, 판매, 주식회사 등의 방법으로 개편하며, △ 장기적으로 경영상태가 나쁘고 상품판매가 부진하여 자본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 개편할 방법이 없는 일부 기업에 대해 법에 의한 파산조치를 시행한다.

재무와 세제 개혁에 관하여: 재무와 세제 개혁의 주요 내용은 세법을 통일시키고 세금부담을 공평하게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입 분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금융체제 개혁에 관하여: 금융체제 개혁의 주된 임무는 국무원 영도하에 독립적으로 국가 화폐정책을 집행하는 중앙은행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책은행(國策銀行)을 새로 건립하고 기존의 전업은행(專業銀行)을 시중 상업은행으로 바꾸는 등 은행의 정책성 업무와 상업성 업무의 분리를 시행한다.

투자체제 개혁에 관하여: 투자체제 개혁의 주요 임무는 투자 종류와 영역에 근거하여 투자주체와 책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인투자와 은행대출의 책임의식을 수립시킨다.

대외무역체제 개혁에 관하여: 대외무역체제 개혁의 주된 임무는, △ 이중외환환율을 통일시키고 수출기업이 종전에 유·무상으로 국가에 외환을 바치던 의무를 취소시키며, △ 상품 수출시의 세금반환 제도를 개선하고, △ 수출입 상품 규제를 풀고 지령성(指令性) 수출입 계획을

취소시키며, △ 수출입 쿼터(配額)에 해당되는 상품을 점차적으로 공개입찰(招標)·경매 혹은 규범화된 분배로 관리하고, △ 현대기업제도의 요구대로 국유 대외무역기업을 개편하며, △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중국 내수시장(內需市場)을 점차적으로 개방해 주는 것이다.

시장체제의 보완에 관하여: 시장체제의 보완을 위하여 가격개혁을 계속 추진시켜 빠른 시일내에 생산재의 이중가격 체도를 취소시킨다. 국가에서는 금융, 인력, 부동산, 기술 및 정보 시장을 중점적으로 육성시킬 방침이다.

중국경제는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1994년도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는 9%로 예정되어 작년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그 원인은 연속 2년 간의 쾌속 경제 성장으로 국민경제가 여러 면에서 긴장되어 교통과 에너지 등에 있어 병목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 속도를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것은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1994년도 중국경제의 우선 과제를 산업구조조정과 경제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둔다. 중점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의 기초 지위를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전면 발전시킨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여 농업의 기본건설과 종합개발사업을 촉진시키는 한편, 양곡 및 면화의 수매 가격을 적당한 선으로 인상시킨다.

둘째, 경영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공업 생산과 교통 운수 사업을 발전시킨다.

특히 국유 대형 및 중형기업의 생산 경영 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적당한 투자규모를 유지하여 투자구조를 합리화시킨다. 교통, 통신, 에너지, 중요한 원자재 공업 및 치수 사업을 중점 건설한다.

넷째, 대외개발사업을 확대하여 대외 경제교류를 증대시킨다. 경제특구, 상해 포동신구(上海浦東新區), 연해(沿海)·연변(沿邊) 개방도시 및 내륙 중심도시의 개방사업을 가속화하는 한편, 외국자본을 내륙지역의 농업, 목축업 및 자원 개발사업에 유치한다. 기초산업과 기초시설 건설에 투입된 외국 자본은 더 많은 우대를 누린다. 새로운 외자 도입 방법을 개발하여 외국인 증권투자회사와 신탁투자회사 및 BOT(사회기초시설의 '건설-경영-이전') 방식으로 외자의 도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1994년은 중국에 있어서 '개혁의 해'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고비가 되므로 연초부터 일련의 개혁조치가 등장하고 있다. 그 목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투자환경을 진일보 개선하여 외국자본을 더욱 잘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내국민 대우부여'에 관한 문제이다.

많은 분들이 중국에 진출한 '내국민 기업'의 '외국인 대우'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에 다녀온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원칙적으로 내국민 대우를 향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중국 내국민 기업보다도 더 많은 우대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소득세의 감면 혜택과 수출입 권한의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를 받고 있다.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의 심화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은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차체(車體)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의 모습

조만간 완전한 내국민 우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국민 대우를 부여해 준다고 해서 현재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내국인 기업에 적용되는 정책을 고쳐서 외국인 투자 기업 정책으로의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국인 기업의 소득 세율에 대한 통합과 노동 관리제도의 개혁, 그리고 회계 제도의 개혁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다. 다시 말하면, 내국민 대우의 부여로 지금 외국인 투자 기업이 누리고 있는 우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유리한 조건은 다만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연 자원, 그리고 우수한 기술인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방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

한다. 경제 발전의 가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 중국은 더 많은 세계 우수 기업과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것이다. 한국의 그룹회사들이 중한 경제협력의 선두에 서기를 기대한다. 중국정부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투자기업을 도울 것이다.

중·한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 전망

중·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 나라로서 수교 후 1년여의 기간 동안 양국 관계는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또한,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얼마 전 중국을 공식 방문하였는데, 이는 양국 관계사에 있어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대사였다. 공식방문은 성공을 거두었고, 중국정부와 인민은 이를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중·한 경제 협력 관계의 현주소
세관통계에 의하면 작년 양국의 직접교

역액은 90억 8천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간접교역을 포함할 경우 양국의 교역량은 108억 달러에 달하였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의 세 번째 교역 대상국이 되는 동시에, 한국은 중국의 여섯 번째 교역 대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한국은행 허가(잔액) 기준으로 1,042건에 9억 6천만 달러이며, 이중 1993년 한해 동안 616건에 5억 9천만 달러가 투자되어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총계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국가간에 찾아보기 드문 놀라운 성과였으며, 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 1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대우그룹이 산동성 지역에 3억 달러를 투자한 시멘트 사업과, 금성사가 호남성에 1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한 컬러브라운관 사업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대규모, 다분야, 자본 기술집약형 및 자원개발형의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비록 현단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외국인 대중국 투자 총건수의 0.59%, 총금액의 0.44%만을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저조한 편이지만, 양국은 거리상의 인접성과 문화상의 공동성, 그리고 경제상의 보완성이 있어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많다. 양국간의 수많은 유리한 조건들로 인해 호혜평등의 협력관계는 향후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한 경제 협력의 유리한 조건

첫째,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양국은 공동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약에 직면해 있다. 동서냉전이 종식되고 전통적인 국제정치구조가 와해되면서 세계경제에는 두 가지 새로운 조류가 등장하였다.

그 하나는 국가간의 경제 의존도가 강화되고 협력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른 세

계경제의 일체화이며, 다른 하나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경영환경의 급변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블록화 경향이다. 중한 양국은 아시아 지역의 비교적 안정된 정세와 고속성장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경제 무역 협력의 강화를 통해 양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켜 두 나라 국민의 행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양국의 경제현상과 규모는 경제 무역의 협력확대를 위한 훌륭한 경제적 초석이 되고 있다. 현재 양국은 고속성장 단계에 있으며, 경제발전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중국의 총생산액은 작년에 3조 원을 돌파했으며, 한국도 3,700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1993년 중국의 대외교역 총액은 1,958억 달러이며, 한국은 1,662억 달러로 각각 세계 11위와 12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도 현저히 증가하였다.

셋째, 양국 경제는 서로 발전 단계가 다르고 구조적 상호보완성이 강해 협력 관계의 발전에 무한한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수출입 상품 구조를 볼 때, 현재 중국 대 한국 주요 수출품목은 옥수수, 생사, 석탄, 석유, 의류 등 1차 상품 및 경방공업 완제품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전자, 기계, 철강, 화공약품 등 기술 및 부가가치가 높은 중화학공업 제품이다. 투자협력 부문에서 한국은 현재 산업구조의 조정 단계에 처해 있으며, 중국은 개혁 개방의 심화로 투자 환경이 날로 개선되어 외래 산업의 이전에 따른 흡수능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자원 이용면에서 중국은 국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하다. 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으므로 각기 자원, 자금, 기술, 가공, 관리 등의 부문에서 비교 우위 요소를 발휘해 공동개발에 나선다면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전망

을 볼 때,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개발 도상국으로 경제발전은 필연적으로 종합적인 국력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거대한 잠재시장을 점차 실질적 시장으로 변모시켜 놓을 것이다. 이밖에 과학기술 부문에서도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중 경제협력의 발전 전망

현재 양국간 경제무역협력을 위한 기본 골격은 이미 마련되었으며, 무역·투자보호, 과학기술협력, 해운협력도 이미 발효된 상태다. 2중과세방지협정을 새로 체결하였고, 어업·항공 등에 관한 협정도 협상이 한창 진행중이다.

양국 정상은 작년 11월 시애틀 회동에 이어 이번에 다시 북경에서 만났다. 이번 회동으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발전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앞으로 양국이 중점 산업 분야를 포함한 모든 경

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발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

한국의 기업들이 이런 유리한 기회를 포착하고, 중국과 여러 경제분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주기 바란다. 양국의 공동노력에 의해 상호협력관계가 더욱 빨리 발전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을 도모하여 아시아와 세계경제의 발전에 공헌하리라고 믿는다.

張庭延/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

* 편집자 주: 위 글은 1994년 5월 25일 “도산 조찬세미나”(장소: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세미나를 주최했던 “도산 아카데미연구원”의 승인을 얻고 싶었다.

동역자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국어문선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분은

1. 먼저 본선교회와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기도가 가장 큰 후원입니다.
2. 후원금을 약정하여 매달 혹은 수시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3. 주신 달란트를 드려 손과 발로 떨 수 있습니다.
4.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능이 아닌 성실한 헌신입니다.
먼저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할 일을 찾게 될 것입니다.

중국어문선교회

(Tel. 594-8038, 533-5497, Fax. 599-2786)

변화하는 광서(廣西) 변경 도시의 위험

蔡醒民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곳을 다니며 많은 경험을 해 봤지만, 이곳 광서(廣西) 변경 도시처럼 사람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곳은 내 생애 처음이었다.

이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총을 차고 있어 마치 미국 서부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실제로 언제 어디를 가도 허리에 권총을 감춰 둔 ‘사내’들이 쉽게 눈에 띄는 것은, 이미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 버린 것 같았다. 광서성 변경 도시의 무역활동 지점에서도 역시 이러한 풍경이 연출된다. 무역을 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내지에서 온 상인, 혹은 출장은 사람들인데, 이 변경지역 시내의 도박장에서 이들의 총들로 인한 총격전이 자주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동흥에서 변경수비를 관리하고 있는 이(李)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혼자서 동흥(東興)을 찾는 외지인은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조심해야만 한다. 이곳에서는 총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내가 동흥(東興)과 빙상(憑祥)에 머무는 동안에도 깊은 밤중에 총성으로 잠을 깨 적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중국 대륙과 월남 사이 변경구역에 위치한 항구가 양국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관문이라는 사실은 일반인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우호적인 관계의 중요성은 이곳을 국가급의 개항지로 자리잡게 했다. 중국·월남 변경의 주요 무역경로는, 빙상시의 농요(弄堯)와 포채(浦寨)가 육시로 통하는 관문이고, 동흥은 수로로서 최고의 입지 지역이다.

작년 8월에 준공된 포채 상업가는, 월남 국경선과 지척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매년 명절이나 축제 기간이 되면, 국경을 넘어 온 월남 소녀들이 거리를 지나가는 중국 남자를 붙잡고 짙은 월남발음으로 유혹하여 가격을 흥정한 후 함께 여관으로 들어가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도시의 이발관들은 많은 월남소녀들을 고용하여 호객행위를 하는데, 이들은 손님에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서 변경지역은 기타 다른 지역의 마약과 범죄자들이 월남으로부터 중국으로 유입되는 중간지역이다. 또한 중국대륙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월남으로 도피하여 치안당국에서는 검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변경이 왕래가 복잡하고 경비가 허술한 것을 틈타 비교적 외진 지역의 노선으로 탈출한다.

월남소녀의 몸값은 인민폐 3,000원(미화로 약 346달러)인데, 이들은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와 인신매매 상인을 통해 얼굴을 분장하고 중국 신분증을 발급 받아, 광서에서 광둥 연해 각지(예를 들

어 海豊, 陸豊, 汕頭 등)를 거쳐 홍콩이나 마카오로 다시 밀입국하는 방법을 취한다. 그리고 이들 중 몇은 광동성의 농촌으로 팔려가 농부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혹은 윤락가의 매춘부로 전락하기도 한다.

양국 변경의 거주민과 상인들은 일찍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물물교환의 통상방식을 취해왔다. 현재 인민폐와 월남화폐의 결산으로 중국과 월남을 내왕하는 상인들은 모두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며 현금으로 교역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총을 휴대하고 다녀야만 하는지도 모르겠다.

포채의 상업가에 즐비한 상점 중에는 내륙의 기업집단이 투자한 곳 이외에 외국상인이 투자한 곳도 적지 않다. 상업가에는 호텔, 은행, 카페, 가라오케, 이발소, 도박장 등이 준비하고, 또 도매, 소매상점할 것 없이 모두 중국에서 생산된 일용품, 기성복, 의복, 기계, 자전거, 약재, 과일, 식품, 음료 등을 판매한다. 월남에서 중국으로 들여오는 것은 대부분 뱀, 개 등의 야생동물과 목재같은 토산품이다.

싱가폴 동아시아 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황조한(黃朝翰)은 최근 방콕에서 개최된 4각(미얀마, 태국, 라오스, 중국)협력회의에 참가하여,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개발, 특히 서남지역개발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력을 갖고 행하기를 바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가 중국대륙의 서남지방과 중남지방, 중남반도의 무역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주요원인은 교통의 낙후에 있다.

메콩강의 수위가 낮아지면 강의 일부 지역의 선박 취항은 제한된다. 운남과 미얀마 사이에 설치된 도로는 49년 동안

한 번도 보수를 하지 않았다. 중국과 라오스간의 도로는 월남전 당시 만들어졌으나 20년 동안 보수하지 않았다. 중국과 월남간의 도로와 철도 운송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후에 이러한 교통·기간산업을 보수, 개발한다 해도 이에 필요한 보수, 개발 자금의 출처가 문제된다.

오락장이 많은 것도 광서변경지역의 큰 특징중의 하나이다. 농요, 포채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동흥에만 해도 적지 않은 개방식 오락장이 있는데, 이곳은 보통 전자오락장이 아니라, 돈을 거는 진짜 도박장이다. 내가 도박장에 머무는 시간 내내 떠들썩한 아우성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몇몇 도박장에서는 손님을 끌기 위해 확성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도박장에 들어가니 아이러니컬하게도 벽에 <도박금지> 이라는 큰 글자가 걸려 있었다. 저녁이 되면 인산인해를 이루어 더욱 흥청거린다.

도박장 운영은 째짢한 수입을 보장하는 괜찮은 장사이다. 도박장 주인들은 대부분 홍콩과 마카오에서 온 사람들인데, 어떤 도박장은 간판에 「澳門(마카오)」이라고 써서 걸어놓고 있다. 대만인이 투자한 도박장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대만인들은 현지인과의 합자(合資)를 통해 도박장을 열고 있다.

이곳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도박장을 봐도 못 본 채 그냥 지나치고, 스스로 총명하다고 으스스대지 말기를 바란다. 이 포채 상업거리에서는 도박으로 인한 소동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외지인이 게임을 하다 이기게 되면, 경찰로 가장한 상대방 패거리들이 몰려와 도박장 안의 사람들을 다 내쫓고 돈을 빼앗는다. 상점내의 점원들이 싸움에 말려들기도 하고 거리에서 난투극을 벌이기도 한다. 불량



배들이 가게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와 소란을 피우다가 점원들과 충돌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리지어 몰려와서 공갈, 협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다반사다.

퇴근시간이 되면 빙상에 근무하는 현지인들이 차를 타고 포채 상업거리의 도박장으로 몰려와 상당히 시끄러워진다. 빙상시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용주(龍州), 영명(寧明) 등에서는 도박장으로 사람들을 데려다 줄 전문차량을 준비해 두고 포채를 왕래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내가 만난 한 호송차 운전기사는 다음과 같이 귀띔해 주었다.

“이 일을 하려면 운전기술 외에도 무술에 능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암흑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또한 냉정한 두뇌와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의 말을 들으니 마치 민첩한 국제스파이의 활약상을 보는 것만 같다. 그들의 수입은 한 달 평균 2천 원에서 3천 원에 달한다고 한다.

동흥에서 중·월 양국을 왕래하는 한 화교상인의 말에 의하면, 월남에서 들여오는 총은 6·4 구경 권총이 대부분인데, 가격은 인민폐 1,500원 정도로 동흥에 도착한 이후에야 비로소 돈을 받는다고 한다. 포채와 농요에서 이러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한 자루당 1,000원(인민폐)하는 총을 그 자리에서 받고 현금을 지불한다. 이 지역에서는 주로 신변보호를 위해 총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6·4구경 권총이 가장 인기를 끈다. 다른 사이즈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

한번은 총에 대해 문의한인 내게 “총을 손에 넣을 방법이 있다”면서 한 친구가 다가왔는데, 시간이 지나자 내가 총을 사러 온 사람 같지 않다고 여겼는지 더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이번 여행의 경험은 매우 위험했지만 솔직히 자극적이었다. 이곳을 여행하길 원하지만 아무 요령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나처럼만 하면 된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총만 가지면 범은 휴지나 마찬가지다.

(『亞洲週刊』 94. 3. 27』중에서)

번역/ 時事中文會

중국 상해시의 주요대학



박명수

복단대학 (復旦大學)

Fudan University

학교소개

복단대학은 중국의 애국적인 교육자 마상백(馬相伯)에 의해 설립되었다. 1905년 서양선교사들이 설립한 진단학원(震旦學院, Aurora)이 기독교 교리위주의 학교교육을 한다하여 마상백 등이 학교를 떠나 독립적으로 설립한 복단공학(復旦公學)에서 역사가 시작되었다.

1937년 항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이 학교는 사천성 중경(重慶)으로 이전하면서 국립 복단대학으로 개칭되었다가, 1946년 다시 상해로 복귀할 때까지 문과, 이과, 법과, 상과, 농과 등 5개 학원에 모두 26개 학부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1952년 정부의 대학조정방침에 따라 복단대학은 어문, 역사, 경제, 물리, 화학 등 문리과 종합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법률, 철학, 원자학, 무선전자학, 국제정치학 등 많은 학부가 개설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개설학과

석사과정 (Postgraduate Programs)

-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s

Journalism

History

Economics

World Economy

Interntional Politics

Philosophy

Law

Mathematics

Statistics and Operational Research

Physics

Nuclear Science

Chemistry

Biology

Biotechnology

Electronic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Mateial Science

Applied Mechanics

Light Sources and Illumination

Engineering ·

Management

Economic Management

박사과정(Doctoral Programs)

Ancient Chinese Literature

Chinese Literature Classics

History of Literary Criticism in China

History of Chinese Language

Theory of Art and Literature	Contemporary Philosophy in Foreign Countries
Modern Chinese Literature	Theoretical Physics
Modern Chinese	Solid State Physic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acuum Physics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Optics
Journalism	Nuclear Physics and Nuclear Technology
Ancient Chinese History	Physical Chemistry
Ancient World History	Analytical Chemistry
Historical Geography	Inorganic Chemistry
History of Different Regions and Countries of the World	Virology
Modern and Contemporary World History	Zoology
Political Economy	Botany
History of Foreign Economic Thought	Genetics
World Economy	Semiconductor Physics and Physics of Semiconductor Devices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omputer Software
Dialectic Materialism and Historical Materialism	Polymer Chemistry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Industrial Economy



Basic Mathematics, Applied
Mathematics
Basic Mathematics, Fluid
Mathematics
Basic Mathematics
Computational Mathematics
Operations Research and Cybernetics
Theory of Probability and
Mathematics
Science and Scientific Management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上海市 邯鄲路 220號
復旦大學 國際文化 交流學院 外事處

상해외국어학원 (上海外國語學院)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학교소개

상해외국어학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국가중점대학의 하나로 외국어와 관련된 응용문과학과를 위주로 개설한 다과성 외국어 대학이다.

이 학교의 역사는 1949년 러시아어 교육을 위해 설립한 상해대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설립 당시, 러시아어학과 한 개 학과에 불과했던 이 학교에는 현재 국제언론학과, 국제관계 및 무역학과를 비롯한 11개 학과에 18개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외국유학준비 학생 훈련센터, 대학 외국어교사 양성소, 성인교육반, 병설 외국어학교, 상해외국어시청각 출판소, 미국연구소, 소련연구소, 뉴질랜드연구소, 아랍문화연구소, 라틴아메리카 경제연구소를 부설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 등의 39개 고등교육 연구소와 학술교류협

정을 맺어 교류하고 있다.

문명(文明), 단결(團結), 구실(求實), 분진(奮進)을 교풍(教風)과 학풍(學風)으로 삼고 있는 이 학교는, 학생전원이 모두 외국어를 한가지 이상 능통하게 함으로써 우수한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중국의 일류대학이다.

개설학과

학부 (Departments)

-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in English
 - International Journalism
- Dept.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 Foreign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 Dep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Dep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 Dep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 Dep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 Dept. of Spanish Language and Literature
 - Spanish Language and Literature
 - Italian Language and Literature
 - Portuguese Language and Literature
 - Greek Language and Literature
- Dept. of Arabic Language and Literature



- Arabic Language and Literature
- Dept. of Chinese as Foreign Language
- Chinese as Foreign Language
- Foreign Affairs Management
- Dept. of English Language (II)
- English for Teacher Training
- Dept. of Communications
-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석사과정 (Postgraduate Programs)

-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 Chinese for Foreign Students
- Spanish Language and Literature
- Arabic Language and Literature

박사과정 (Doctoral Programs)

- Comparative Literature
- English Rhetoric
- Modern English Literature

Literary Stylistics
 Russian Grammar
 Linguistics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上海市 西體育會路
 119號 上海外國語學院 外事處

동제개학 (同濟大學)

Tongji University

학교소개

동제대학의 역사는 1907년 독일인 의사 에리히 보롱이 설립한 '동제독어의학당(同濟獨語醫學堂)' 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독일어문학과 의학 등 두 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던 이 학교는 1912년 공학과를 개설하면서 학교이름이 동제의공학당(同濟醫工學堂)으로 개칭되었다가 1927년 국립동제대학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1937년 이학원(理學院)을 설립함으로써 의학과 공학 등 3개의 학원을 설치한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였다.

1952년 정부의 대학조정 정책에 따라 이 공전문의 대학으로 개편된 동제대학은 중국 중동부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1979년부터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탁으로 이 학교에 독일유학 예비학교를 부설한 뒤 지금까지 약 8백여 명의 학부와 대학원생들이 독일로 유학을 떠났으며, 이 숫자는 중국전체 독일유학생 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과 독일간의 과학교류의 중요한 창구가 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세계 20여 개 유명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각종 연구소와의 연구교류도 진행하고 있다.



개설학과

석사과정 (Postgraduate Programs)

- Management Engineering
- Economic Information
- Architecture
- Urban Planning
- Structural Engineering
- Road and Traffic Engineering
- Underground Construction and Geological Engineering
- Surveying
- Environmental Engineering
- Mechanical Engineering
- Electrical Engineering
- Building Materials Engineering
- Marine Geology
- Applied Mathematics
- Applied Physics
- Applied Chemistry
- Engineering Mechanics
- Foreign Languages
- Social Sciences

German

박사과정 (Doctoral Programs)

- Structural Engineering
- Mechanic Engineering Management
- Acoustics
- Marine Geology
- Heat Power Engineering
- History of Architecture and Modern Architectural Theory
- Urban Planning Workshop
- Architectural Design
- Structural Engineering
- Environmental Engineering
- Water Supply and Wastewater Engineering
- Traffic Engineering
- Road Engineering
- Seismic and Engineering
- Inorganic Non-metallic Material
- Geological Engineering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上海市 四平路 1239號
同濟大學 外國留學生處

상해공업대학 (上海工業大學)

Shanghai University of Technology

학교소개

- 설립년도 : 1960년
- 재학생수 : 5,500여명 (유학생 60여 명, 대학원생 380여 명 포함)
- 교직원수 : 826명 (교수 16명, 부교수 159명 포함)
- 소속기관 : 상해시 고등교육국

개설학과

석사과정 (Postgraduate Programs)

Mechanica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Metallurgy and Material Engineering
Industrial Automation
Electronic Computer Engineering
Mechanical Automation and Robotics
Engineering
Chemistry and Chemical Engineering

박사과정 (Doctoral Programs)

Solid Mechanics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上海市 延長路 149號
上海工業大學 留學生辦公室

화둥이공대학 (華東理工大學)

East Chin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학교소개

중국최대의 화학, 공학관련 종합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화둥이공대학은, 1952년 정부의 학원, 학부조정 방침에 따라 화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던 교통대학(交通大學), 대동대학(大同大學), 진단대학(震旦大學), 동호대학(東吳大學), 강남대학(江南大學)의 이공 학부를 합병함으로써 설립되었다.

또한 산둥대학(山東大學)의 화공과와 화남공학원(華南工學院)의 무기물공학과를 합병하는 등 크게 발전하였다.

문화대혁명 기간 상해화학공업대학으로 교명이 개칭되었던 이 학교는 1980년에 이르러 현재의 이름으로 확정되었다. 현재 이 학교에는 19개 학부에 39개의 전공이 개설되었으며, 22개의 석사학위 전공과 8개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20여 개소의 연구소와 실험실, 장서 1백여만 권의 도서관을 부설하고 있으며, 10개국 20여 개 대학, 연구소들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개설학과

석사과정 (Postgraduate Programs)

Chemical Engineering
Biochemical Technology
Chemical Engineering for Energy

Resources

Fine Chemicals Technology
Polymer Materials
Inorganic Materials
Process Equipment
Mechanical Engineering
Automatic Control and Electronic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Management Engineering
 Social Sciences

박사과정 (Doctoral programs)

Chemical Engineering
 Inorganic Chemical Technology
 Organic Chemical Technology
 Fine Chemicals Technology
 Polymer Materials
 Inorganic Nonmetallic Materials
 Chemical Machinery
 Industrial Chemical Automation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上海市 梅拔路 130號
 華東理工大學 留學生辦公室

상해중의학원 (上海中醫學院)
Shanghai 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학교소개

1956년 중국 최초의 중의학원으로 설립된 이 학교는 중의학(中醫學), 침구학(針灸學), 지압학(推拿學), 중약학(中藥學) 등 4개 학부에 18개 전공, 그리고 10개의 석사과정과 6개의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설립 이후 8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온 이 학교는, 특히 침술과 지압 등 전통의술분야 박사학위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3개소의 부설 병원과 기공연구소, 침구연구소, 지압연구소, 노년병연구소 등 11개소의 부설연구소가 있으며, 1975년 세계보건기구(WHO)의 후원을 받아 설립한 <국제침구수련센터(國際針灸培訓中心)>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 학교는 1983년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전통의학협력센터(傳統醫學合作中心)>로 지정되었으며, 미국, 일본 등 외국 대학과 활발한 국제교류를 이뤄 나가고 있다.

개설학과

석사과정 (Postgraduate Programs)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raditional Chinese Pharmacology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assage

박사과정 (Doctoral Programs)

Traditional Chinese Clinical Medicine
 Traditional Chinese Surgery
 Acupuncture and Moxibustion
 Basic Theor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bstracts of <Jingui>
 Theorie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raditional Chinese Pharmacology
 Traditional Chinese Gynaecology
 Integ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Biochemistry)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上海市 零陵路 530號
 上海中醫學院 國際交流處

상해음악학원(上海音樂學院)
Shanghai Conservatory of Music

학교소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상해음악학원의 역사는, 1927년 중국의 유명한 교육가 채원배(蔡元培)와 음

악가 숙우매(肅友梅)가 설립한 국립음악원(國立音樂院)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29년과 1942년에 국립음악전문학교(國立音樂專科學校)와 국립음악원으로 개칭되었다가, 1946년에 다시 국립상해음악전문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1956년 복건음악전문학교와 금릉여자대학 음악부를 병합하면서 지금의 상해음악학원으로 확립되었다.

현재 이 학교에는 6개 학부에 15개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음악연구소, 악기공장 등을 부설하고 있다.

또한 81명의 정.부교수 포함 217명의 교직원과 유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500여 명의 재학생이 연구하고 있으며, 지난 6년간 36개의 국제경연대회 외에도 83개의 국내 음악경연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중국의 3대 음악학원의 하나로 유명하다.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omposition and Conducting

Musicology

Voice

Piano

String and Wind Instruments

Chinese Traditional Music

박사과정 (Doctoral Programs)

Western Musicians and Their Works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上海市 汾陽路 20號

上海音樂學院 外事處

상해체육학원 (上海體育學院)

Shanghai Institute of Physical Culture

학교소개

상해체육학원의 역사는 1952년 남경대학(南京大學), 화북대학(華北大學) 등에 개설되어 있던 체육학부를 합병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설립 당시 화동(華東)체육학원으로 불리어졌던 이 학교는 1956년 지금의 상해체육학원으로 개칭되었고, 1972년에는 화동보통대학과 상해사범학원 등 5개의 대학을 합병하면서 종합대학인 상해보통대학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년 뒤인 1974년에 이전의 교사로 복귀하면서 분리된 이 학교는 1978년부터 상해체육학원이라는 교명을 회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체육과 운동 등 2개 학부에 11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이 학교에는 67명의 정, 부교수를 포함하여 250여 명의 교직원과 1,000여 명의 학부생 포함 1,1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등 중국의 4대 체육대학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Physical Culture

Sports

박사과정 (Doctoral Programs)

Physical Education in School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上海市 楊浦區

清源環路 650號 上海體育學院 外事處

박명수/ 청와대 공보비서실 근무

「해외유학가이드」 저자

계성문화관광 대표(현)

* 편집자 주: 지면 관계상 상해외국어학원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개설학과에 학부과정을 신지 못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원하거나 중국 유학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으신 분은 위 자료를 제공한 박명수씨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el: 778-3773).

삼자교회 지도자 포가원(包佳源)

교회들이 문을 열자 포가원의 아버지는 목회사역을 다시 시작했고 아들에게도 교회에 와서 사역할 것을 거듭 재촉했다.

포가원(包佳源) 주교는 19세기 중반부터 예수를 믿어온 독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1944년 출생하였다. 목사인 아버지와 부흥강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그는 부친의 영향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1962년 남경 연합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 때는 교회의 성장이 미약했던 시기인지라, 1966년 그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등록되어 있는 학생 수는 겨우 19명뿐이었다. 바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문혁기간 동안 교회는 모두 폐쇄되어, 신학교를 졸업한 포가원은 목회 사역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몇년 동안 집에 머물면서 병상에 누운 어머니를 보살피고 드리고 재봉사를 하면서 버는 적은 수입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 나갔다.

홍위병(紅衛兵:1966년에 본격화한 중공 문화대혁명의 추진력이 된 학생 조직)들은 목사인 그의 아버지를 체포해 갔으며, 그의 집안은 살살이 수색되고 모조리 약탈당했다. 그들은 아버

지의 크나큰 서재도 다 불태워 버렸다.

1969년, 포가원의 가족은 다시 시골로 보내어져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이 매우 빈궁한 지방인 강소성(江蘇省) 남쪽의 대봉현에서 6년을 지내는 동안 다른 크리스천들과의 접촉은 전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영문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그나마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1976년 정부의 허락으로 소주(蘇州)에 돌아온 포가원의 가족들은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공장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하던 포가원은 1979년 소주에 있는 중국관광공사(CITS) 지사의 여행가이드로 취직되었다. 이 때부터 그는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교회들이 문을 열자 포가원의 아버지는 목회사역을 다시 시작했고 아들에게도 교회에 와서 사역할 것을 거듭 재촉했다. 중국기독교협회(CCC)에서도 포가원을 중국관광공사로부터 빼



중국 북경의
송문교회 전경

**“내 평생에 학문을
연구할 시간은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나는 항상 일을
해야만 했다.”**

내어 스카우트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계속 실패하였다.

1984년에서 1986년까지 포가원은 쿠웨이트로 파견되어 건축 프로젝트의 통역관으로 일하였다. 그러다 1987년 마침내 CITS의 허락을 받아 남경에 있는 CCC 사무실로 가서 해외관계 업무를 담당하게 된 포가원은 1990년 한 해 동안 48개 세계 각국에서 온 교회 대표단의 중국방문을 기획, 조직하고 동행하느라 분주하였다. 이 외에도 1992년에는 CCC 성경위원회의 서기장으로 일하면서 성경 배급의 감독과 새로 성경을 개정, 번역하는 사업의 중개 역할을 했으며, 캘린더 제작과 Q.T. 교재 등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 22년 만인 1988년, 드디어 포가원은 성직자로 임명을 받게 되었다.

1990년, 스웨덴의 Bossey에 있는 초교파적 기독교 단체 『Canberra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가, “성령이여 오시어 온 세계의 피조물을 변화시키소서”라는 주제로 개최한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포가원은 종종 이렇게 말하였다. “내 평생에 학문을 연구할 시간은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나는 항상 일을 해야만 했다.”

번역/차이나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

불타는 전도자, 뛰어난 부흥강사

송상절 박사는 민국 20년대에 활동했던 중국의 가장 뛰어난 전도자이다.

그는 가는 교회마다 큰 부흥을 일으켰고, 널리 양자강 남북 지역뿐 아니라 동북지역과 중남반도, 남태평양의 화교지역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발자취를 남겼다. 놀라운 열정으로 순회전도와 부흥회 사역을 감당한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그리스도에 계로 돌아왔다. 또한 미지근한 상태에 있던 성도들에게는 큰 부흥을 가져다 주었다. 이것을 본 서양의 한 전기작가는 송상절을 가리켜 ‘중국이 낳은 전대미문의 위대한 전도자’라 하였다. 중국에 와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저명한 미국인 선교사 장문신(章文新:F.P. Jones) 박사도 그를 가리켜 ‘중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별’이라고 칭송하였다.

송상절이 일생 동안 중국 기독교에 끼친 공헌과 영향은 그 어떤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는 확실히 탁월한 “그 시대의



宋尚節

(1901~1944)

복건성 보전현

하나님의 종”이었다.

송상절은 청대 광서 27년(1901) 9월 27일, 福建省 興化府 莆田縣 鳳跡村에서 출생했다. 그의 부친은 봉적촌의 향촌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였다.

고향 봉적촌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은 송상절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주었다. 그의 자서전 『나의 간증』

의 묘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산, 물 좋고 향기로운 꽃과 노래하는 새가 있는 좋은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하셨다. 대자연의 품안에서 성장하면서 나는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

사실상 그의 고향 보전은 자연환경에서만 아니라, 인문환경에 있어서도 송상절이 평생 견고한 기독교신앙을 갖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원래 보전현은 복주(福州)와 하문(廈門)의 두 항구 도시 사이에 위치한 대외 교통의 관문으로 바다와 육지 두 길이 인접해 있어 비교적 개방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19세기 중엽부터 기독교가 전해졌다. 중국과 영국간에 체결된 남경조약에 의해 복주와 하문이 정식으로 통상을 하게 된 후, 기독교 선교사들이 상인과 더불어 중국으로 들어왔다. 대부분 앵그리칸회, 웨슬레, 공리회, 장로교파 등의 기독교 교단선교사들인 이들은 복주와 하문을 근거지로

부근 현에 진출하였는데, 마침 북경조약이 약정되어 선교사들이 자유로이 중국 내지에 들어가 선교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웨슬레 종파인 감리교회는 신속하게 보전현으로 들어와 선교 활동을 펼쳤고, 송상절의 아버지 송학연도 젊은 시절 이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들었다. 그는 기독교에 귀의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신학교육을 받은 후 보전의 제2대 기독교인이 되었다.

송상절의 회고에 의하면 아버지 송학연 목사는 매우 열성적인 목사로서, 상절의 일생 동안 신앙적인 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주님께서 이렇듯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르치고, 영의 양식을 먹이신 아버지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송학연 목사는 적은 수입으로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궁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근검절약하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 책을 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 장서가 쌓였고, 어린 상절은 책을 모아 놓은 곳에 가서 책읽기를 즐겼으니 이것은 학연, 상절 부자의 천성이었다.

상절은 11남매 중 여섯째였고, 주은(主恩)이라는 아명을 갖고 있었다. 그의 형제 가운데

형 한 명과 누이 한 명이 일찍 병으로 죽었는데, 특히 어렸을 적 누이동생 서덕(瑞德)의 죽음은 그의 어린 마음에 매우 큰 상처로 남았다. 그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어머니와 누나들의 곡성이 들렸고 누이동생이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이미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때부터 그의 어린 마음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겼고 이 사건은 이후의 그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의 해답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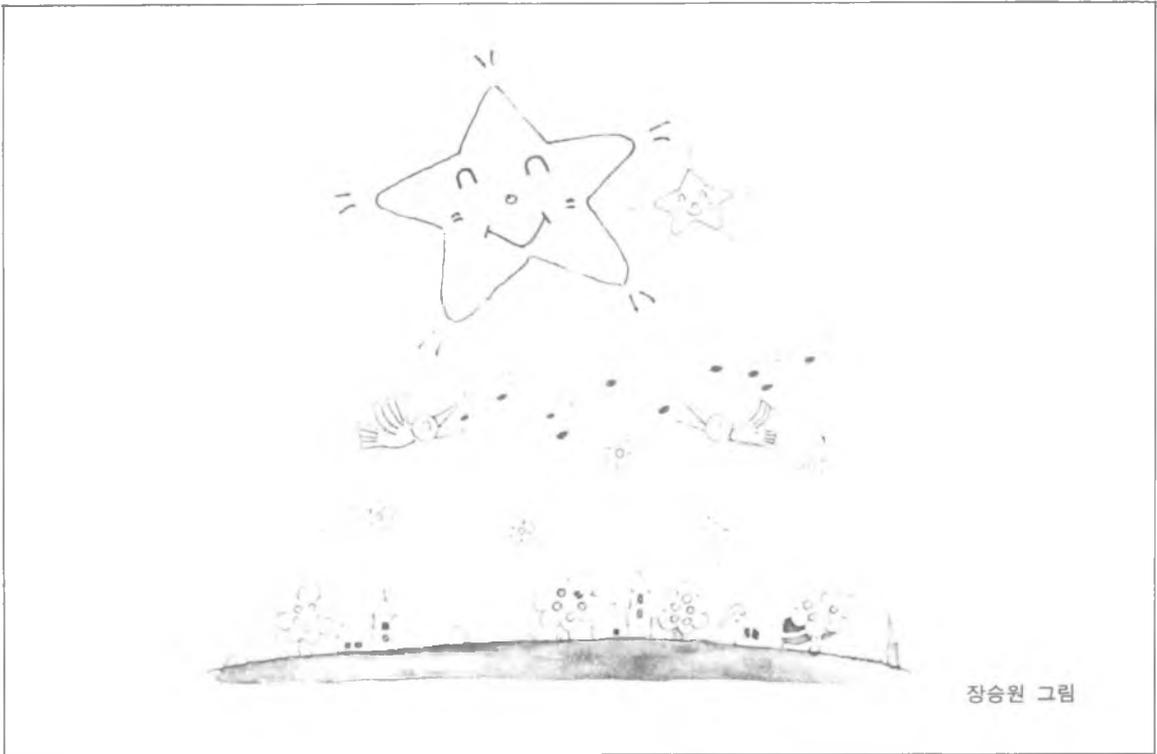
그의 나이 9세 되던 해(1909) 고향 홍화교회에서 전대미문의 부흥성회가 열렸다. 부흥회 강사는 그 지역의 목사였는데, 능력 있는 설교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아이들마저 성경강해 듣기를 즐겼다. 부흥회에 참가하는 청중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 좌석은 다 찼고 들어오는 길도 뻑뻑하여 교회가 더이상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자, 급히 3-4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천막을 세웠다. 그곳 주민들뿐 아니라 복주와 하문 등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부흥회는 매우 뜨거웠으며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심지어 아이들마저 모두 감동을 받아 흠쳐 온 고무공, 분필, 연필을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이런 기적을 눈으로 직

접 보고 체험한 송상절은 그의 자서전 『나의 간증』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것은 나의 마음판에 깊게 새겨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엄청난 사건이었다. 매번 그 때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드신 극본이라는 생각이 든다. ... 나는 종종 그 부흥회를 떠올리며 주님께 기도한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집회장소마다 모인 청중들의 영혼에 그 때 역사하셨던 것과 같은 역사를 내려주소시오.’”

송상절의 고향 홍화교회는 그때의 부흥운동 후 수년 동안 계속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갔으며, 매주일 각지의 농민들이 노인들을 등에 업고 아이들 손을 잡고 군인들이 입성하듯 큰 무리를 이루어 예배를 드리러 왔다. 당시 송학연 목사가 시무하던 미이교회(美以美會) 홍화교회는 5~6백 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2~3천 명의 회중들이 모이면 수용할 방법이 없었다. 많은 교회들이 신도 수가 적어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홍화교회는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아 고민이었다. 그들은 임시 방편으로 주일 예배를 세 번으로 나누고 거리의 원근에 따라 오전 또는 오후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하여 먼 거리에서 오는 이들도 정성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상절은 아버지를 도와 임시로 집사의 역



장승원 그림

할도 하고, 번거로운 일들은 아버지와 분담하여 처리하곤 했다. 민국 2년(1913) 13세가 된 상절은 중학교에 입학했고 마침이 때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홍화교회당이 완성되었다. 아버지 학연 목사는 더욱 바빠졌고, 그래서 상절은 여가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를 도와야 했다. 아버지를 따라 전도도 하고 성경 단행본을 팔기도 했다. 더욱이 아버지가 병에 걸리거나 도시로 외출이라도 하게 되면 그가 저녁예배를 인도해야 했다.

그는 후일 회고하면서 말하기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적어도 수백 명의 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

어 최선을 다해 예배를 인도했다. 원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담대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눈이나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도,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하고 절대 소심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훌륭한 조력자였으며 이로 인해 ‘작은 목사(小牧師)’ 혹은 ‘소성(小聖)’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송상절은 홍화의 미미미회에서 운영하는 중학교에서 공부하였는데,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고 성적도 뛰어난 학생이었다. 젊었을 때 중국으로 와서 홍화 미미미회 남자 중학교를 맡아 운영했던 미국인 선교사 장문신 박사(Dr.F.P. Jones)가 그 때 상절을 맡아 가르쳤었다. 장문신

은 상절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자서전 『세월여류』(The Moving Finger Writes)에서 특별히 상절을 일컬어 ‘홍화가 배출한 가장 밝은 별’이라고 칭송했다.

홍화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상절은 경제적인 곤란을 겪어야 했다. 그의 아버지가 비록 2~3천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의 목회자였지만, 적은 월급에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절은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 신발을 신지 못하고 벗은 발로 다녀야 했다. 그러나 이런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4년 후 1등으로 졸업하였고, 이때 비로소 아버지는 아내에게 상절을 위해 장삼(長衫: 긴 두루

마기.중국인의 전통의상)을 만
들어 주도록 했다. 송상절은 중
학교를 졸업하면서 평생 처음으
로 장삼을 입어 보게 되었다.

졸업 후 그는 남경의 금릉대
학(University of Nanjing)에서
공부할 계획이었다. 금릉은 미
이미회, 장로회, 침례회 등의 선
교단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미이미회 출신
인 송상절도 입학의 기회를 가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때 갑자기 큰누이
가 급작스러운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이로 인해 상절은 깊은
좌절과 상처를 입어 의기소
침해졌다. 또한 대학들이 동맹
파업을 하는 등 시국이 평온하
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내
의 환경은 실로 학문에 몰두할
만한 분위기가 되지 못했다. 이
에 그는 외국으로 나가 대학공
부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
러나 송학연 목사는 아들이 해
외로 나가 공부하겠다는 생각에
매우 반대하였다. 당연히 경제
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학
비와 여비를 댈 수 있겠는가.

그러나 결국 상절은 많은 이
들의 도움으로 유학의 꿈을 이
룰 수 있게 되었다. 한 미국 선
교사는 상절을 위하여 오하이오
의 웨슬리 대학에 신청서를 제
출하고 입학허가를 받아 주었으
며, 더군다나 학비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비는 아버지
의 옛 제자들이 후원을 해 줌으

로써 마련되었다. 이러한 작은
도움들이 모여 경제적 장벽들이
하나 하나 해결되었고, 드디어
민국 8년(1919) 2월 10일 송상
절은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웨슬리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
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따라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여유가
있을 때는 생활비와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
이트를 해야 했다. 많은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끝하게 이겨
낸 송상절은 드디어 민국 12년
(1923), 3백여 명의 학생들 중에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광을 차지
했다.

그 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밟고, 1926
년 순조롭게 박사학위를 취득하
였다. 학위를 받은 후 학교에 남
아 연구를 계속하던 중 그의 재
능과 학식을 인정한 한 교수의
추천을 받아 교수가 되었고, 또
한 그 교수는 상절이 키울 만한
인재라는 것을 알고 독일로 보
내 화학을 더 공부하게 할 계획
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의 모 의과대학에서 그
에게 급히 귀국할 것을 요청하
여 그는 바로 교수직을 사임해
야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는 깊은
갈등에 시달리게 되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솟아오르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은 말로 표
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바로 그 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

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속을 찢
렸다. 이 말씀은 그가 왜 미국에
왔는지를 깨닫게 해 주었던 것
이다.

다음 날 송상절은 어떤 목사
님의 방문을 받았는데, 송을 보
자마자 그는 “당신은 과학자라
기보다는 전도자 같소이다.”라
고 하였다. 이 말은 송상절의 마
음에 큰 진동을 일으켰다. 자신
의 상황을 상세히 고백하니 목
사는 그에게 뉴욕 협화신학교의
종교과정을 공부해 볼 것을 권
유하였다. 이 말을 들은 상절은
독일유학과 귀국하여 교수직을
맡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뉴욕
으로 떠날 것을 결심하였다.

민국 15년(1926) 9월, 그는 협
화신학교에 입학하여 종교과정
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
학교에서의 환경과 수업방식은
그의 신앙과 부합되지 않는 면
이 많았다. 이듬해(1927) 2월 10
일 이 날은 그의 생애에 결코 잊
지 못할 날이었다. 그의 자서전
『나의 간증』에 의하면, “그날
밤은 내생의 가장 가치가 있는
기념일로서 나의 영적 생일이
다.”라고 했다. 이 때부터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나누었으며 쉬지 않고
찬양을 불렀다. 때로는 큰 소리
로 때로는 작은 소리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 때로는 활
짝 웃으며 감사의 찬양을 하기
도 했다.

그런데 협화신학교에서는 이

런 모습의 그를 정신병에 걸렸다고 판단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193일을 병원에서 지낸 후, 다행히 좋은 친구의 보증과 중국대사관의 교섭 덕분에 무사히 나올 수 있었다. 정신병원에서의 생활은 그의 인생에 몹시 큰 시련이었다. 나중에 술회한 바에 따르면, 그는 그 곳에서 성경을 40번 읽었고, 인격이 연단 받고 다듬어질 수 있었기에 오히려 자기 인생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병원에서 나온 상절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한 달을 지내며 마음의 평정을 되찾은 후, 시애틀을 경과해서 배를 타고 고국으로 향하였다. 그가 탄 배

가 중국의 연안으로 들었을 때 그는 놀라운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즉 세상이 추구하는 재물과 명예, 자랑 등을 바다 가운데 던져 버리고 사도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길을 걸기로 한 것이다.

민국 16년(1927) 10월, 송상절은 드디어 고향인 복건성 흥화로 돌아왔다. 부모 형제와 반가운 해후를 한 그는 이곳에서 전도의 일만을 전담하고자 결심하였으나, 동생들의 학비를 부담해야만 하는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흥화교회가 설립한 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쳐 돈을 벌면서 복음전도사역을 감당하였다. 약 1년 동안 이런 생활을 거

듭하던 그는 이듬해(1928) 교수직을 사퇴하고 전임사역자로서 전도에만 전념하게 된다.

송상절은 이 해(1928) 부모의 명에 따라 미리부터 정혼하였던 여금화(余錦華) 여사와 고향 흥화에서 결혼하였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후 그들은 상해로 삶의 거처를 옮겼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부부간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단지 알려진 것은 그들이 결혼한 후 10여 년 동안, 서로 같이 지내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상절 자신도 말했던 적이 있지만, 그는 평균적으로 1년 중



11개월은 밖으로 전도하러 다녔고, 집에 있으면 항상 찾아오는 손님이 끊이지 않아 여금화 사모는 상절이 오히려 밖으로 나가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민국 17년(1928) 송상절은 전심으로 전도사역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우선 연해 일대의 평해(平海), 대감산(大甘山), 정착(井曆), 동예(東隸) 등의 시골을 돌아다니며 전도하였다. 그와 함께 다녔던 젊은이들은 모두 한 마음, 한뜻으로 형편없는 식사를 하면서도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다.

다음해(1929) 이미 전국에 유명해진 송상절은 복건 민남(閩南)의 여러 교회로부터 기독교의 주요 교리를 강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런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그는 민남의 통상구역인 하문(廈門), 장주(漳州), 천주(泉州) 등 대도시로 가서 선교하였다.

그는 4~5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성경학교를 조직하여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순회전도도 하였다. 이들의 발걸음은 복건성 북동 지역으로부터 복건성 연해의 작은 섬 남일도(南日島)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접촉하여 전도하였다. 종종 농촌에 가면 신을 벗고 맨발로 논에 들어가 농부들과 이야기하며 개인적으로 친밀한 대화를 통해 기독교를 전하였다.

민국 19년(1930) 송상절은 계속적으로 복건성을 돌아다니며 전도하였다. 그의 소망은 각 지역의 기독교청년들을 조직하고 훈련시켜, 훈련받은 이 청년들이 교회의 목사를 도와 튼튼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 해 겨울, 복건성의 각 마을은 산적들로 인해 소란스러웠고 이 때문에 송상절은 잠시 향촌의 사역을 중단해야 했다. 이 때 교회의 감독(會督)은 그를 북부 지역으로 파견, 평민교육운동을 관찰하고 돌아와 고향에서 평민교육을 추진해 주기를 바랐다.

감독의 명령에 복종하여 이 해 겨울 홍화를 떠나 북쪽으로 간 송상절은, 먼저 호주(湖州)에 가서 이 지역의 기독교협진회(基督教協進會)가 주관하는 화동기독교화가정운동대회(華東基督教化家庭運動大會)에 참석하였다. 그는 처음에 백여 명의 참가자들 속에서 아무런 주의도 끌지 못했으나, 며칠 후 광학회(廣學會)에서 봉사하고 있던 외국인 여선교사 매리더(梅立德 : Mrs. F.R.Milican)부인의 추천으로 대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 앞에서 강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마침내 호주(湖州)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이 강연이 끝나자마자 그곳의 교회, 학교, 병원 등에서 그를 찾아와 진리를 전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민국 20년(1931)년 정월, 그는 정현(定縣)에서 평민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양초(晏陽

初)박사를 방문했다. 안 박사의 노력과 성취를 목격한 그는 그의 교육방법이 확실히 독창적이고 색다른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평민 교육, 문맹 퇴치운동(識字運動) 등이 중요하긴 하지만 당시 향촌교회에 해야 될 가장 필요한 운동은 아님을 깨달았다. 원래는 1~2개월 동안 정현에 머물면서 자세히 배우고 참관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이틀 후 급히 안양초 박사와 작별하고 북경으로 떠나 다시 상해로 가서, 그 곳의 교회 학교와 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말씀을 전하였다.

이전에 그는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었으나 이제 비로소 방향을 찾게 되었다. 사회구원이 당시의 유행하는 풍조였으나 그는 참된 진리의 복음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때부터 그의 설교의 주제는 주로 『십자가의 공로』, 『성령 충만에 의해 거듭나야 할 필요성』, 『능력 있는 예수의 보혈』 등 '오묘한 신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바뀌었다.

상해에 있을 때 그는 서문사교(西門斜橋)의 벨엘(伯特利)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 교회는 그 유명한 의사 석미옥(石美玉)과 호전리(胡遵理)선교사 등이 설립한 교회였다.

송상절은 한때 벨엘교회 소속 순회전도단과 함께 민국 17년(1928)에 복건성 선유(仙遊)지

방에서 동역하면서 좋은 인상을 받은 기억이 있다.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벨엘교회를 찾아갔던 것이다.

말씀을 전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는데 회중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벨엘교회는 계속해서 그에게 성경 공부반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당시 벨엘 순회전도단은 송상철의 말씀강론은 사에 끌려 함께 전도사역에 동역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원래 그는 홍화교회의 파견을 받아 다른 지방에 가서 평민교육을 참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승낙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때 이들과 나누었던 아름다운 교제는 뒷날 그가 벨엘 순회전도단에 합류하여 순회전도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였다.

계속하여 그는 남창(南昌)의 교회 요청을 받아들여 1931년 2월, 중순남창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까지 확대된 이번 남창여행에서 그는, 전도할 내용과 방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모색하였다. 그는 ‘죄’의 문제를 통렬히 지적하는 설교를 하였다. 그의 설교는 대단한 반향을 일으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한 사람이 수없이 많이 나왔으며, 그의 명성은 원근각처로 퍼져 각 교회에서 다투어 그를 초빙하고자 하였다.

같은 해 5월, 송상철은 벨엘

전도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순회전도단의 일원이 되었다. 이들과 함께 한 3년은 그의 인생 중 가장 찬란한 시기였으며 벨엘전도단의 전도역사상 길이 남을 한 페이지였다.

민국 20년(1931) 5월, 상절은 요청을 받아 산동의 청도(靑島), 대신정(大辛町), 즉묵(卽墨), 제남(濟南), 태안(泰安), 역현(嶧縣), 등현(滕縣) 등지에 가서 전도하였다. 벨엘 전도단은 원래 계지문(計志文), 이도영(李道榮), 임경경(林景庚), 섭자영(聶子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송상절이 합류하게 됨에 따라 5명이 함께 일을 분담하여 협력하였다.

하루 네 차례의 집회 중 오전 기도회는 계지문이 인도하였고, 10시의 사경회는 송상절이 맡았으며, 오후의 부흥회는 다시 계지문이 인도하고 저녁 부흥회는 송상절이 인도하였다.

임경경과 섭자영은 찬양과 통역을 맡았다. 때때로 삼중창을 공연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였는데,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은 사람들을 매혹시켰고 집회장의 분위기를 은혜스럽게 만들었다.

계지문과 송상절이 강단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진리에 갈급한 회중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전도집회는 가는 곳마다 성공적이었다.

같은 해 6월 그는 상해로 돌

아와 성경공부 인도를 맡기 위해 <전상해전도인수련회(全上海傳道人退修會)>에 참석하였다. 이 수련회가 끝나고 아내와 함께 고향 홍화로 돌아오는 도중, 이들이 탄 배의 보일러가 폭발하여 선체가 기울어졌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닥쳤으나 이런 위기 앞에서 그는 결코 동요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였다. 다행히도 일본 배에 의해 구조되어 무사히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으나, 그는 그 사고과정에 처한 여러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썼다.

“죄 많은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상황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인간이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 있겠으며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을 갖고 있는가?”

홍화에서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였다가 다시 상해로 올라가 북으로 갈 준비를 하였다. 그는 1931년 11월까지 벨엘 전도단과 함께 동북지역을 돌아다니며 전도하였다. 3개월 동안의 동북지구 전도로 말미암아 대략 3천여 명의 잃어버린 양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 그 기간 중 심양 9.18 사변을 겪어 놀라기도 했지만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고 전도사역도 전혀 영향받지 않았다.

3월에 다시 벨엘 전도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북부와 남부지역을 전도하였다. 그들은 홍콩, 광산(廣山), 오주(梧州), 남녕(南寧), 울림(鬱林), 산두(汕頭), 북

주(福州) 등지를 두루 다니며 전도하였고, 이 해 여름 다시 한구(漢口), 보정(保定), 北京(북경), 천진(天津) 등을 다니면서 전도하였다.

민국 22년(1933) 한 해의 대부분을 뵘엘 전도단을 따라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데 보냈다. 송상절은 이 당시를 회고하여 말하기를, “그토록 오랫동안 한숨도 쉬지 않고 일한 것은 내 평생 처음이었다. 날씨는 춥고, 발이 얼어 아팠지만 하루에 세 번 설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북방의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아 몸이 쇠약해졌으나 육체를 돌보기를 원치 않았으며, 오히려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

민국 23년(1934)에 이르러 호남성 장사(湖南省 長沙)에서 전도한 것을 끝으로 그는 정식으로 뵘엘전도단을 탈퇴하였다. 함께 동역한 지 3년 만이었다.

그들은 전국 13省, 약 5만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여행하였다. 천 번 이상의 집회를 통해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이를 통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자는 약 1만 8천여 명이었다. 중국에 전도단이 생긴 이래 가장 풍부한 수확을 거둔 전도단체가 바로 그들이었다.

그런데 왜 송상절은 이들과 헤어져야만 했을까? 당사자들 모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자세한 이유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전도단원 중의 한

명이었던 계지문 목사는 나중에 『하나님은 왜 송상절 박사를 크게 사용하셨는가?』라는 글에서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의문이 남는다. 이것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질문하는 것이다. 전도단이 그토록 큰 은혜를 입고 마음을 같이하여 동역하였는데 어찌서 결국 헤어져야만 했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 나는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고자 한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전 3:1)

인간은 실수를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협력하기를 원하셨으므로 우리는 같이 일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흠어질 것을 원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흠어진 것이다.”

그는 또 전도단과 송상절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송 박사는 전도단의 역량을 충실하게 감당하였고, 전도단은 그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었다.”

송상절 자신도 3년 동안 뵘엘 전도단에 있었던 감상을 『사역의 회고-(續)나의 간증』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회고해 보니 은혜의 주님께서 지난 3년 동안 나를 훈련시키셨고, 나를 빛으셨으며 환난 가운데 나를 보호하셨다. 그는 내가 깃털이 풍성한 때를 기다려서 등지를 흔드셨고 두 날개를 펴서 나를 구하셔서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민국 23년(1934)에 그는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산둥성, 허북성 등 5省에 가서 전도하였다.

다음해(1935)에는 광둥성의 광주와 조산, 복건성의 하문 등지에서 사역하였는데, 그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능력있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였다. 이 해, 다시 해외 화교지역 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필리핀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첫 번째 해외 전도집회였다.

민국 24년(1935) 8월, 상절은 처음으로 싱가포르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14일 간 40여 차례의 설교를 하는 기록을 남겼다. 1,500명의 신도가 은혜를 받고 80여 명이 주님께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민국 25년(1936) 4월에는 왕종인, 종성 형제와 함께 타이페이 장로회의 요청을 받아, 대만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였다. 대만은 당시 일본인 치하에 있었기에 일본헌병이 집회장소까지 들어와 감시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체의 두려움없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였다. 계속적으로 타이중, 타이난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대만교회에 커다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민국 26년부터 29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3년 동안 자신의 몸은 전혀 돌보지 않고 국내외의 곳곳의 요청을 받

아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국내의 하문(廈門), 산두(汕頭), 흥화(興化), 남경(南京), 태원(太原), 온주(溫州), 역현(澤縣), 서안(西安), 신양(信陽), 상해(上海) 등지 이외에도, 해외의 미얀마, 말레이반도, 사라와크(보르네오섬 서북부에 위치한 말레이시아의 한 주), 월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남양만 일대의 지역에서 화교를 대상으로 전도하였다.

그 사역의 열매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그 해 그로 인하여 영적부흥을 체험한 목사, 장로, 집사, 신도들 중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투하는 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송상절은 줄곧 건강이 좋지 않았다. 과거에 걸렸던 질병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전도사역을 나가면 자기 몸은 전혀 돌보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민국 29년(1940) 그는 병이 악화되어 몇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민국 33년(1944) 8월 17일, 결국 그는 북경의 독일병원에서 눈을 감았고, 북경 향산(香山)에 안장되었다. 그의 살아생전 절친한 친구이자 믿음의 동역자였던 왕명도 목사가 안식예배와 장례예배를 인도하였다.

사람들은 송상절을 일컬어 ‘진실로 정직하고 조금도 거짓이 없던 기독교계의 거인’이라

고 한다. ‘하나님의 사람(神人)’ 송상절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복음의 발자취는 영원토록 우리들의 가

슴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中國基督教人物小傳』 중에서) 번역/ 서울대 중국어성경반

填字遊戲 (퍼즐) 정답

更正啓示(바로잡습니다.)

지난호('94. 5/6) 중국어 퍼즐 가로열쇠 (2)의 정답 [耶利歌]의 “歌”자가 틀렸습니다. 정확한 답은 [耶利哥]입니다. 독자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讚	美		乾	洗
				容			澡
		神	學	院		天	堂
信	望	愛			生	氣	
心		世					
之		人	生	觀		相	
父	親			光		親	家
	戚		不	客	氣		教

나의 사랑, 나의 조국

왕에스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이 대륙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인생의 회로애락 속에서 얼마나 깊은 고뇌와 갈등을 하는지 내가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영원한 기도와 끊이지 않는 눈물 뿐이리.

중국에 돌아오다

1993년 여름, 2년 동안 떠나 있던 고향(中國)으로 돌아왔다.

꿈에도 잊지 못했던 조국, 나를 낳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 친지, 고향 친구들, 또한 순박한 성품을 가진 나의 형제 자매들……

순박하고, 가난하고 청빈한 생활에 자족하지만 의(義)에 굽주린 이들을 대할 때마다, 아무리 내 손에 권 펜을 재주 있게 휘두른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한 감격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을 고백한다. 나의 제한된 어휘력으로 어찌 그 넓은 복음의 발에 필요한 많은 것을 다 묘사할 수 있겠는가?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이 대륙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인생의 회로애락 속에서 얼마나 깊은 고뇌와 갈등을 하는지 내가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영원한 기도와 끊이지 않는 눈물 뿐이리.

기차에서 바라본 고향의 풍경
기차가 나호교(羅湖橋)를 지나

자 마자 양끝의 경치가 갑자기 달라졌다. 바로 여기가 내가 밤낮 그리던 조국의 모습이구나. 모든 것이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똑같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의 들판은 여전하며 그 가운데 작은 마을들이 흩어져 있다. 비바람에 곧 쓰러질 듯 보이는 오래된 가건물들도 여전하다. 간혹 빨간 벽돌의 기와집과 빌딩들이 들어 선 것도 눈에 띄지만, 도시의 공기는 여전히 먼지로 자욱하고 횡단보도의 선(線)이 뚜렷한데도 자동차와 자전거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달리고 있었다. 먹다 버린 쓰레기와 각종 오물들이 발 밑에 가득했다.

갑자기 가슴 속으로부터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처량함이 솟구침을 느꼈다. 그제야 나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중국 학생들이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한 뒤에도 다시 후회하며 갈등해야 했던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폭의 그림 같은 미국의 아름다운 정원과 꽃밭에 비하면 중국은 너무 초라하여 ‘추

하다', '더럽다'라는 단어 외에는 형용할 말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이런 식의 말로 사랑하는 조국의 모습을 형용하고 싶지는 않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그보다 더 불결하고 보기조차 민망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 내가 감히 누군데 내 조국과 동포들을 향해 초라하고 더럽다고 할 자격이 있겠는가?

나는 단지 지극히 평범한 중국인이며 구원을 받은 그리스천이다. 그리고 지금 고향에 돌아와 있는 것이다.

광주역(廣州站)에서

숨 막힐 듯한 더위, 인산 인해로 꽉 찬 대합실에서 갑자기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일어나 개찰구를 향해 몰려들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盲流'(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무리들, 농촌에서 무작정 상경한 이들을 지칭하는 말:편집자 주)라는 단어는 매우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목수의 장비를 짊어지고 가는 건장하고 늙름한 섬북(陝北) 장정들, 아이들을 등에 업은 아담한 남쪽 아낙네들, 서류 가방을 들고 출장가는 사람들, 각양 각색의 사람들로 형성된 거센 인파들이 서로 부딪히며 개

찰구를 지나간다. 하지만 통로에 있는 팻말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아 어느 플랫폼으로 가야 목적지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은 그저 멍청하게 봄비는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몰려갈 뿐이다.

앞장서서 가던 섬북 장정들이 큰 소리로 아우성을 지르며 다시 뒤로 돌아가니 그 많은 인파들도 떠들어대며 반대쪽으로 되돌아 몰려 갔다. 모두들 무거운 짐을 들고 35도가 넘는 찌는 더위를 참으면서 사람의 파도에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모습이 너무도 불쌍하다.

저들이 일 초라도 빨리 정확한 목적지를 찾아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시큰시큰 쑤시는 팔을 편히 쉬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누가 이들의 영혼에 새겨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방황하고 맹목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장승원 그림

중국 지식인의 이야기

2년 전 내가 중국을 떠나올 때만 해도 젊은이들 중에 믿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한 도시의 대학 캠퍼스에는 몇백 명의 크리스천 대학생과 젊은 교수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그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큰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였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며 성경의 진리를 그들의 실제생활에 적용하고 있다. 결혼, 낙태 등 예민한 문제에 닥쳤을 때 성경의 원리로 행동의 방침을 삼을 수 있는 이들이었다.

집회 중에 만난 한 젊은 자매가 내게 다른 두 자매에 관한 간증을 들려주었다.

한 자매가 임신중에 약을 잘못 복용했는데 의학적으로 그러한 약은 부작용을 일으켜 기형아나 정신박약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 자매는 자기가 낙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갈등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기도중에 그들의 먼 친척 뺨 되는 외삼촌을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찾아가 이 외삼촌은 매우 유명한 의사였다. 그는 그들에

게 말하기를 아무 문제없으니 유산시키지 말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였고, 결국 자매는 믿음으로 아이를 출산하였다. 지금 3살이 된 이 아이는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고 한다.

이후 자매가 외삼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그 의사는 이상하게도 자기는 절대로 수술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의사인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겠냐는 것이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그런 경우는 95% 이상 확실히 기형아를 출산한다고 하였다. 자매는 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믿음을 견고케 하심을 깨달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그녀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1층에서 6층까지 온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들이 모두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였다.

또 다른 한 자매는 자기의 간증을 마친 후 나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단위(중국에서는 기관, 노동현장, 단체, 직장이 사회생활상으로 나 조직상으로 가장 중요한 단위로 되어 있다:편집자 주)의 지도자들이 공산당에 가입하려고 그녀를 설득했으나 그녀는 거절하였다. 비록 지금 당에 가입하면 승진과 보다 나은 장래

가 보장되지만 그녀는 단연코 거절했다고 한다.

그렇다. 그녀는 이미 예수님을 얻었으니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 자매의 말에 의하면 이 도시에서 복음은 거의 하나의 운동으로 발생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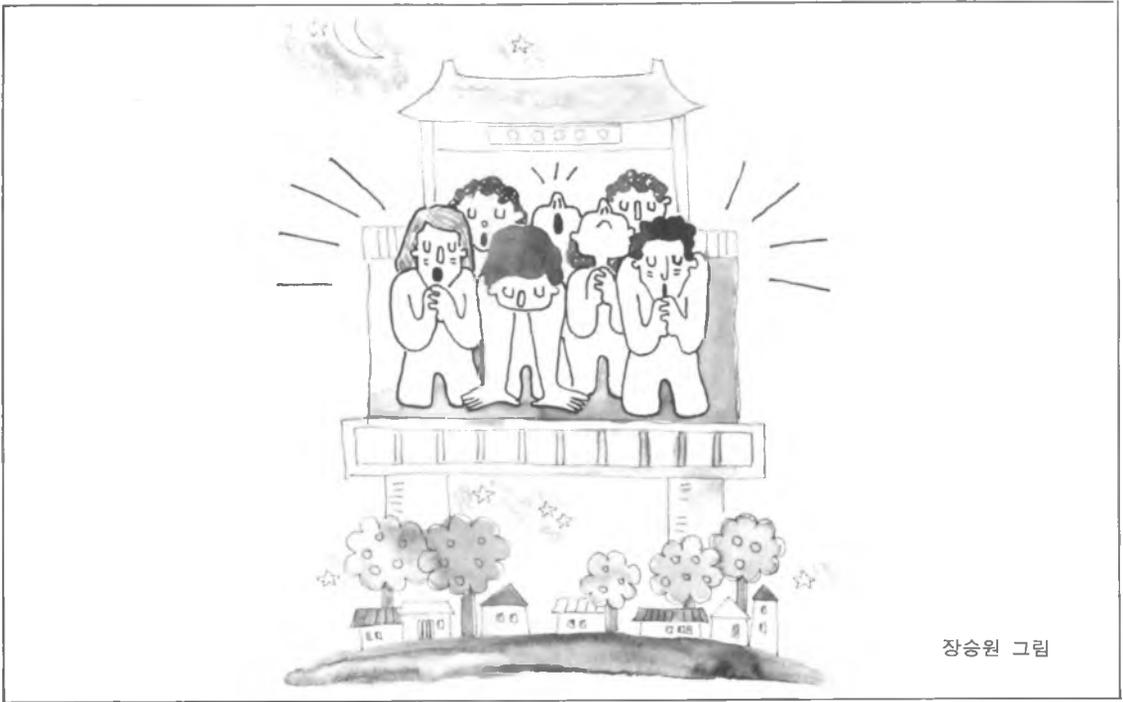
젊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화제는 주로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당신은요?”이다. 주일이 되면 이 도시의 수 천 가정이면 여 예배를 드린다고 했다.

도대체 이 도시가 이렇게 부흥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 우리를 접대한 자매의 말이 기억난다.

1년 전쯤, 서양에서 7, 8명의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왔는데, 그들은 깊은 밤에 고성루(古城樓)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대학생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들의 성경공부 방식은 우리들이 미국에서 하는 성경공부와 거의 비슷하였다. 나는 그들이 말씀에 대해 갈급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들의 성경지식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들은 실제로 해외에서 온 형제자매들에 의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각기 다른 교



장승원 그림

파로부터 온 이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자질구레한 이론들에 대해 저마다의 관점을 심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이 대학생들은 이론적, 실천적인 것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질문하였다. 우리들은 아는 데까지 힘 닿는 대로 대답해 주었고 또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들과 토론했다. 밤이 깊어 교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할 수 없이 모두들 돌아가도록 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

교문을 나서 캄캄하고 긴 숲길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도하였다. 이 캠퍼스 안에 미국의

무디성경학교 같은 신학교가 세워지고 각종 성경 참고서적들이 있어 그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또한 신실한 믿음과 심오한 신학지식을 소유한 많은 교수들이 확보되어 그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기를...

나는 다시 한 번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신학교를 허락하셔서 진리를 갈구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소서. 주여!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신학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 주소서.

하나님은 중국을 버리지 않으셨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변화는 현저했다. 특히 도시의 변화는 대단했다. 대로변은 크게 넓혀지고 호화스러운 빌딩과 호텔 등이 건축 중이었다. 밤이 되면 네온사인 불빛으로 번쩍거리는 도시의 큰 호텔과 상점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손님을 끌고 있다. 각 상점마다 좋은 물건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의복 스타일도 결코 외국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시가 중심지에 위치한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리의 간판들이 마치 뻑뻑한 숲처럼 들어서 있다.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경제 개혁의 물결 속에서 버

락부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여
기저기 돈을 뿌리고 다니며, 득
의양양 부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
들은 사회현실에 대해 큰 불만
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 더욱 극심
해지는 빈부의 차가 그들의 불
만의 원인이다. 모든 것의 가치
척도가 상실되어 버린 듯하다.
돈을 벌기 위해 여대생들은 자
기 몸을 파는 것쯤은 아무 것
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또 열
차의 차장들은 공개적으로 뇌
물을 요구하며 침대칸의 표를
2~3배의 비싼 값으로 암거래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현실이 이러
게 어둡다 해도 하나님은 중국
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었고 멸망하는 자들의 영혼
을 구원하고 계신다. 여행중에
우리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길
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
이건 친한 벗이든 간에 모두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었다.

북쪽으로 가는 열차 속, 떠들
썩하고 비좁고 담배 연기로 자
욱한 객차 안에 앉아 있던 나
는 내 자리 건너편의 침대에
여자가 타기를 기도하고 있었
다. 그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
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
하였다. 하나님은 즉시 내 기도
에 응답하셨다. 한 50세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맞은편에 올라

왔다. 그러나 내가 그녀의 신분
을 모르기 때문에 망설이며 주
저하다가 하는 수 없이 동행한
나의 사촌 동생에게 복음을 전
하며 ‘전도부흥회’를 열었다.

누가 알았겠는가? 갑자기 이
부인이 일어나더니, “너무나
좋군요! 너무 좋아요! 당신이
방금 얘기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계속 듣고 있었던 것이
다. 그녀는 자기도 예수님을 믿
기는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
하다고 하였다. 계속해서 그녀
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동
기를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다.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가 지
붕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고 병
원에 데리고 가니 의사는 가망
이 없다고 하였다. 의식이 혼미
한 상태의 아버지는 그녀와 그
녀의 여동생에게 “내병을 낫
게 하려면 너희 둘이 교회의
탑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하였
다. 그들은 즉시 한 교회를 찾
아 꼭대기에 올라가 지전을 태
우고 불공을 드렸다. 이에 놀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행
동을 제지시키고 그들에게 복
음을 전하며 그 아버지를 위해
서도 기도해 주었다. 결국 그네
들과 이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병도 완전히 치유되었다 한다.
그녀는 이 기적을 거듭 강조하
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세례문
답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했다.
그녀는 자기가 믿는 구원의 진

리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광주에서 포목장사를 하는
그녀는 자기가 장사하는 것이
영적 성장에 많이 방해가 된다
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와
얘기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은 그녀의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한 계획임을 알
수 있었고 내 마음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쳤다.

또 한번은 열차 안에서 당
간부라는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많은 얘기가 오고 간 뒤
헤어질 때가 되어 그에게 기독
교 소책자를 줄까 망설이고 있
을 때 갑자기 그가, “나는 몇
십 년 동안 유물론을 신봉해
왔지만 이제 퇴직하면 도대체
무엇이 세상의 진리인가를 연
구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에게 성경책
한 권을 주었고 그는 어리둥절
하며 이 책이 무슨 책이냐고
물어 보았다. 평생 동안 한 번
도 성경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음이 분명했다. 그는 앞으로
이 책을 읽겠다고 나와 약속하
였고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겠
다고 약속하였다.

대륙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
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
서 나이 많은 당 간부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있다고
한다. 간부들이 퇴직한 후 예수
를 믿고 자기 가정을 개방하여
집회처소로 쓰기도 한다는 것
이다.

평범한 사람들, 이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이야기들.....

한 번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이들과의 교제의 기회가 다시는 못 올 것임을 나는 잘 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이들을 나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지 않다.

“나는 공산당 당원인데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질문이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돌고 있다. 이러한 질문의 배후에 무엇인가에 갈급해하는 이들의 소망, 그리고 삶의 어려움, 갈증 등이 있음을 나는 안다.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뿐이리라.

일단 열려진 이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억지로 닫을 수 있는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나의 사랑하는 조국의 영혼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

왕에스터/ 재미 중국유학생

번역/자이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

제6기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 훈련생 모집

(Global Professionals Training Institute)

첨단의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국제화, 개방화와 관계없이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수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어야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날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복음과 선교사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교사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달려진 지역이 아닌 “창의적 접근지역”입니다. 당신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기술을 가진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본 훈련원은 일반/전문직업을 가진 직장인들이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직업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 훈련목표

- 창의적 접근지역 사역에 관한 일반적인 오리엔테이션
-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독자적인 생존과 사역 능력 배양
- 타문화권 적응능력 배양: 언어습득, 타문화에 대한 자세 확립

■ 훈련기간 및 장소/학기

1. 기간: 1994년 9월~95년 8월까지(최소한 1년)
매주 토요일 오후 3:00-8:00
2. 장소: 영화교회(서초동 소재) 교육관

■ 훈련대상과 선발

1. 자격: 대학생, 일반직장인으로 ①전문인(자비량)선교사(Tent-maker)로 사역하려는 자(지역개발, 스포츠인, 의사, 약사, 간호사, 회사원, 교사, 교수, 예술인, 엔지니어 등). ②장, 단기 선교사 후보, 개교회 선교지도자 등.

※선교지에 곧 나가려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음

2. 선발: GPTI 훈련생 선발기준에 의함.
3. 제출서류: 입학원서(소정 양식), 선교단체 또는 담임목사 추천서, 자기진단서(소정양식).
4. 제출기한: 1994. 7. 1~94. 8. 13(서류제출시 신청금 ₩50,000)/훈련비 별도) 원서대금 3000원
5. 접수처: 서울 강남 우체국 사서함 1052호
TEL 537-2043, 594-3438 FAX 595-7809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사) 한국해외선교회(GMF)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GPTI)

중국선교 세미나

중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의 기치아래
서구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기울면서,
내부적으로는 종교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중국선교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효과적인 중국선교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전문인들에
의한 선교입니다.

한편 중국선교에 있어 불모지나 다름없는
미전도종족선교 또한 미룰 수 없는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일시 : 1994년 6월 27일 (월) 오후 7시-9시
주제 : 중국에서의 전문인 사역과 전략
강사 : 민요셉 (Hope 총무)
장소 : 이수성결교회(중국어문선교회 맞은 편)

일시 : 1994년 8월 22일 (월) 오후 7시-9시
주제 : 중국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한 전략적 접근
강사 : 한정국 선교사 (한국 OMF 대표)
장소 : 이수성결교회(중국어문선교회 맞은 편)

주최: **중국어문선교회**

(Tel : 594-8038, 533-5497)

중국선교의 선배 선교사들

방지일



중국에 최초로 파송되었던 김영춘, 박태로, 사병순 세 분 선교사들은 많은 수고를 하셨으나, 일은 시작도 못하고 그냥 갔다 돌아오신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분들 다음으로 나의 가친(방효원 목사)이 먼저 가셨고, 그 다음으로 홍승한 목사가 가셨다. 한 분 더 보내 달라는 현지 선교사의 요청으로 박상순 목사께서 파송되었다.

차츰 일터가 넓어지게 되자 선교지를 한 곳으로 국한하는 것에 불편을 느껴 본 근거지인 산동 래양에서 서쪽으로 1백80

리 떨어진 지미현에 제2선교지를 개척하기로 관계기관과 합의가 되어 두 곳으로 선교사를 나누려 했지만 세 사람뿐이므로 똑같이 나누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한 분 더 파송해 주기를 청하자 본국 총회에서도 이확장을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 네 번째로 이대영 목사를 선정 파송하였다. 나의 가친과 박성순 두 분은 래양으로, 홍승한, 이대영 두 분은 지미현으로 확정되었다. 선교 10년도 안되어 이렇게 발전한 것은 큰 성과였다.

중간에 겪은 어려웠던 일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 여전도대회에서 여선교사를 파송키로 결의함에 따라 김순호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이 여선교사는 두 곳을 중심으로 여성중심사역을 맡게 되니 차차 일에 활기를 띠게 되었다.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아니나 선교사역에 큰 힘이 되어 주신 두 분의 의사를 잊지 못한다. 먼저 래양에 가신 분이

김윤석 의사인데, 첫 양의(洋醫)로 일반 민중들에게 큰 공헌을 하셨으며, 또 지미현에는 안중호 의사가 오셔서 큰 도움을 주셨다.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시긴 했으나 다 유공자로서 중국선교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의사의 후예로 지금 남대문교회 김영선 장로, 대구 안인수 장로가 계시다.

과송된 선교사는 모두 다섯 분이었는데, 그 중 홍승한 목사는 한학자로 중국인들과 한학, 서예의 교류로 인기 있게 일하셨다. 그런데 중도에 국내에 큰 가뭄이 들어 감사 헌금이 크게 감축됨에 따라 지미현의 선교지를 취소하기로 총회가 결의해 홍승한, 이대영 두 선교사는 소환을 받게 되었다.

홍승한 목사는 소환에 즉시 순응하여 귀국하셨으나, 이대영 목사는 막 어학을 배워 설교를 시작하려던 차였으므로 자신은 임지에 있겠다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고국에서 일부나마 그의 생활비를 보내는 이가 있어 계속 일을 하게 되자 총회에서도 다시 복구시켜 선교사로 계속 시무하도록 했다.

선배 선교사들의 업적을 더듬어 보는 것은 어린 나로서는 큰 참고가 되는 것이었다.

나의 가친이 제일 먼저 가서 선교의 터를 닦고 개척한 공헌을 쌓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성격이 원만하셔서 중국 사람들에게 많

은 호감을 주신 분이셨는데, 천성적으로 중국 사람에게 맞게 태어나신 분 같았다. 또한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무게있게 처신하십시오 중국인들에게 지극히 존경을 받으셨으며, 키가 크고 풍채도 좋으신 것이 대륙적 성격에 맞추어 태어나신 분이였다. 지방마다 돌아다닐 때는 여행용 침구를 가지고 희생적으로 순회전도에 나서셨으니 그만한 개척을 하신 것이다. 그로 인해 몸에 불치의 병을 얻으시기도 하셨다.

박성순 목사는 교육자적 기질을 타고나신 분으로 대륙선교에 우수한 분이셨다. 중국어를 제일 잘하신 분이기도 하였고, 조직면의 장점을 가지신 분이시기도 했다.

이대영 목사는 부흥적 소질을 갖고 계신 분으로 그 열의는 누구에게도 뒤질 수 없었는데, 일단 기도에 들어가면 시간가는 줄을 모르셨다. 그는 영적역량의 풍부함을 받은 중이었다. 비록 어학의 재능은 없었으나 신령한 은사에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안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도처에서 많은 부흥회를 인도한 부흥사이셨다.

김순호 선교사는 일본신학 졸업생으로 처음에는 꽤 의지적으로 무엇을 해 볼 계획이 있으셨던 모양이다. 선교사로 와서 「예수가정」이란 신앙운동에 동조하면서 헌신적으로 부녀신앙운동에 큰 공을 세웠다. 중국어로 처녀를 꾸냥(姑娘)이라고 하는데, 중국교계에 선 ‘금꾸냥’ 하면 다 알만큼 신앙가로 꼽혔다.

실천 궁행하시는 나의 가친 방효원(方孝元) 목사, 조직과 교육에 능한 박상순 목사, 부흥사 이대영 목사, 부녀신앙운동의 선구자인 김순호 선교사 등이 선배 선교사이었다. 이 점을 배경으로 나는 선교사역을 실행해 갔다.

(『福音歷史半百年』 중에서)

방지일 목사/ 중국어문선교회 교문,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문화적 갈등과 사역

박진국

먼저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한다. 이 책을 처음 읽은 것은 2년 전 정동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정동선교훈련학교에 한 학기 동안 훈련생으로 수강할 때이다. 이 책을 한 주간 동안 읽은 후 독후감을 써내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 왔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그간 내가 긴밀히 접하고 있는 동료들과 사역을 하면서 견디기 어려웠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바쁜 일정을 쪼개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나는 자연,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생겼다. 그러다보니 함께 일하는 동료가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도 별로 미안한 기색이 없는 것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책에서 시간성향적인 사람과 행사성향적인 사람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을 읽으면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 더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사성향적인 사람은 어떤 임의적인 시간제약을 준수하는 것보다는 활동을 완수하는 것을 더 중시한다는 사실은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면 매우 힘들어하는 나의 기질에 관해 약간의 불만감을 느꼈었는데 이 역시 시간성향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읽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분석적 사고방식과 총체적 사고방식에 관해 언급한 부분을 흥미있게 읽었다. 평소에 나 자신이 분석적이기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느새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여기저기서 리더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일을 추진력 있게 밀어부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유부단하다고나 할까, 아무튼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의 이러한 특징이 총체적으로 사고하는 경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총체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찬성과 반대의 양면을 모두 견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약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되 결점을 비난하는 데 있어서는 온유하다고 한다. 일보다는 사람을 더 중시하면서 결정을 유보하곤 했던 나의 특징을 총체적 유형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나와 내 이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위기의식 지향적인 사람과 비위기의식 지향적인 사람에 관해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실제로 문화가 다른 해외선교지에서의 사역만이 아니라 같은 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부류가

문화적 갈등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업지향적인 사람과 사람지향적인 사람에 관한 것은 나 자신이 매일 사역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갈등해 오던 문제였다. 뭔가 확실하게 일을 해 내고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 생각만 앞서지 진척이 잘 되지 않는다. 차라리 유능한 한 두사람이 해내는 것이 신속하고도 속편하겠다는 생각도 종종 든다. 여러 사람의 미약한 힘을 모아 사역을 진행시키다 보니 일보다는 사람들 문제에 휩싸일 때가 더 많아서 짜증스럽기조차 할 정도이다. 그러나 자신의 주권과 능력으로 단숨에 해치우실 일을 굳이 사람의 힘을 빌어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을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가정과 교회, 직장, 선교활동, 그 외 대인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렇게 볼 때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무기력한 아기로 태어나 사역하시기 전 30년 동안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생활방식을 배우셨던 것이다. 선교사역을 할 경우에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을 처음부터 배우고 익히며 그들의 삶 한 복판에서 성장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들에게 우리를 내어 놓기를 바라신다. 다른 사람의 견해도 내것만큼이나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인간관계와 사역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보며 “문화적 갈등과 사역”을 추천한다.

『문화적 갈등과 사역』/ 조이선교회/ 값 2,200원

박진국/장로, 중국어문선교회 대표



중국의 붉은 별

에드가 스노우 著 / 신홍범 譯 / 두레 刊 /
433쪽 / 값 6,900원

새로운 황제들

해리슨 솔즈베리 著 / 박월라, 박병덕 譯 /
다섯수레 刊 / 717쪽 / 값 9,800원



저명한 학자 더크 보데는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과거에 대한 지식이 현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하였다.

언론인에 의해 쓰여진 금세기 최고의 다큐멘터리라는 평가를 받는 <중국의 붉은 별: Red Star Over China>과 <새로운 황제들: The New Emperors>은 중국공산당의 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문화혁명, 그리고 최근의

천안문 대학살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적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붉은 별>의 작가 에드가 스노우(1905~1972)는 서방의 언론인으로서 최초로 중국 공산혁명의 근거지 보안(保安)을 방문하여 모택동과 그의 동지들(주은래, 임표, 팡덕희, 유소기 등)과 소년 홍군병사들을 직접 만나 취재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감추어졌던 중국대륙과 중국 공산혁명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스노우는 중국의 상황과 중국 청년들의 감정을 간파함으로써, 당시 중국 공산당이 발휘하고 있던 그 강력한 호소력을 이해하였다.

그가 바라본 모택동은 소탈한 성격의 농촌 출신 혁명가로서, 중국 인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을 사로잡은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였다. 새로운 중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실천을 통해 새로운 믿음을 심어 준 영웅으로 비쳐지고 있다.

<새로운 황제들>의 저자 해리슨 솔즈베리(1908~1933)는 스노우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모택동과 등소평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20여 년 동안 중국전역을 여행하면서 생존하는 현대사의 중요인물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였고, 그들의 측근, 비서, 요리사들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들과 연구를 바탕으로 이 기록을 완성하였다.

그가 바라본 모택동과 등소평은 역대 중국의 황제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들보다 더욱 강력하고 잔혹한 실권을 쥔 새로운 황제들이었다.

모택동은 왕궁의 은밀한 거처인 중남해(中南海)에서 음험하며 내밀한 사생활을 즐겼고, 자신과 평생을 함께 한 동지들을 격렬한 정치 투쟁 속에서 잔혹하게 제거하였다. 특

히 문화혁명이라는 엄청난 재난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입지를 다지려 했던 모와 그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은 이제까지 나온 어떤 자료보다도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모택동의 일급참모이면서도 그에 의해 수차례에 걸친 실각과 복권을 거듭한 등소평은 모의 사망 이후 새 황제로 등극하여 실용주의에 기초한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12억 중국인의 기본적 경제욕구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89년 천안문 시위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잔혹한 황제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격변하는 현대사의 파도를 지나온 중국, 이제 개혁 개방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조류를 탄 중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관심은, 등소평 사후 새로운 중국의 황제로 집권을 잡을 인물이 누구이며, 그 후의 중국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 두 권의 탁월한 기록을 통해 미래의 중국을 가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중국유학 가이드

박명수 지음 / 실록출판사 / 372쪽 / 값 10,000원

그 동안 우리에게는 가깝고도 먼 나라로만 인식되어 온 중국.

1992년 8월 24일 한·중 국교수립 이후 새로운 동반자로 떠오른 한국과 중국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상호교류가 질적,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특히, 1994년 4월 1일부터 중국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지금까지 4년제 대학졸업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유학, 연수 등 학술분야의 교류가 그 폭이 확대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까지 중국 유학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중국의 대학은 이미 외국인 유학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정원이 넘쳐 나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정부로 부터 222개의 대학이 외국유학생을 위해 전면 개방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 222개의 중국대학에 대한 간단한 기초정보마저 전무한 실정이다.

이 책의 저자 박명수씨는 중국유학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기위해 “중국유학 가이드”를 출판하였다.

이 책은 중국유학을 희망하는 많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위한 정확한 중국유학 지침서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캠퍼스 사역을 원하는 중국 선교 사명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것이다.



감탄사까지도 중국어로

최사라

“장총무님! 이 글 중국어로 쓰지 않으면 열매를 따게 됩니까?”

그랬다. 우리는 합숙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에 중국어 이외의 타언어(?)를 사용하면 각자 만든, 과일을 그린 성적표에 붙어있는 열매를 따야 하는 아픈 상처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것도 모자라 벌금까지 상납해야 하는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는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다. 4기 훈련생들은 그때부터 과묵해지고 한마디 말에도 신중한 사람들로 변했다.

기대감과 긴장감, 그리고 부담감이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안고 합숙훈련에 들어섰다. 박재규 형제의 유창한(?) 중국어로 진행되는 사회와 원래 약속되었던 이성은 자매님의 지각으로 인해 교체된 방주 선생님의 기도, 그리고 양치호 목사님(인천성광교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합숙은 시작되었다.

아침마다 이루어진 Q. T. 시간은 참으로 풍성하였다. 각자의 구체적인 적용을 피차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린다.

공동체 훈련인 ‘관계’에 대한 김광일 간사(예수전도단)의 특강은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다. ‘관계’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장단점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늘 포장하고 살았던 스스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각자의 비전을 확고히 했던 문상철 실장의 ‘세계선교현황’ 보고는 참으로 유익했다. 여러 항목들로 잘 비교된 자료를 보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중국선교에 대한 긴박감을 주심에 감사드린다.

과목별로 수업이 진행될수록 우리에게 중국어는 더 이상 생소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의 질문을 잘 파악하지 못해 동문서답하는 우리들이었지만, 차츰 적당히 알아듣고 적당히 말하고 적당히 쓸 수 있게 되었다. 중국어로만 생활해야 되는 급박한 문화적 충격에도 금방 적응이 되어 쉽게 중국어가 튀어 나왔고, 심지어는 감탄사까지도 중국어로 하게 되니 (이성은 자매님의 “쥬아(主阿)!—성조는 무시되었지만) 그 누가 우리더러 중국어를 60일 공부한자라 하겠는가?

합숙훈련 중 중국어로 고립된 우리들만의 생활에서 잠시동안 타인(순수한 한국인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다. 더우기 수업시간이 한참 나른함과 피곤함이 느껴지는 낮 시간에 편중되었기에 시간을 내어 불링장에 가자는 의견에 모두 일치하였고, 이 때부터 우리의 해프닝은 시작되었다. ‘설마 이곳에서도 중국어를 사용하진 않겠지?’라는 기대감은 여지없이 무너졌다(이때부터 장총무님은 순악질로 불려지기 시작했으니).

볼링이 처음이었던 동학들의
 황당함은 말할 것도 없고 볼링장
 의 직원들과 주위 사람들은 우리
 를 아예 중국인으로 취급하는 것
 이었다. 자세도 엉망이고 볼링
 에서의 예의(볼을 바다에 쿵쿵
 떨어뜨리는 것이 다반사)를 몰랐
 던 同學들의 모습은 정말 그들의
 눈에 여지없이 중국인으로 오인
 반기에 충분했다. 돌아오면서 우
 리는 얼마나 웃었던지…….

인천성광교회 수요일예배에 참
 석한 우리는 중국어문선교회를
 소개함과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神愛世
 人』과 『萬國都要來讚美主』를
 중국어와 한국어로 각각 찬양하
 는 가운데 마음에 품었던 뜨거움
 이 지금도 진하게 느껴진다. 또

한 인천중화교회와 화교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
 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는 날, 예정
 대로 우리는 어김없이 시험을 치
 뒀고 하나님과 스스로에게 평가
 되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
 지며 폐회예배를 마지막으로 합
 속은 막을 내렸다.

일주일동안 합속을 통해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 우리 동
 학들은 헤어짐을 섭섭해하고 아
 쉬워하는 가운데(비록 단 일주일
 의 방학에 들어가지만)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약속
 하는 마음으로 모두에게 손을 내
 밀어 축복송으로 인사를 나누었
 다. 아! 그때의 시큰함과 진한 감

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아
 마도 그때의 감격은 동학들 모두
 의 마음속에 지금도 간직되어 있
 으리라 …… .

최사리/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4기 재학생

* 편집자 주: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에서는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중국어
 합속훈련을 실시하였다.

4기 훈련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합속훈련에 참가한 한 훈련생
 의 글을 통하여 중국문화에의 적
 응이라는 힘든 과제를 어떻게 풀
 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은 한번 좋은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믿고 도와주지만, 반대로 한번 원한을 사게 되면 좀처럼 잊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무뚝뚝하다.

기본적인 예절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이다. 중국인들은 형식적이고 엄격한 예의를 그다지 따지지 않으므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기본적인 예절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행동한다면 큰 실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인들의 사람 대하는 태도는?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은 한번 좋은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믿고 도와주지만, 반대로 한번 원한을 사게 되면 좀처럼 잊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무뚝뚝하다.

그러나 친구라던가 사업상 알게 된 사람, 다시 말해 계속 만나게 될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 특히 이는 사람을 통해 소개를 받았을 경우에는 무척 호의적이며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나 여행자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일반 사람들이나 국영 상점(또는 식당)의 종업원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길거리의 노점상인 가운데는 사진을 찍으면 심하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국영업체의 종업원들이 불친절한 것은,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자신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자영업자들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물론 장삿속이겠지만 무척 친절하다).

중국인의 손님대접과 가정방문

중국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손님을 환대하는 관습이 있다. 때로는 그것이 지나쳐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빚을 지기도 한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일반 중국인의 가정을

관습과 예절

방문해 보는 것도 좋다. 호텔에서 먹고 자고 관광할 경우에는 접하기 어려운 진짜(?) 중국인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전에는 외국인을 집으로 초대하면 어떤 관계인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등에 대해 신문을 받았다고 한다. 최근에는 많이 자유스러워졌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국인을 집으로 초대하기를 꺼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상대방이 꺼려하는 눈치가 보이면 절대로 강요하지 말자.

초대를 받아 방문할 때는 혼자 가는 것이 좋다. 사전 양해없이 상대방이 잘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실례가 될 뿐 아니라 터놓고 이야기하려 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아주 친해지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나 개인적인 문제를 털어놓지 않는다. 상대방이 대답하기 부담스러운 질문, 특히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중국인 친구의 집을 방문할 때는 작은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가지고 간 기념품, 중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색다른 물건, 어린이를 위한 선물 등이 무난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아주 가까운 사이라면 자녀에게 약간의 돈(10원 정도)을 주어도 좋지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실례가 된다.

당신을 초대해 준 중국인 친구를 호텔 식당이나 일반 식당에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무난한 답례가 될 것이다.

중국인 친구나 친척과 함께 있을 때는 물건 사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 자기들이 물건값을 내려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일

반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은 우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물론 물가가 싸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지만, 우리가 부담없이 살 수 있는 물건이라도 그들에게는 몇 달 동안 저축해야 겨우 살 수 있는 비싼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물하기

선물은 특별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물 받을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주는 것이 보통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만한 너무 비싼 물건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들은 값비싼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중국인 친구가 선물을 주려고 할 때는 사양하는 것이 예의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집스럽게 무엇을 갖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부담이 되지 않을 만한 물건을 선택하도록 한다.

피해야 할 화제는?

정치에 대한 농담은 피하는 것이 좋다.

중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농담은 물론이고, 되도록이면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정치 문제로 실직, 투옥당하는 등의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중국인들은 정치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을 거침없이 토로하는 젊은이들도 볼 수 있다. 개혁과 개방의 영향으로 중국인들의 의식이 많이 자유로워진 탓일 것이다.

중국인의 “에”는 반드시 긍정을 뜻하는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문화적 차이를 이

해하지 못하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정식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단지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측 직원은 최종 결정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중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영어로 이야기할 경우 상대방은 당신의 의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예”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호텔이나 식당 종업원 등 외국인 관광객을 자주 접하는 중국인들 가운데도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심지어는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중국민항이나 중국국제여행사(CITS)에서도 영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내일 봅시다.” 또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시다”라는 말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종종 부정을 뜻할 때가 있다고 한다.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 두어야 한다.

중국인의 “아니오”는 반드시 부정을 뜻하는가?

중국에서는 “沒有”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것이다. 우리말로 “없다”는 뜻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오”라는 뜻으로 쓰일 경우도 있다. 이 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항공권 대표소나 호텔 프론트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미소를 잃지 말고 끈질기게 조르는 것이다.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



들다(중국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체면을 중시한다).

중국인들의 “아니오”는 반드시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은(퇴근시간이 되서) 귀찮거나,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거나,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하는 경우일 것이다.

첫번 째의 경우라면 미소 띤 얼굴로 사정하거나 담당자가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해 본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면 주변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 본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손짓 발짓을 하거나 필담을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길게 이야기할수록 낭비일 뿐이다. 때로는 무응답이 부정을 뜻하는 수도 있다.

(『한국인의 중국여행-중앙일보사』 중에서)

*편집자 주 : 위 글은 중앙일보사에서 발간한 『한국인의 중국여행』에서 발췌한 것으로 중앙일보사의 허가를 받고 실었다.



기도합주회

오늘처럼 기도가 요구되는 시대가 있을까요?

그러나 요즘처럼 기도가 잠들어 있는 때도 드문 것 같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을 열어 젖히는 열쇠입니다.

우리를 엮매는 대적의 진영을 산산히 깨뜨려 버립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한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불가능이란 더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하기를 명하시는 일이 기도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중국이 변하길 원하십니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모이십시오.

중국을 위해,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로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위해 함께 무릎꿇읍시다.

‘중국을 주께로 기도합주회’는

기도의 광장을 마련해 놓고 기도의 헌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 문의 : 중국어문선교회 (Tel : 594-8038, 533-5497)



보도클에 나타난 중국동향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종교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하얼빈신학교 설립추진

고신총회의 중국 하얼빈신학교 설립추진위원들은 지난 4월 19일부터 29일까지 중국을 방문, 현지교회 대표들과 신학교 설립에 관해 논의하고 지난 1993년 상호합의한 공동결정사항을 존중하기로 하는 등의 협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했다.

이번에 중국교회 대표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결의한 것은 '1993년 하얼빈시 우의공회의실에서 의결한 상호간의 공동결정사항을 존중한다'는 사항을 재확인하고, 세부사항으로 △ 남강구 예배당을 재건축하여 주일에는 중국인예배와 조선족에 배쳐소로 사용하고 평일에는 신학교로 활용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중국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며 자력적인

교회원칙을 존중하고, 하얼빈시 기독교협회는 최선을 다하여 이상의 결의한 건축을 위해 헌금한다. 부족액 5억은 고신총회가 보조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기독교보 94. 5. 14)

● 중국에 성경반포 증가

연합성서공회의 93년 성서 배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2년 11월부터 93년 10월까지 전세계에 1억 8천여만 권의 성서가 배포되었다. 특히 중국의 성서 반포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 '애덕기금회'의 성서 출판에 힘입은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로의 성서 반포는 전체의 12.9%를 차지했다.

(크리스찬신문 94. 5. 7)

● 중국 단둥에 조선족 유치원 건립

한국선명회(회장 이윤구)는 압록강 주변의 중국 단둥시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민족교육을 위해 유치원 건립을 지원하고 나섰다. 지난 4월 27일 있을 유치원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단둥을 방문한 이윤구 회장은 "압록강을 끼고 있는 인구 2백80만 단둥시에는 현재 6만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고, 조선족 청소년을 위한 중학교는 있으나 유아기 아동을 위한 유치원은 한 군데도 없는 형편이다." 라고 말하였다.

(기독교보 94. 4. 30 /

국민일보 94. 4. 26)

● 새 중국어성경 출판예정

강소성의 역림출판사는 중국어 성경을 수정, 95년에 출판할 예정이다.

이 출판사 대표는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구약 성경 중문역본은 1917년에 출판한 것으로 현재 그 중 일부 지명들의 변화가 많고, 홍콩에서 출판한 중국어 성경은 언어가 너무 현대적이므로 성경 중문역본 중의 일부 잘못과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를 수정한다”고 말했다.

이 출판 계획은 당국의 허락을 받았으며, 이미 20명의 번역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신학교의 전문가들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94년에는 학술연구회

를 개최해서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도록 한다고 한다. 그러나 종교가 중국 내에서 역시 민감한 만큼 이 출판사의 역본 출판 계획은 학술연구 성질이라고 보고를 올리고 발행 수량 등은 정치분위기와 의식형태의 상황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복음신문 94. 4. 10)

● 국제사면위 중국 구속 기독교인 석방호소

국제사면위원회는 최근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구속이 증가됨에 따라 그들의 석방을 호소했다. 국제 사면위원회에 의하면 금년초 새로운 종교 규제법이 시행된 이후 3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구속수감 중이다.

중국정부공인 개신교 교회의 지도자 정광훈 주교는 최근 비공인 가정교회에 대한 억압이 지나치다고 공산당 간부를 비난했다. 정 주교는 공인삼자교회와 가정교회에 대해 간부의 종교적 편견이 아직도 일소되지 않고 있으며 깊은 골을 형성하고 있다고 북경의 정부종교담당자에게 말했다. 당 간부가 종교를 규제 약체화시키기 위해 행정조직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 주교는 많은 간부들이 건전한 가정교회 집회를 급습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하로 잠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94. 4. 26)

한·중 관계

● 중국 한국기업의 '제 1투자국'으로 부상

중국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투자잔액을 기준으로 작년 말 현재 6백46건, 4억 6천5백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건수로는 23.7%, 금액으로는 8.6%를 차지했다.

또 대중국투자의 허가 건수와 금액은 작년 말 현재 1천42건, 9억 6천만 달러에 달해 전체 허가건수의 29.9%, 허가금액수의 13.5%를 각각 차지해 중국이 우

리나라의 첫 번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다.

(국민일보 94. 5. 11)

● 중국진출 사업가 조선족 동포에 피살

사업차 중국에 머물고 있던 서인석씨(53세)가 최근 무참히 살해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8일 서씨의 유해와 함께 귀국한 유족들을 통해 밝혀졌다.

유족들은 서씨가 지난해 5월부터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서 무역회사인 <정보무역>을 설치, 사업을 하다가 투자알선

을 제의한 임모(25)씨 등 조선족 4명에 의해 길림성으로 유인당한 뒤 칼로 난자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94. 5. 9)

● 한-중 '우호조약' 추진

한-중 양국은 상호무력불사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우호협력조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13일부터 이틀동안 북경에서 열린 한중정책기획협의회에서 우리 측 대표인 이장춘 외교정책기획실장은, 양국간 협력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우호협력조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제안했으며 중국측도 이를 긍정경도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정부는 한중우호협력조약 내용에 △ 영토 및 주권보전의 상호존중 △ 상호불가침 △ 내정불간섭 △ 호혜평등 △ 평화공존 등을 포함시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94. 4. 15)

● **한-중 국제통화 3년 간 10배나 급증**

한-중간 무역 및 인적교류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양국간 국제통화량이 91년 이후 3년 간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과 데이콤에 따르면 89년 한-중간 직통전화회선이 구성된 이후 통화량이 해마다 매년 2배씩 증가, 한국발신건수의 경우 3년 새 9배 늘어났다. 또 발신통화시간 기준으로는 7배 가량 늘어났다.

(국민일보 94. 4. 25)

● **중국근로자 8천6백 명 온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다음달 말까지 모두 8천6백 명의 근로자를 수입하기로 했다고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 관리들이 6일 밝혔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관리들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기술연수명목의 근로자를 수입한 일은 있으나, 본격적인 근로자 수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중국으로부터의 이번 근로자 수입은 한국의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다음달 말까지 한국입국이 완료될 8천6백 명의 중국근로자들은 북경·천진·산둥·길림성 4개 지역 거주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94. 5. 7)

● **생수 15만 병 중국수출**

생수제조업체 산수음료는 지난 해 말 중국식품위생감독검사로로부터 최상급 수질평가를 받고 매월 5백ml용량 생수 15만병을 효성물산을 통해 중국에 수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수음료는 이 계약에 따라 지난 9일 <泉谷山水>이라는 상표를 붙여 1차로 2만6천여 병을 선적했다. 산수음료는 중국에 수출된 생수가 우선 중국에 체류하는 상사주재원과 관광객들에게 판매될 것이며 중국 물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수출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94. 4. 26)



요즘 중국에는 일반 돈 많은 인민들의 주식 투자열이 대단하다. 특히 심천(深圳)에는 심천 정식 호구인구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주식투자자라고 한다. 그러나 94년 초반기의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요소와 그 영향으로 주식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식병'에 걸린 많은 투자자들이 애를 태우며 앓고 있다. 이 주식병에 걸려 애태워 하고 있는 모습을 풍자.

● **대만 관광객 24명 중국군인과 경찰이 사살**

중국은 24명의 대만관광객이 폐죽음을 당한 <千島湖사건>의 주범으로 군인과 경찰관들에 혐의를 두고 있으며 사건 당시 총탄이 발사되고 흉기와 선박까지 동원된 범죄가 자행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홍콩의 중국전문 월간지 <動向> 최신호가 15일 수사결과를 폭로했다.

이날부터 발매되기 시작한 <動向> 4월호는 지난 87년 중국과 대만이 교류를 개시한 후 양측관계를 가장 악화시킨 「천도호 참사의 비밀을 파헤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건 수사본부인 <千島湖事件專案辦>이 국무원에 올린 수사 보고서를 인용, 이와 같이 전했다. (국민일보 94. 4. 16)

● **대만, 대중교류 전면중단**

대만은 12일 중국과의 모든 문화 및 교육분야의 교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4명의 대만관광객이 중국방문중 숨진 '의혹' 사건으로 중국-대만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대만의 대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12일부터 당장 실시된다고 밝히고 이외에 경제 제재도 뒤따를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중국을 여행위험지역으로 선포하는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94. 4. 13)

● **대만에 관계강화 호소**

최근 대만관광객의 폐죽음사건으로 대만-중국 관계가 급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은 15일 대만 측에 관계강화 및 항공·우편·해운분야 직접교류의 회복을 호소했다고 중국의 주요 일간지들이 16일 보도했다.

강주석은 이날 대만문제를 다루기 위해 열린 5일간의 국무원 회의를 마치면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통일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업인 동시에 인민의 염원>이라고 말했다고 신문들이 보도했다. (중앙일보 94. 4. 17)

● **<6·4 천안문사태> 5주년 비상**

중국정부는 6·4천안문사태 5주년을 앞두고 각종 사회불안요소가 돌출하자 최근 강택민 국가주석의 <내부강화>를 통해 안전부와 공안부 등 관련기관의 주요간부들에게 소요사태를 예방하도록 특별지시했으며 북경시 공안당국은 15일부터 천안문광장의 시민통행을 철저히 감시하는 등 비상경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석은 <내부강화>에서 사회불안분위기로 인해 노동자 농민의 집단행동이 우려되고 당과 대중과의 관계가 악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현지 중국은 개혁을 동력으로 한 발전이 국가목표지만 사회안정은 모든

것에 앞서는 기본전제"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94. 5. 14)

● **반체제범 처벌 확대**

중국은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공공질서법의 처벌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관영 인민일보가 6일 보도했다.

중국정부는 5일, 지난 87년 제정된 공공 질서법에 18개 범죄 및 위법사항을 추가 포함시키기 위한 수정안을 현재 개최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에 상정했다. 수정안에 포함된 처벌 대상은 등록되지 않은 단체, 종파, 비밀단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자, 사면조건을 위반한자, 국적이 다른 사람들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아일보 94. 5. 7)

'89 <6·4 천안문사태> 당시의 한 장면



● **북경을 휩쓴 증권열기**

94년 3월 27일, 북경에 소재한 4대 기업이 최초로 기업의 주식을 공개하였다.

주식의 총 액수는 인민폐 10억 8천 5백만 원. 이로 인해 현재 북경 전역에 증권 붐이 한창이다.

증권에 관한 지식이 없든 10여만 명의 시민들이 북경 시내에 분산되어 있는 3백여 개의 주식 발매처를 찾아가 일대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북경 전 경찰이 출동하여 진압하는 진풍경을 연출하였다. 전중국에 이런 주식 열풍이 휩쓸고 있지만 북경에서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매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 중 주식 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한 여자의 말에 의하면, “주식을 발매한 이들 4대 기업은 모두 국가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인데 파산할 리가 있겠느냐? 만일 주가가 하락한다면 국가에서 무슨 방도를 강구할 것이다.”고 하였다. (星島日報 1994. 3. 28)

● **날로 격심해져 가는 빈부 차**

통계에 의하면 지금 중국에는 약 3천만 명의 인구가 부유층에 속한다. 전 인구의 3%를 차지하는 이들의 개인 적금액이 전국민 저축액의 무려 40%나 차지한다. 이들 극소수의 부유층을 향한 대다수 극빈자들의 불만은 점점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현재 중국대륙에서 보여지는 극심한 빈부차는 3가지 방면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지역간의 격차, 즉 연해와 내륙간의 차이이다.

둘째는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과 도시에서 기타 다른 방면에 종사하는 이들의 수입에서의 차이이다.

셋째는 각기 다른 단체간의 차이이다. 예를 들면 몇몇 벼락부자들과 일반 공업에 종사하는 이들간에 수입의 격차이다.

이상 3가지 방면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적 차이는 결국 왜곡된 사회적 분배구조를 가져오게 되고 사회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星島日報 1994. 4. 23)

● **현 중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높은 실업률**

4월 초 전국 취업회의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92년 전국도시의 실업률은 2.4%였고, '93년의 실업률은 2.6%였으며, 올해에는 3%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7억 2천만의 노동력을 갖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취업의 기회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년 말 전국의 취업 희망자는 1천1백만에 달할 것이며 그 중 구제를 필요로 하는 자는 180만에 달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공장 파산과 폐업, 그리고 기업의 인원감축에 의한 실업자군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구정 이후 실업자의 수는 한 해 5백 만에 달했다.

이 숫자는 그 배후에 1억 3천만의 농민들이 취업문제에 당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명한 경제학자의 의견에 의하면 현재 중국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실업문제이다. (信報 1994. 4. 20)



● **중국 외환시장 18일 개설**
“금융개혁 핵심” 주시

중국 최초의 외환시장인 중국외국환거래센터가 오는 18일 정식 개업한다고 일본의 교도 통신이 5일 상해발로 보도했다.

중국은 새로운 외국환거래센터의 개설을 금융개혁의 핵심사항으로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한 금융소식통은 “중국의 외환거래센터에 대한 외국보도기관의 취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철저한 비밀주의를 택하고 있어 운영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94. 4. 6)

● **감숙성(甘肅省) 이어 타림분지**
“무진장” 유전 확인

중국 내륙부인 감숙성에 이어 신강위구르자치주의 타림분지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중국 서역 전체가 <제2의 중동>으로 떠오르고 있다.

감숙성 지역에는 지난 52년부터 개발한 옥문유전, 연간 1백40만톤을 생산하고 있는 장경유전 등이 있고 중심지인 난주에는 정유시설 등 석유관련시설이 정비돼 있다. (한국일보 94. 5. 10)

● **중국근로자 최근 잇단 시위**

중국 동북부의 공업기지인 흑룡강성을 비롯한 길림성, 요녕성 등 동북 3성에서 국영기업체의 임금체불로 지난해 말 이후 최소 1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가두시위에 참가해 사회불안이가중되고 있다고 홍콩의 중국전문월간지 <開放> 최신호가 11일 보도했다.

흑룡강성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시위는 하얼빈시 등 주요도시 도처에서 발생했으며,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민주화나 자유대신 생존과 밥을 달라고 외쳤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이같은 시위사태는 전국적으로 국영기업이 가장 많은 동북지방 곳곳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당국은 “89년 천안문사태 이전과 유사한 현상으로 분석하고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고 <開放>은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 94. 5. 13)

● **중국, 재정긴축 더욱 강화**

중국국무원은 올 1분기 경제가 과열기미를 보임에 따라 주용기(朱鎔基) 부총리의 긴축정책을 보다 강화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홍콩 스탠더드紙가 12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최근 지방정부에 하달한 통지문에서 경제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인하고 지난해 6월부터 주용기 부총리 주도로 시행돼 온 긴축정책을 더욱 강화, 고정자산투자 및 경제기술, 개발구의 확대 등을 철저히 금지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복건성과 심천특구 등은 이미 주요 일용품에 대한 물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94. 5. 13)



상해의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 **개방중국, 외국인 상대 범죄 급증**

개혁·개방의 심화로 날로 급변하고 있는 중국사회에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강도, 절도, 사기 등 한탕주의 각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상대 범죄는 외국인의 경우 현금, 귀중품 등 금품소지액수가 일반 중국인에 비해 많은 대신 범행 후 수사의 추적을 따돌리기 용이하다는 이유 등으로 살해유기, 감금폭행과 같은 형태로 잔혹성을 띠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특히 조선족동포가 있어 통역, 안내 등 상대적으로 중국여행이 편리한 한국인들은 개별자유활동이 용이한만큼 범죄의 표적이 될 소지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대사관과 현지 한국상사는 중국 내 한국 여행객들이 숙지해야 할 <중국여행수칙 10항>을 정해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중국은 치안안전지대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버려라. △ 개별행동, 야간활동을 삼가고 이유없는 친절을 경계하라. △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누구의 말도 쉽게 믿지 말라. △ 호텔 가라오케 나이트클럽 주변과 전국 관광지에는 외국인을 노리는 범죄의 손길이 늘 뻗쳐있다. △ 돈이 들고 불편하더라도 중국의 법규대로 움직여라. △ 약속과 계약을 남발하지 말라. △

너무 있는채, 아는채 떠벌리거나 으스대지 말라. △ 북한과 비교하는 남한 자랑을 삼가라. △ 조선족도 중국에서 태어나 자란 중국인임을 잊지말라. (동아일보 94. 5. 10)

● **중국 "개고기 열풍"**

개의 해를 맞아 중국에 개고기 "열풍"이 불고 있다. 중국남부 광서장족자치구의 南寧市(인구 50만 명)에서는 하루 최소한 개 1천 마리를 먹어치운다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 <大公報>가 10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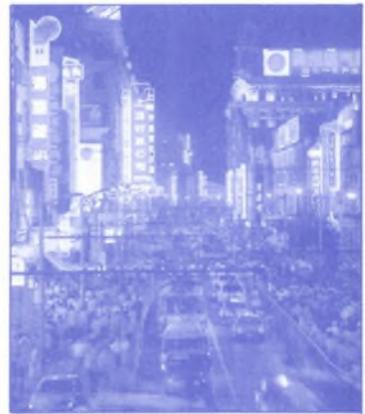
이 신문은 중국의 <개고기 문화>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남녕에서는 개고기가 이제 사철 유행하는 요리로 변했으며 음식점들은 개고기를 팔지 않으면 실제로 영업이 되지않고 개고기에 대해 이야기 못하는 남자는 미각 수준을 의심받는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저명인사들부터 일반 근로자들까지 개고기를 즐기며 "남녕 식객들은 갖가지 산해진미와 기이한 금수를 먹는데 지쳐 다시 개고기를 사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94. 5. 12)

● **뇌물 준 기업체 사장 사형**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1일 불법적인 주식발행 및 뇌물공여죄로 구속된 대기업 사장을 사형에 처하고 이 기업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고위관리에게 20년 징

역의 중형을 확정, 중국정부의 단호한 부패척결의지를 드러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계 전자제품 제조기업인 <長城機電>의 선다이후 사장은 3백25만 元(37만3천5백 달러) 상당을 착복 또는 뇌물공여한 죄로 사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94. 4. 12)



● **중국남부 폭풍우 강타 1백65명 사망**

지난주 초 중국 동해안을 강타한 폭풍으로 농부 6명이 지름 15cm 크기의 우박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하는 등 적어도 1백65명이 사망했다고 9일 중국관영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강서성과 복건성 일대를 휩쓴 폭풍으로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손실액은 14억 원(1억 6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94. 5. 10)

●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20만 명의 유랑아들**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보장제도의 급격한 붕괴로 인해 발생한 유랑아동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中國日報>의 보도에 따르면, 4세에서 11세까지의 아동들을 집단 수용할 집과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공개 캠페인과 모금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 유랑아들의 대부분은 지역적 자연재해로 인해 가정의 파탄 혹은 부모의 이혼과 학대로 집을 나온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도시에서 구걸을 해서 생계를 연명하고 있으며 밤에는 기차역과 부두에서 잠을 잔다. 사망율은 매우 높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상해 등 많은 구직인구를 끌어들이는 대도시의 경우 92년도에 3천여 명의 유랑아동들이 모여들었고, 요령성의 심양에도 6천 명의 유랑아동이 있는데 그 중에는 4살이 채 안된 어린아이마저 있다고 한다. 각 농촌에서 밀려들어오는 민공의 행렬 속에 이들 유랑아동들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며 그 나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星島日報 1994. 3. 29)

● **중국으로 오는 외국 유학생 증가 추세**

북경시 고등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북경의 청년들 중에 자비를 들여 서방으로 유학가는 열기는 나날이 식어가고 있으며 오히려 외국의 학생들이 몰밀듯이 북경으로 유학오고 있다.

1993년 북경시는 전문대졸 이상 자비유학생 2,800명의 출국 비자를 승인해 주었다. 1992년도에는 그 보다 1,063명이 더 많았고 1991년도에는 2,031명이 더 많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경지역 44개 고등학교에 있는 외국유학생의 수는 '93년 1만1천여 명으로 '92년보다 3천 명, '91년보다 7천명이 늘어난 숫자이다. 북경에 있는 1만1천 명의 유학생들은 세계 127개 국가에서 왔으며 그 중에 장학금을 받고 온 사람이 1,199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자비로 온 학생들이다.

(星島日報 1994. 3. 26)

● **중국에 우박폭풍 7명 사망**

귀주성 남부에 지난 20일 6시간 동안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쳐 7명이 사망하고 2백26명이 부상했다고 28일 중국언론들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귀주일보에 따르면 이같은 사태로 귀주성의 60개 도시와 7백50여 마을이 피해를 보았으며 5천여 가옥과 7만여Ha의 농경지가 침수됐다.

(동아일보 94. 4. 29)

● **중국 북부 사막화 현상**

흑룡강성과 길림성을 비롯한 중국 북방 12개 성과 市에서 사막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할 경우 매년 1개 縣 크기인 2천3백km²가 사막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홍콩의 明報가 24일 중국 임업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전국토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백53만km²가 자연과피 및 산림남벌 등으로 이미 사막으로 변했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임업부는 전국의 지방성 정부에 대해 이에 대한 보고서를 올연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94. 5. 25)

(중국어 찬양)



獻上敬拜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當我思想祢是何等聖潔 當我
思想祢的大愛時 卻有祢榮耀的黎明
照耀我的生命中。 當我嘗到了祢的喜樂
時， 當我蒙受過了祢的愛時， 卻有
祢榮耀的黎明 照耀我的生命中。
獻上敬拜 獻上敬拜
盡我這一生， 惟要敬拜祢
獻上敬拜 獻上敬拜
盡我這一生， 惟要敬拜祢

발음 : Dāng wǒ sī shǎng nǐ shì hé děng shèng jié
 dāng wǒ sī shǎng nǐ dì dà ài shí
 què yǒu nǐ róng yào dì lí míng zhào yào wǒ dì shèng míng zhōng.
 dāng wǒ cháng dào le nǐ dì xǐ lè shí,
 dāng wǒ mèng shòu guò le nǐ dì ài shí,
 què yǒu nǐ róng yào dì lí míng zhào yào wǒ dì shèng míng zhōng.
 xiàn shàng jìng bài xiàn shàng jìng bài jìn wǒ zhè
 yī shēng, wéi yào jìng bài nǐ
 xiàn shàng jìng bài xiàn shàng jìng bài jìn wǒ zhè
 yī shēng, wéi yào jìng bài nǐ.

도전 !!

填字遊戲

독자들의 중국어 낱말 실력향상을 꾀하는 뜻에서 중국어 십자낱말맞추기란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상의 용어, 생활상의 실용용어, 시사용어 등 다양한 낱말을 익힐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정답은 Page 110 에)

가로열쇠

- (1) 찬미하다, 칭찬하다
- (3) 교역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신학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4) 믿음, 소망, 사랑
- (5) 드라이 크리닝
- (7) 하늘나라, 천당
- (8) 화를 내다
- (9) 인생관
- (11) 아버지
- (13) 사양하지 마세요, 개의치 마세요,
- (15) 사돈댁

세로열쇠

- (2) 미용실
- (3)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요한복음 3장 16절의 첫마디)
- (4) 아브라함의 별명(믿음의 아버지)
- (6) 목욕탕
- (7) 날 씨
- (10) 관광객
- (12) 친 척
- (14) 맞선보다
- (16) 가정교육 또는 과외공부

			1	2		5	6
		3				7	
4					8		
		9		10		14	
11	12					15	16
			13				



기도 캘린더

“형제여! 당신이 만일 그 지역을 얻고자 한다면 그 땅은 먼저 당신의 무릎으로 가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는 ‘기도’입니다. 매일 중국을 위해 무릎꿇는 기도가 중국을 주께로 드리는 일의 시작입니다. 중국의 영적 상황과 경제, 정치, 사회 전 영역에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광활한 땅 중국은 변할 것입니다 !!!

주일

중국의 교회를 위하여

◆ 지난 1월 새 종교법이 제정된 이후 구속되는 기독교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공인 가정교회의 지도자들과 신도들이 핍박과 탄압의 위험속에 처해 있다.

정부당국의 태도가 변화되어 법의 시행이 완화되고, 감혀 있는 신도들이 무사히 석방될 수 있도록.

가정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 성경을 원하는 중국교회 신도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 추산되는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6천만 명인데 비해 보급된 성경은 3백여 만 권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가정교회는 지도자조차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홍콩, 한국 등 해외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성경 보급에 필요한 물자와 일꾼들을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월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를 위하여

◆ 4월부터 실시된 중국여행자유화로 인하여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선교 목적으로 떠나는 이들도 점점 많아지리라 예상되는데 이들이 세

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현지성도나 사역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혼란과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간에 열려진 자유왕래의 좋은 기회를 지혜롭게 선용하도록.

이 통로를 통해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들이나 선교 목적으로 가는 이들이 중국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 이미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의 현지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또한 간접적인 비즈니스 목적으로 중국에 간 선교사들은 사업상의 미숙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현지 선교사들간에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려워진 선교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현재 국내에서 중국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헌신자들이 심도 깊은 훈련(언어, 문화적응, 제자훈련 등)으로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철저히 준비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로 중국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화

중국의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 6·4 천안문사태 5주년을 앞두고 각종 사회 불안 요소가 돌출하고 있다(농민,

노동자 시위). 인권상황도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급작스러운 개혁의 물결 가운데 빈부차가 점점 벌어짐에 따라 일반 민인들의 불만이 각종 범죄행위로 표출되고 있다.

중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정치 지도자들이 각성하여 참된 민주정치를 행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덕과 윤리의식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중국인들의 황금만능주의와 배금주의 가치관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며 중국 내의 기독인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 5월 초, 중국 동해안을 강타한 폭풍과 우박으로 인하여 160여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보호의 손길을 베푸셔서 적절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정부 당국과 또 해외에 있는 화교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수

중국의 지식인들과 해외유학생들을 위해

◆ 미래의 중국을 짊어지고 갈 지식인, 대학생들은 가치관의 부재속에서 황금만능주의의 풍조아래 학업과 연구의 책임을 마다하고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공산주의의 신앙을 더이상 신뢰하지 않는 그들의 공허한 심령안에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도록.

그들과 접촉이 가능한 크리스천 유학생들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 세계 곳곳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다.

해외의 그리스도인들이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유학생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생명을 얻고 거듭나도록.

목

한국에 찾아오는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을 위해

◆ 한·중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인 근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한 학술교류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한족들과 조선족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중국인 근로자들에게 선교적 관심을 보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들을 고용하는 한국기업들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평등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 인천에 정박 중인 중국배의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외향선교회와 중국어문선교회 등의 단체들이 있다.

잠깐동안 머무르는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이들을 통해 중국의 영혼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도록.

금

중국의 미전도족속을 위해

◆ 몽고족(내몽고자치구, 종교는 라마교, 그리스도인 약 800명)

새로운 성경번역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복음의 전파를 위한 라디오방송에 필요한 물질, 도구들과 일꾼이 채워지도록.

경제개발 분야에서 일할 전문인 사역자들을 세워 주시도록.

◆ 위구르족(신강위구르자치구, 강한 이슬람 세력권, 미전도지역)

복음사역이 어려운 광산적인 회교지역. 성령의 역사와 운행하심으로 강박한 심령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회교권 사역에 훈련된 전문인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구르어 방송선교, 성경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

중국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 극심한 식량난과 정치적 탄압에 못 이겨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 또한 조선족 신도들 가운데 비밀리에 중국으로 성경을 나르고 북한의 지하교회들을 양육하며 돕는 지체들이 있다.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이들을 돕는 조선족들과 한국 기업인들을 축복하셔서 지혜롭게 도울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제4회 청년·학생 선교대회

(MISSION KOREA '94)

주 제 : 모든 족속마다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기 간 : 1994년 8월 8일~13일
 장 소 : 서울시 성동구 소재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 및 근린학사
 참가대상 :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청년 대학생, 선교 헌신자 및 관심자 5,000여 명
 후 원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록 :

	6월 10일 등록	7월 20일 등록	7월 20일 이후
대학생	60,000원	70,000원	85,000원
일반인	70,000원	80,000원	95,000원

*회원단체 소속회원은 각 단체를 통하여, 기타는 출석교회 목사님 추천서와 신청서를 예약비 2만원과 함께 보내시면 등록됨.

선교한국 '94대회 프로그램 개요

	8월8일(월)	8월9일(화)	8월10일(수)	8월11일(목)	8월12일(금)	8월13일(토)
6:30 AM		아 침 경 건 회 김신호 김신숙 홍베드로 백재현 김병선 (일본) (북아프리카) (인도차이나) (소아시아) (인도네시아)				
7:00		아 침 식 사				
9:00	등 록	주 제 강 의 D.Pickard Panya Baba M.Goldsmith P.Parshall 홍정길 (아시아) (아프리카) (서구세계) (회교권) (북한) Drama, Video, 문화공연				
11:00		성 경 강 해 로마서5장 로마서6장 로마서7장 로마서8장 이동원 정근두				폐회예배 설교:방지일
12:30		점심식사 점심식사,전시 기아를 위한 점심식사,관심 전시 선교사와 대화 금식, 전시 지역별 시간				
2:00	개회예배	소 그 룹 별 시 간				
3:00	Kings Kids 설교:이동휘	선택강좌1	선택강좌2	선택강좌3 사역소개	단체전시 및 상담	
5:00		저 녁 식 사				
7:00		찬 양 합 주 회 해외선교의 현장 Media Presentation Message- Dr. Robert E. Coleman 기 도 합 주 회				

팸플렛 요청이나 문의사항은 (02)555-2713, 563-0661(FAX)
 <100-666> 중앙우체국사서함 6601 선교한국사무국으로

주최 : 선교한국 '94 조직위원회

국내 선교 동정

▶ 중국선교세미나

중국어문선교회에서 효과적인 중국선교를 돕기 위해 중국선교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1994년 6월 27일(월)

오후7시~9시

주제:중국에서의 전문인 사역과 전략

강사:민요셉 (Hope 총무)

일시:1994년 8월 22일(월)

오후 7시~9시

주제:중국미전도족속 선교를 위한

전략적 접근

강사:한정국 선교사 (한국OMF 대표)

장소:이수성결교회

(중국어문선교회 맞은 편)

참가비:없음

신청접수 및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로.

(Tel. 594-8038, 533-5497)

▶ 중국어문선교회 기도합주회

중국어문선교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중국을 위한 기도합주회를 갖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의 회원 및 선교 헌신자, 중국선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를 통해 중국을 주께로 드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현지 선교사들의 생생한 사역보고를 통해 최근 중국의 상황과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로.

(Tel. 594-8038, 533-5497)

▶ 94 중국지역선교대회 (China Cluster Conference) 참가자 모집

선교한국 94 대회 이후, 중국선교 헌신자들과 관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 프로그램인 <'94중국지역선교대회>가 1994. 8. 18(목)~8. 20(토)까지 3일간 중국복음선교회에서 열립니다.

“중국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이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대회의 주강사는 홍콩 FEBC Director인 노가문(盧家敏) 목사이며 참가인원은 약 15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국복음선교회로.

(Tel. 778-3626 Fax. 773-6278)

▶ NSM 중국 처소교회 단기사역자 모집

NSM(New Spark Movement: 충신대학원 학생신앙운동)에서는 올 여름 중국의 처소교회에서 진행될 실제적인 양육 프로그램으로 사역할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선착순 20명).

자세한 문의는 NSM 사무실로.

(Tel. 596-6695)

▶ 한국 OMF 제2회 동아시아 선교캠프

선교한국 '94 대회 이후 동아시아선교 헌신자 및 관심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양육 프로그램인 <제2회 동아시아선교캠프>가 한국 OMF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강사는 현 OMF총재인 David Pickard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 OMF로.

(Tel. 555-3958, 567-9859)

▶ 제9회 모퉁이들 선교학교

북한선교를 위한 <제9회 모퉁이들선교학교>가 1994. 6. 28 (화)-7. 1(금) 3박 4일 동안 휴전선부근 xx지역(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에서 열립니다.

“영적전투와 그 전쟁터 -북한”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 선교학교는, 영적준비를 위한 영성훈련을 강화하여 북한선교와 북한교회 재건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교학교의 모집인원은 120명(선착순)이며 등록 마감은 6월 2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선교학교 담당자에게.
(Tel. 796-8846)

▶ **두란노 해외선교회 아프리카, 동북아시아 장기, 단기 사역자 모집**

선교현장을 개척하여 사역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두란노 해외선교회는 아프리카 및 동북아시아에서 사역할 신실하고 헌신된 선교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분야 : 피아노, 바이올린 교사, 유치원 교사, 어학원 국어교사, 치과 기공사, 위생사, 행정관리자, 가전제품 수리 기술자, 전동기 기술자.

자격 : 소속교회 후원 또는 추천이 가능한 선교 헌신자로서 적절한 훈련을 필한 독신 또는 기혼자.

기간 : 장기 또는 단기사역 (최소 6개월).

자세한 문의는 두란노 해외선교회로.
(Tel. 749-5497, 797-3548 Fax:749-5498)

▶ **도시선교, 미전도종족 연구를 위한 제2회 '94 캠프 여호수아**

연구안목을 가진 선교 사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94 캠프 여호수아>가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KRIM)의 주관으로 1994. 7. 11(월)~7. 16 (토) 4박 5일 동안 목산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타문화권 선교사역을 위한 전력과 정보수집, 효과적인 연구의 방향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번 캠프의 참가대상은 단기선교 여행준비자, 미전도종족선교 헌

신자, 선교단체 연구원 등입니다.

등록마감은 94. 5. 16(월)~6. 17(금)까지이며, 신청접수 및 자세한 문의는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로.

(Tel. 557-2088,569-0716 Fax:563-6950)

▶ **제 4기 네트워크 선교훈련생 모집**

제한적 접근지역선교를 위한 전문인 사역자 양성을 위한 Inter-coop(전문인 국제 협력단) 제 4기 네트워크 선교훈련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기간은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 말까지이며 서울, 대전, 부산에서 동시에 실시합니다. 개척선교지역 선교이론, 연구 세미나, 현장 사역훈련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본 훈련의 참가자격은, 대학 3, 4학년생 혹은 졸업자, 이에 준하는 동등 학력 소지자로서 선교단체나 지역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문화권선교 헌신자나 중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타문화권선교 헌신자입니다. 모집인원은 각 지역별 15명이며 접수기간은 1994년 8월 31일까지.

자세한 문의는 Inter-coop으로.

(Tel. 585-3541~2 Fax. 585-3543)

▶ **하기선교훈련원 개최**

해외협력선교회에서는 선교헌신자를 위해 '94하기선교훈련원을 마련하였습니다. 94.8.15~20일까지 김희수양관(Tel. 0353-58-0730)에서 개최하는 이 훈련원은 선교에 뜻을 둔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등록비:120,000).

또한 8.22~23일까지 "개교회 선교담당자 세미나"가 한국기독교수양관에서 있습니다(등록비:20,000).

자세한 문의는 해외협력선교회로.

(Tel. 563-3431-2)

이렇게 일합니다.

중국어문선교회는 중국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섬김의 도와 지체의식으로 중국선교의 여러 사역 중 특히 중국어문(中國語文)과
관련된 선교사역을 초교파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주요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교육훈련사역** : 중국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선교지망자들을 위해 중국선교훈련원을 통해 중국어와 현지적응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중국어 교재개발 및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연구사역** : 정기적으로 중국선교세미나를 개최하며, 국내의 선교정보의 수립 및 자료화, 중국교회 동향분석, 중국소수민족 및 각 성별 연구, 최근중국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중국선교 전략 연구 등의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문서사역** : 중국선교의 필요성과 전략이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격월간 **“중국을 주께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선교책자 번역·출판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신앙 및 신학서적을 중역(中譯)하는 일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 ▶ **중국현지 사역** : 국내에서 방한 중국교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집회 및 **“사랑의 집”**에서 제자화 양육을 수행하였습니다. 교포들이 한국에 나오는 것이 어렵게 됨에 따라 중국현지에서 **“사랑의 집”**사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 **승선전도사역** : 한국에 들어온 중국배에 매주 중국인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

고문 방지일 목사 · 김지일 장로/대표 박진국 장로/총무 이요한/행정실 실장 장희락
행정간사 최동신/재정간사 강영옥/기획협력간사 문민/홍보협력간사 김정하/해외협력간사 루디아/
전산협력간사 김형동/교육부 운영위원 김성근/협력간사 안거안/연구부 운영위원 석은혜/간사 권수영
협력간사 배다니엘/출판부 운영위원 석은혜/간사 차이나/협력간사 한영혜 · 전하리/편집디자인 정광숙
훈련원 운영위원 장희락/간사 김바울/전임강사 방주 · 우신화/선교부 운영위원 정선영/ 간사 기드온 · 주미애
임화평 · 서정열/인천지부 운영위원 우신화/협력간사 김성수/사랑의집 운영위원 박애린/간사 이순덕 ·
서세은/파송연구원 주안도/파견간사 김광석 · 윤승일/파송선교사 박애린(국내) · 예보람(해외) ·
정선영(본부) · 강성광(홍콩)/협력선교사 주성지 · 고대위

이렇게 일합니다.

본 인천지부는 중국어문선교회의 한 지체로서 중국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인천에서의 현장사역을 초교파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주요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지원 사역

인천지역에 있는 대학의 중국어성경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교중국어가 필요한 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선전도 사역

매주 한국에 들어온 중국배의 중국인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한중국인 사역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

매월 셋째주 월요일 7시 기도모임을 통하여 중국선교를 위해 무릎꿇는 일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지부 모임 안내

선교중국어 강의 : 월, 화, 목 오전 6:30~7:30 (강사:우신화)
인하대 중국어성경반 :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방송대 중국어성경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인천지역 중국선교를 위한 기도회 :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7시

후원안내

지 로 ; 7602362 인천지부
한일은행 ; 256-064131-12-001
조흥은행 ; 521-06-290561
우 체 국 ; 103614-0054606 예금주 신금주
문의전화 032-872-0742 (김민수 간사)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 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309호

중국선교 적응훈련

제 5 기 훈련생 모집

선교현장에 임하기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함은 선교사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실하게 준비하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입니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투자하는 6개월은 결코 많은 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상

교회, 교단선교부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단기선교사,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선교사.

참가인원 : 10명 내외.

선 발 : 본 훈련원의 훈련생 선발기준에 의함.

본 훈련원의 과정을 수료하면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적응능력이 배양됩니다.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이 구체화됩니다.

훈련기간

1994년 9월 3일~1995년 2월 28일 (6개월)

개강예배 및 오리엔테이션 : 94년 9월 3일(토), 오후 3시

일시 및 장소

일시 : 매주 월, 화, 수, 목, 금

월(오후 1시~5시 20분), 화·수·목·금(오전 8시~12시 20분)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강의실

훈련내용

언어 선교중국어 집중훈련

본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됩니다. 집중적인 언어훈련을 통해 생활중국어는 물론 성경, 전도, 찬양 등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하도록 합니다.

교육내용

전반(10주) 초급중국어1·2, 선교중국어 기본어휘, 사도신경, 주기도문, 회화(일반회화, 선교회화), 중국어찬양.

후반(10주) 중국어성경, 耶穌의好消息, 회화(일반회화, 선교회화), 중국어찬양, 신앙독본, 福音話劇, 예수님의 비유, 전도실제, 기도문, 중국어 간증, 전도중국어.

연구 중국문화및 선교 연구세미나

매주 전문가들의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중국문화와 중국선교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세미나 주제

중국문화개관, 중국역사, 중국공산주의 연구, 중국교회현황과 선교 전략연구, 중국기독교사, 중국타종교 이해1·2, 최근정세변화에 따른 선교대책, 해외에서의 중국선교, 전문인선교, 세계선교현황, 산동선교의 경험과 교훈, 중국정치인물론, 중국의 문화 이해, 조선족 현황,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협력방안, 중국 선교사의 출국수속과 현지 정착과정.

합숙 중국어 공동체훈련

전·후반 2회에 걸친 합숙훈련을 통해 강도높은 언어 실습, 공동체 섬김 및 문화충격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합니다.

답사 선교현지답사 실시

언어실습, 문화적응, 선교비전의 확인을 위하여 95년 2월중에 2주간 현지답사를 실시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4년 7월 1일 ~ 7월 30일

원서 접수 순서대로 면접하여 합격예정자를 결정, 개인 통보하고 훈련원에서 지정한 일자 까지 등록한 순서에 따라 합격 인원을 확정함.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1통
서약서(소정양식) - 1통
추천서(소정양식) - 3통
자기소개서 - 1통

참가비 : 등록비 1만원, 원서대금 1,000원
전·후반 각 32만원(합숙훈련 및 선교현지답사 경비는 별도)

제 6 기 훈련은 95년 2월에 개강합니다.

선교중국어 계속훈련프로그램

“선교중국어 집중훈련” 수료자 또는 그에 상당한 수준에 달한 분들을 위하여 중급 이상 수준의 과정으로 개설합니다.

훈련기간

1994년 9월 3일 ~ 1995년 1월 28일 (5개월)

참가인원 : 10명 내외

일 시 : 매주 화·목 오후 7시 ~ 9시 30분

교육내용 : 중국어 회화(일반회화 및 선교회화)

구비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 - 1통

서약서 (소정양식) - 1통

추천서 (소정양식) - 3통

자기소개서 - 1통

참가비 : 등록비 1만원, 원서대금 1,000원

전·후반 각 12만원

문의 및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 - 7 신우빌딩 402호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장희락 총무)

TEL: 594-8038, FAX: 599-2786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을 주께로

선교강좌

이 프로그램은 중국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중국문화와 중국선교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선교비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해 드립니다.

대상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선교사.
중국선교 헌신자 및 참여를 희망하는 평신도.

훈련기간 94년 9월 10일 - 94년 12월 3일 (총 12주)
개강 예배 및 오리엔테이션 : 94년 9월 10일(토) 오후 3시

일시 및 장소 일 시 : 매주 토 오후 3시 - 6시 20분
장 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강의실

주 제

중국문화개관	중국교회 토착화와 지도자연구
중국고대사상	전문인 선교
중국역사	세계 선교현황
유교사상의 이해	산동선교의 경험과 교훈
공산주의 연구	중국 여행과 생활적응
중국소수민족에 대한 개관	중국정치인물론
중국교회현황과 선교전략 연구	중국교회 지도자론
근대 중국선교사의 선교방법론	중국의 문화 이해
중국기독교사	중국 비즈니스 사역의 실제
중국 타종교 이해1·2	조선족 현황
최근 정세변화에 따른 선교대책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협력방안
해외에서의 중국선교	중국선교사의 출국 수속과 현지 정착 과정

* 중국선교훈련원의 사정에 따라 주제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등 록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4년 8월 1일 - 94년 8월 16일 참가비 : 등록비 1만원, 원서대금 1,000원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1통 12만원
 서약서(소정양식) - 1통
 자기소개서 - 1통

문의 및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 - 7 신우빌딩 402호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장희락 총무)
TEL: 594-8038, FAX: 599-2786

중국어문선교회

선교 도서 안내

선교도서

- | | |
|------------------------------------|--------|
|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전문인협력기구) | 3,000원 |
| 2. 중국선교 - 교회의 대장정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3,500원 |
| 3. 중국선교핸드북 (두란노서원) | 4,800원 |
| 4.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 1,500원 |
| 5.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 1,500원 |
| 6. 神愛世人 | 1,500원 |
| 7. 만 남 | 2,000원 |
| 8. 전도중국어(漢語傳福音) | 1,500원 |

교재

- | | |
|------------------------------------|------------------|
| 1. 中國語 聖經
(신약+시편+잠언:주음부호) | 7,000원 |
| 2. 使徒信經, 主禱文 외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 | 2,000원
1,000원 |
| 3. 經文背誦
經文背誦 Tape | 1,500원
1,000원 |
| 4. 我的第一本聖經
我的第一本聖經 Tape | 2,500원
1,000원 |
| 5. 사복음서 낭독 tape(12개) | 10,000원 |
| 6. 信仰讀本
信仰讀本 Tape (2개) | 5,000원
1,600원 |
| 7. 中國語신약성경(한어병음) | 10,000원 |
| 8. 중국어신약테이프(25개 한어병음) | 20,000원 |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담당 : 김바울 간사 (전화: 594-8038, 533-5497)

중국을 주께로

1994년 7/8월호
제2호(통권 28호)
중국선교 전문지

발행처 / 시립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발행·편집인 / 이 동 화
편집장 / 석 은 혜
편집기자 / 한 영 혜
차 이 나
권 수 영
편집디자인 / 정 광 숙

중국을 주께로

등록일자 /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 바 - 2078
발행일자 / 1994년 6월 10일
인쇄인 / 김수민(신성기획사)
값 / 2,5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 594-8038, 533-5497
팩스 / 599-2786
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308호)
전화 / 032-872-0742
사랑의 집: 관악구 신림10동 306-67
전화 / 873-2570

송금 온라인 번호
지로번호: 7602362

독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지난호부터 『중국을 주께로』가 공보처에 등록이 되고 아울러 유가지로 새롭게 변모되었습니다. 중국선교 전문잡지로서 『중국을 주께로』가 튼튼히 자리잡고, 계속해서 전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호의 호수가 1994. 3/4월호가 아닌 1994. 5/6월호로 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호의 발행일이 3월 30일이어서 3/4월호로 내는 데에는 서점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지난호를 5/6월호로 내게 되었고, 그 결과 3/4월호는 호수상으로 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통권의 번호는 누락됨이 없이 순서대로 27호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점 독자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하오며 이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안내

● 〈중국을 주께로〉의 구독은 중국선교의 첫걸음입니다.

중국선교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대하를 이루듯, 구체적 헌신의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 전 중국을 주께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구체적 헌신의 하나가 바로 〈중국을 주께로〉를 성실히 읽는 것입니다.

● 〈중국을 주께로〉를 받아보시려면,

- ▷ 가까운 기독교서점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 정기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이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중국어문선교회(TEL. 533-5497, 594-8038)로 연락을 주시어 정확한 주소와 성함을 알려 주시면 지로용지와 함께 우송해 드립니다.
- ▷ 대금은 1부당 2,500원이며(1년 구독은 15,000원), 보내 드린 지로용지의 '기타'란에 '회지 대금'이라고 쓰신 후, 은행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중국어문선교회의 회원에게는 회원 1인에 한하여 1부씩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선교회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총판 - 예영커뮤니케이션
서울시 중구 정동 1-23 구세군중앙회관 내
TEL 722-9577, FAX 722-9578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_____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137-06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_____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137-069

선교훈련 · 정보제공 · 선교사 안식과 후생 및 각종 세미나를 위한

성광선교센터



• **선교정보 자료실**
선교지역 및 종족, 선교단체,
선교활동 및 전략 등에
관련 문서자료와 비디오
자료 구비

• **레스토랑**
저렴한 가격의
정성이 담긴 음식



• **도서관**
선교 및 신앙 관련 도서

• **한식당**
300석의 한식 온돌 식당



• **외국어훈련원
(F.L.T.C)**
현대식 LAB 시설완비

• **게스트 하우스(특실)**
TV, 냉장고, 욕실, 주방



• **세미나실**
30~200석까지 다양

• **게스트 하우스**
냉난방 완비된
온돌 및 침대방



• **유치원**
선교사 자녀 100%
장학금 (단, 국교부터
교교생은 50%)

• **의료봉사**
선교사 가족 무료진료
(내, 외, 치과)
의료봉사진 : 필립
선교회, 길선교회)



♣ 교통편

주안역에서 5번 41번
마을버스 1번
인하대 후문 한 정거장
전에서 하차 (20분 소요)

성광선교센터

인천직할시 남구 용현4동 89번지

양 치 호 목 사

TEL : (032) 872-2336~8

FAX : (032) 862-0642



세계속의 카타딘 정수기

그 명성과 품질을 보증합니다.

스위스까지 가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을 하겠



1. 품질보증

- 세균 적리 아메바, 살모넬라, 콜레라, 이질, 위장염균, 비브리오, 바이러스 완전 100% 제거되며 방사능까지도 제거됨
- 염소, 비스, 카드뮴, 납, 수은등 인체에 해를 끼치는 중금속은 완벽히 제거하며
- 인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등의 미네랄 성분은 그대로 통과시켜 줍니다.
- 미 하버드대학, 미 육군연구소, 미 환경보호청, 미시간대학, 스위스 바젤대학, 스위스 중앙연구소, 미 예일대학,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서울의대, 서울시 종합기술연구소등 세계 유명 시험기관에서 입증.

2. 세계적인 명성

- 카타딘 정수 시스템은 사용하고있는 세계적인 고객은 ; Coca-Cola, Pepsi-Cola, Heineken, McDonald's, Red-Cross, Lotte Hotel, Swissair, Esso, Shell, Dole, Mobil, Philips Petroleum, Unionoil, Siatoil, Amoco Norway, Jebsen Drilling, Texaco, USSR Shipping lines, India shipping, Mitsui, Nedlloyd, Hapag-Lloyd, Ben Line, British Petroleum, 외 1,500여개의 정수장 및 3,000여개의 세계 유명 음료업체
- 국내는 한라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제주생수, 현대상선(주), 한국해운(주) 등의

3. 경제성

- 필터의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반 영구적 (타입제 1년 정도)
- 필터의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 (타입제 1만 리터)
- 5인가족 년간 유지비 4만원선 (타입제 40만원 이상)
- 생수 이용시 보다 경제적이며 사용자 세균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음.

4. 사업성

- 카타딘 정수 시스템의 제품 종류는 ;
 - 가정용 • 등산용 • 생수회사용 • 음료회사용
 - 대형호텔용 • 수도국 정수장용 • 제약회사 시설용 • 종합병원용 • 가두리 양식장용
 - 선박용 • 주류회사용 • 비행기시설용
 - Tablets • Spray • Powder 등 다양하며 정수 시스템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음.
- 타회사 제품의 추종을 불허하며
- 열성과 패기가 있는 대리점 사업주는 카타딘 정수 시스템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 됨.

“요주의” 허위 선전 업체 고발

모 정수기 업체에서는 전기분해기나 TDS를 가지고 다니며 허위선전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으로 소비자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실 수요자에게 눈속임으로 사기를 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에 속지 마시고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21번)

속임수에 의하여 정수기를 선택하신다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02)582-4505



나라가 다르고, 회사가 달라도
모두가 「카타딘」 정수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